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임 미 진

#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임 미 진

임미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이 논문은 1945-1953년 소설을 대상으로 ‘해방’의 테제를 수행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젠더적 현실 인식에 의해 출현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방 후 문학의 지형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족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재사유하게 한 동시에 젠더에 관한 인식 체계에도 극명한 변화를 가져온다. 해방 후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부녀국 설치, 여성 참정권 획득, 공창제폐지령 등의 법률적 시행은 여성해방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시행이 곧 실질적인 여성해방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젠더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해방 후 문학에서의 현실 인식을 당대 젠더를 둘러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면 과연 어떤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II 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행위의 의미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은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직후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호명한 것은 남성작가다. 김남천, 염상섭, 정인택, 정비석 등의 남성작가의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공적 대의를 실천하는 민족주체로 등장한다. 남성작가는 타자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통해 조국건설의 욕망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재현 대상은 그것이 묘사하거나 재현하려는 바에 완전히 동의하는 안정된 기표가 아니라 경합의 장소이자 불안의 원인이 되는 문제적 대상이다. 공적 대의에 참여함으로써 행위하는 주체로 변모한 여성인물은 해방 후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는

혁명에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를 훼손한다. 그 결과 남성작가는 여성인물을 남성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역사바깥의 인물, 가정부인, 또는 남성주체의 재건을 욕망하는 인물 등으로 재현한다. 이로 인하여 여성인물은 남성주체의 정치적 욕망의 대리인으로서 그 행위가 제약된다. 한편, 해방 후 여성작가가 문단에 소설을 발표한 시기는 1946년 중후반이다. 가장 먼저 문단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이선희와 지하련이다. 그들의 작품에서 해방 후 정치적 열망을 재현하는 인물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이선희와 지하련은 남성주체의 불안과 회의를 통해 해방의 열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재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요청한다. 그러나 국가건설의 전망에 대한 여성작가의 정치적 사유는 오래가지 못한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여성작가는 ‘생활’의 문제를 마주한다.

III 장에서는 1947년 중후반부터 1950년 전쟁이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사적 경험의 공론화를 통해 생활이 구축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7년 중후반은 이념대립이 극에 달한 동시에 3.8선의 분할이 지속되면서 조선 경제구조의 파탄이 극심해진 시기다. 경제구조의 파탄이 생활의 위기로 이어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 임옥인, 장덕조, 최정희, 김말봉 등은 정치적 이념과 그 실현의 가능성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다.

임옥인의 소설은 해방을 기점으로 가정 내의 문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조우한다. 이러한 전환에는 작가의 월남경험이 가로놓인다. 임옥인의 월남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은 불구가 된 오빠의 모습이다. 오빠의 불구성은 오빠의 부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해방 후 여성이 자기 존재로서 존립할 근거가 된다. 그의 작품에서 여성주인공은 집과 가족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서의 생활을 벗어나 주체로서의 새로운 자기를 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장덕조와 최정희의 소설은 외부세계로 나간 여성지식인이 민족주체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 하위주체의 삶을 마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빈곤이라는 사태는 재화의 결여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이다. 공적 대의가 최우선시되었던 해방 후

의 상황에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성 하위주체는 국가재건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들이다. 장덕조와 최정희는 하위주체에 대한 공감과 관찰을 통해 그들의 가난한 삶과 기구한 운명에 관한 침묵된 ‘목소리-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 하위주체의 사적 경험을 공론화한다. 한편, 배제된 여성 하위주체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방 후에는 여성 하위주체의 생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역시 긴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단서는 공창제폐지 관련 사건을 다룬 김말봉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김말봉은 공창제폐지의 정당성과 주변화된 여성의 안정적인 생활의 정착을 상상적으로 재현한다. 공창제폐지의 성공은 기독교의 순결주의를 통해 여성‘들’의 범주를 구성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남성성을 거부함으로써 이뤄진다. 나아가 공창제폐지운동과 희망원의 설립은 사적 경험 내에서 논의되던 섹슈얼리티를 공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는 한편으로,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꿈꾼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성연대의 가능성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화한다.

Ⅳ 장에서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기 작품을 대상으로 국가이념의 권력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젠더 위계질서의 공고화와 그 불안정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질서의 성역할을 강화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던 여성의 행위는 전쟁기를 거치면서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내면으로 후퇴한다.

장덕조의 전쟁소설 속 인물은 후방의 여성을 넘어서 전장의 여성을 재현한다. 이러한 전장의 여성 재현에는 남성과의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장덕조의 소설에서 전쟁 참여의식은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연결된다. 그는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의 고통과 죽음을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로 승화한다. 한무숙의 전쟁소설에서 주인공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며, 이때 남성은 여성적인 이미지로 재현된다. 전장의 남성이 지닌 여성이미지는 남성히스테리의 증상이다.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남성동지애를 상징하는 전장의 남성이 여성이미지로 전유됨으로써

전쟁에 대한 반감과 공포를 드러낸다. 또한 그의 소설에서 여성의 응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남성의 환상에 균열을 낸다. 손소희의 전쟁소설은 반공이념을 내세우는 국가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허구성의 메커니즘을 고발하거나 여성의 우울한 내적심리를 통해 전쟁기 일상성의 불안을 드러낸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내적심리는 전쟁의 대의를 수행해야 할 남성인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우울증을 내면화하는 남성은 폭력적인 남성적 질서로부터 이탈한다. 손소희는 여성의 우울한 내적심리와 이를 내면화하는 남성을 통해 전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념의 환상과 허상을 고발함으로써 전쟁의 대의에 균열을 일으킨다.

1945-1953년의 문학은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남성/여성작가가 재현한 젠더는 고정된 성적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며 국가적 범적질서에 참여한다. 해방 후 소설에서 젠더는 그의 이야기history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her story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욕망하게 하는 기제로 기입된다. 해방 후 소설의 젠더적 현실인식의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어 : 해방기, 해방 후, 내셔널리즘, 생활, 한국전쟁, 젠더, 젠더행위, 젠더 위계질서, 탈여성성, 남성성, 월경越境, 공창제폐지, 남성 히스테리, 우울증, 애도, 사적 경험, 공적 대의.

학 번 : 2010-30009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1
2. 연구의 시각 .....	12
II. 젠더 정체성의 재현을 통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19
1. 정치적 범주로서의 여성 재현과 남성성의 복원 .....	20
2. 윤리적 범주로서의 남성 재현과 탈脫여성성 .....	66
III. 여성의 사적 경험의 공론화와 생활의 구축 .....	89
1.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월경越境하는 여성 .....	90
2. 생활의 파탄과 사적 경험의 공론화 .....	101
3. 섹슈얼리티의 공론화와 여성 연대의 가능성 .....	116
IV. 전쟁에서의 젠더 위계질서의 동요와 현실 극복 의지	128
1. 동반자로서의 여성의 전쟁 참여와 죽음에의 애도 ..	129
2. 전장에 참여하는 남성의 히스테리와 여성의 응시 ..	140
3. 여성의 우울증을 내면화하는 남성과 전쟁의 부정 ..	148
V. 결론 .....	158
참고문헌 .....	164
Abstract .....	172



# I.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족국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재사유와 동시에 젠더에 관한 인식 체계의 극명한 변화를 가져온다. 해방 후의 여성정책은 여성해방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6년 5월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1946년 9월 부녀국 설치, 1947년 9월 보통선거법규정에 의한 여성 참정권 획득, 1947년 11월 공창제폐지령 등의 법률적 시행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 쟁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물론 제도적 시행이 곧 실질적인 여성해방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젠더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sup>1)</sup> 이 논문은 해방 후 문학에서의 현실인식을 당대 젠더를 둘러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면 과연 어떤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듯, 해방 후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는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해방 후 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월북문인의 해금解禁조치 전후다. 식민지 시기 KAPF 문학의 흐름과 해방 후 좌익 문인의 이념적 포지션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방 후 문학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해방 후 문학연구는 주로 좌우 이념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해방 후 문학 연구의 시발점인 1980년대 중후반에는 문학의 이념과 노선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윤식은 좌담회와 평론을 살펴보면서 해방 문단의 정치적 의미와 작가의 내면을 응시하고, 이를 통해 문인들의 이념선택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sup>2)</sup> 권영

---

1) 한 예로 해방 후에는 과거 신여성에게 국한되었던 남녀평등권 논의가 “빨래터에서도 부인참정권을 외친다”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한다. 『미소공위에 호소하는 인민의 소리: 주부편(7)』, 『경향신문』, 1947.5.31.

2)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해방공간의

민은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좌우익 문학단체의 이념노선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와 중간파의 위상을 통해 당대 문학운동의 성격을 상세히 밝혔으며,<sup>3)</sup> 조남현은 소설에 나타난 갈등과 문학의 이념선택 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sup>4)</sup> 신형기는 민족문학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좌우익과 중간파 문학론의 차이와 대립을 중심으로 해방 후 문학운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sup>5)</sup> 이양숙<sup>6)</sup>, 김재용<sup>7)</sup>, 윤여탁<sup>8)</sup>, 이우용<sup>9)</sup> 등의 연구들 역시 문학단체의 조직형성과 좌우익의 대립 양상을 조망함으로써 문학의 이념과 노선 갈등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념의 대립정보다는 문학 텍스트의 분석을 위주로 한 연구가 등장한다. 정호웅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언급한 자기비판 양상이 소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과 작가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였으며,<sup>10)</sup> 김승환은 주요인물이 체현하는 전형성을 중점으로 이태준과 이기영 등의 농민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에 주목하였다.<sup>11)</sup> 신형기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요인물로 등장한 작품의 현실인식을 통해 당대 문학의 리얼리즘적 성격을 규명하였고,<sup>12)</sup> 전홍남은 귀환과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작품의 의의를 밝혔다.<sup>13)</sup> 1990년대 연

---

민족문학연구』, 열음사, 1989. ;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4) 조남현, 「해방직후 단편에 나타난 혼란상과 갈등상」, 『한국문학』, 1988.1.

5) 신형기, 『해방직후 문학운동론』, 화다, 1988.

6) 이양숙, 「해방직후 문학이념과 정책논쟁: 1945.8-1946.1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54, 1989, 봄.

7) 김재용, 「카프 해소 비해소파의 대립과 해방후의 문학운동」, 『역사비평』, 1988 가을. ; 「해방직후 남북한 문학운동과 민중성의 문제」, 『창작과 비평』, 1989 봄.

8)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운동과 조직에 대한 연구」, 『한국학보』 52, 1988 가을. ; 「해방정국의 문학대중화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신청어문』 18, 1989.

9) 이우용, 「문건과 프로문맹의 문학운동론과 조직노선」, 『실천문학』, 1989, 가을.

10) 정호웅, 「해방 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일지사, 1991.

12) 신형기, 『해방기 소설연구』, 태학사, 1992.

13)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구는 문학 텍스트의 현실인식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작가의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가 작품 해석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는 1980년대 문학의 이념과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 해방 후 문학 연구가 크게 두 갈래로 양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학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기존의 좌우이념과 사상을 확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문화사적인 관점이다. 첫 번째의 경우 김경원<sup>14)</sup>, 김동석<sup>15)</sup>, 차희정<sup>16)</sup>, 이민영<sup>17)</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경원은 해방 후 문학텍스트를 ‘갈등’과 ‘자기이중화의 발화양식’으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이 주가 되는 소설은 좌우이데올로기의 치열한 대립을 체현하는 작품이며, 자기이중화의 발화양식이 주가 되는 소설은 자기비판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를 고백과 독백, 회고 유형으로 소별하여 논의하였다. 김동석은 해방 후 소설을 자기 비판적 언술(채만식, 허준), 이념 비판적 언술(김동리, 염상섭), 현실 비판적 언술(김남천, 이기영) 세 층위로 세분화하여 각 층위에서 드러나는 서사적 특징과 민족국가담론의 의미론적 구조를 논구하였다. 김경원과 김동석의 연구는 1990년 해방 후 문학연구의 연장선에서 문학 텍스트를 보다 세분화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차희정은 해방 후 잡지계재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탈식민성에 주목하여 식민지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민영 역시 탈식민성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그는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개념을 매개로 텍스트에 나타난 민족국가건설의 이행과 저항, 그리고 이산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 분석하여 그에 의미를 부여하고 탈식민주의라는 방법론을 통해 당대의 민족담론을 재사유하는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해방 후 문학을 탈식민주의 또는 냉

---

14) 김경원, 「1945-1950년 한국소설의 담론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5) 김동석, 「해방기 소설의 비판적 언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16)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2009.

17) 이민영,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전체제의 담론 내에서 사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1980년대 해방 후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사상에 근거한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두 번째 문화사적인 관점으로는 정중현<sup>18)</sup>, 천정환<sup>19)</sup> 이봉범<sup>20)</sup>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이 계열의 연구는 1990년대 유입된 탈식민주의론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사적인 관점으로 확장된 것으로, 앞서 언급한 탈식민주의 방법론과 맥을 같이한다. 정중현은 국민문화의 경계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기반으로 식민지와 식민지 이후의 기억의 생산과 전유양상을 고찰하였다. 주로 귀환서사에서 심상지리가 구축되는 과정, 3.1운동과 유관순 등의 담론에서 문화정치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해방 후 민족국가가 파시즘 윤리와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논구하였다. 천정환은 해방 후 문학과 노래, 빠라를 대상으로 당대의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의 정치적 열망이 ‘거리의 정치’로 산출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봉범은 8.15 해방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문화적 표상과 일상적 풍속을 르포르타주로 재구성하여 해방 후 문화사의 일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인, 정치인, 기자 등의 사설과 수필 등을 참조하여 당대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표상하고 있는 이봉범의 연구는 정치적 열망과 생존의지의 욕망이 뒤얹힌 혼돈과 미망의 해방 후를 포착하였다. 문화사적인 연구는 해방 후를 이데올로기 논쟁의 장소 아니라, 미정형의 정치적 욕망이 충돌하고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장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해방 후 문학/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방 후 문학 연구는 문학 단체의 노선과 이념 논쟁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주제론적 접근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면 탈식민주의론과 문화사적인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방 후의 문학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시기의 문학

---

18) 정중현, 『제국의 기억과 전유』, 어문학사, 2012.

19)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2009.

20)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일상문화의 실연과 그 의미」, 『상허학보』 26, 2009.

연구는, 일부 문화사적인 관점을 제외하면, 여전히 1980년대 해방 후 문학 연구의 이념과 사상성의 문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당대 문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이념과 사상성에 편향된 연구 시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한 문학자의 고백처럼 해방의 격변기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문학인에게 주어진 것은 ‘사상의 실천’이었다.<sup>21)</sup> 해방 후는 문학의 예술정보다는 문학의 정치성이 앞섰던 시기로 해방 후 문학의 학술적 이론적 연구방향은 좌우의 이념과 사상을 중심축에 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해방 70년이 훨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좌우 이념적 고찰에 초점을 두는 해방 후 문학 연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문학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좌우 이념과 사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해방 후 문학을 새롭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텍스트의 지식 장을 재편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리타 펠스키에 의하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서사narrative의 설명적 논리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story는 필연적으로 성별 상징성의 존재와 그 힘”을 드러낸다.<sup>22)</sup>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해방 후 문학 연구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젠더적 현실 인식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메타포가 문학 텍스트에 재현되는 방식을 읽는 것은 해방 후 문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연구는 1960년대 후반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에 학문적 이론적 기반을 이룬다.<sup>23)</sup> 젠더연구의 지적 궤적은

21) 한설야, 「조선문학의 지향: 문인좌담회 속기록(아서원 좌담회 1945.12.12.)」, 『예술』 1946.1. 『김남천 전집』 II, 정호웅·손정수 편, 박이정, 2000.

22) Rita Felski, 『근대성의 젠더The Gender of Modernity』, 김영찬, 심진경 옮김, 자음과 모음, 2010, p.22.

23) 젠더Gender연구는 68혁명으로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기 여성해방운동은 ‘제2의 페미니즘 물결’이라고도 지칭된다. 제1의 물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개된 운동으로 주로 제도내에서의 여성의 법적 교육적 지위 개선과 정치적 동등권을 목표로 삼는다. 제2의 물결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또는 여성해방운동으로 불린다. 제2의 물결은 가부장적 여성 억압이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 가운데 최초의, 가장

여성의 종속성, 혐오, 배제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성문학의 전통 연구, 문학 담론 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상징적 구조분석을 통해 문학이론의 전제를 급진적으로 재고하고 수정하는 방향에까지 이르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연구는 주변부에 있던 여성작가를 재평가하고 여성의 억압과 전유성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중심의 문학정전의 대항서사를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 학술적 이론적 젠더 연구는 1985년 창간한 『여성』(창작과 비평)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혜석, 강경애, 박완서 등의 여성작가를 복원하는 연구,<sup>25)</sup> 문학에서의 여성재현과 담론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기호로서의 여성연구 등의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sup>26)</sup> 그러나 한국 문학의 젠더연구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면서 논의된 해방 후 젠더문학 연구는 한국 문학에서의 젠더 연구에 대한 새로운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보편적인 억압의 형태로 파악하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 아래 여성의 사적 세계를 정치적인 분석대상으로 확대한다. 송명희 외, 『한국문학이론 비평총서: 페미니즘 비평』 2, 한국문화사, 1991. 참조.

- 24) Elaine Showalter, 「페미니스트의 비평 혁명」,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신경숙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21.
- 25) 한국의 여성문학연구에서 여성작가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이상경, 『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가장 많이 논의된 여성작가는 나혜석, 강경애, 최정희, 박경리, 박완서 등을 들 수 있다.
- 26)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윤선, 「192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성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표상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노지승,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해방 후 젠더 연구는 이영미<sup>27)</sup>, 이해령<sup>28)</sup>, 류진희<sup>29)</sup> 등의 논의가 있다. 이영미는 해방 후를 “성애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는 해방 후 여성의 섹슈얼리티 강화는 남성 중심적 권위의 탈피와 모성이데올로기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논의하였다. 이해령은 해방 후 텍스트에 나타난 식민기억의 서사를 젠더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방 후에는 식민화의 메타포인 여성수난사가 부차적인 산물이 되고 남성수난사가 텍스트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남성성의 회복을 꾀하는 전략적 수사 장치라고 논구하였다. 류진희는 해방직후 민족국가의 남성성은 여성의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좌우 여성작가의 이념적 특징과 고유성, 그리고 번역의 양상을 논의하였다. 이들 연구는 해방 후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드러내고 억압적인 여성의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해방 후 은폐된 여성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방민호<sup>30)</sup>와 손유경<sup>31)</sup>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민호는 채만식의 자기비판이 「낙조」(1948)의 춘자의 시점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객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해방 후 문학의 젠더재현이 가부장제적 젠더위계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손유경은 지하련의 텍스트가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자율성과 민주주의적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대 역사의 특수성과 현실적 맥락에서 여성작가의 포지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이러한 해방 후 문학에서의 젠더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해방 후 문학에서의 젠더 연구의 대상을

- 
- 27) 이영미, 「성애의 시대, 여성 주체와 섹슈얼리티: 해방공간의 성담론 시고」, 『국제어문』 33, 2005.4. ; 「해방공간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9.
- 28) 이해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19, 2008.6. ; 「해방기 충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009.10.
- 29)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4.
- 30)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pp.129-131.
- 31)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직후부터 1953년 7월 한국전쟁까지 발표된 것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간 해방 후 문학 연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전까지, 또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이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방의 난제는 냉전과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한국전쟁시기에도 국가건설의 다양한 기제들이 보다 절박한 국가 재건의 요구 속에서 여러모로 강화, 연장된다. 한국전쟁까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헤게모니를 쥐지 못한 채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것이다. ‘해방’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탈식민주의와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는 한국전쟁까지 지속된 문제라는 점에서 해방의 테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직후부터 1953년 7월 한국전쟁까지 해방 후 8년의 역사에서 설명되어야 한다.<sup>32)</sup>

해방 후 젠더를 둘러싼 담론의 변화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1945년 12월 창간한 『여성문화』에서 여운형은 8.15를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의미하는 “이중적 해방”이라고 선언한다.<sup>33)</sup> 이 말은 해방과 함께 여성의 위치position와 위치설정positioning이 혁명적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해방 후 시행된 남녀평등정책은 여성의 공적참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였다. 1947년 부녀국장 고헌경의 임명을 시작으로 여성의 공직진출을 허용하였고, 1948년 이후 이승만 정권시절에는 3명의 여성

32) 이와 관련해서는 이민영의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영은 해방 후 탈식민주의 담론을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해방 후 8년의 역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민영, 앞의 논문 참고.

33) “옛 혁명가말의 한 구절에 ‘피압박민족이 해방되면 그 혜택은 여성이 남성의 배를 입는다’고 하였다. 민족이 해방되면 그 혜택을 남성共均히 향유하게되는동시에 여성은 따로 남성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이중적해방이 있는가닭이다. 과거의 조선여성을 顧察할때에 그들은 피압박민족이 당하고있는 굴욕에다가 같은 민족인 남성에게도 賤待를 ○受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따라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도 해방된다는 이중의자유를 획득하게되었다.” 여운형, 「여성해방의 이념」, 『여성문화』, 1945.12, p.6. (강조: 인용자); 8.15를 ‘이중의 해방’으로 말하는 것은 여운형의 글 이외에도 宋休理의 「연애론」(『여성문화』, 1945.12.)과 TS, 「참정권에 대하여」(『새살림』, 1947.2.), 趙珪熙의 「여성운동의 지향」(『민성』, 1948.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원문의 흘낏표 강조(「」)는 작품, 기사 등의 제목 표기와 혼동을 막기 위해 작은따옴표 강조(‘’) 표기로 바꿔 표시한다.



장관, 1명의 여성 처장이 임명됐으며,<sup>34)</sup> 한국전쟁기 여성은 군사주의의 공모자로서 공적 영역에 진입하였다. 해방 후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여성은 당대의 정치 사회적 변화과정과 맺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모순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양상은 해방직후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연속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방 후의 젠더 연구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해방 후 8년의 역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약 1년 사이에 여성신문은 5개가 발행되고 여성잡지는 7개가 발행될 정도로 여성과 관련된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sup>35)</sup> 이들 신문과 잡지에서는 남녀평등 정책의 법률적 시행이 갖는 의미와 ‘민주주의=남녀평등’이라는 도식을 강조하며 신국가 건설에서의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언급한다.<sup>36)</sup> 1948년 남한의 단독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政治的覺醒과 아울러 婦政權獲得의 好機會를 맞이하여 朝鮮女性の 政治的活動은 活潑한 動態를 보이고 있어 마치 女性時代가

34) 당대 공직에 등용된 여성은 보건부장관 구영숙(1948-1950), 상공부장관 임영신(1948-1949), 무임소(無任所)장관 박현숙(1952), 공보처장 김활란(1950)이다. 이승만정권의 여성등용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여성장관이 전무한 사실과 비교하면 해방 후 공직진출에 관련하여 여성의 위상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5) 이 시기 여성신문은 『가정신문』(1946.3. 창간.), 『부녀일보』(1946.5.) 『여성신문』(1947.4.) 『부인신보』(1947.5.) 등 5개가 발간된다. 여성잡지는 1945년 12월 『여성문화』(편집겸발행인 吳承元)를 시작으로 『여성공론』(1946.1. 편집겸발행인 李康桓), 『여학원』(1946.1. 편집겸발행인 金正修), 『신여성』(1946.2), 『신소녀』(1946.2. 편집인 高在善, 발행인 金鉦大), 『부인』(1946.4. 편집겸발행인 金相德), 『새살림』(1947.1. 편집인 安祐香 발행인 高鳳京) 등 7개가 발행된다. 이들 신문잡지는 좌우 이념에 따라 그 논조가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1945년 8.15는 여성에게 ‘이중의 해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해방기 여성의 역할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 후 여성신문관련 연구는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9, 2002. ; 윤선자, 「해방직후(1946년 8월-1950년 6월) 여성지에 나타난 여성 문화와 여가에 관한 담론」, 『역사와 담론』 46, 2007. 참고.

36) 『새살림』은 「민주주의 강좌」(1947.2.3.), 「미국녀권운동사」(1947.2.3.), 「조선의 민주주의」(1947. 10.), 「민주주의의자유와책임」(1947.11.12.) 등의 기획 연재를 통해 민주주의는 “종족 종교 계급 성의 차별”이 없는 인간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파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는 “남녀의 차별을 극력배척”한다고 언급한다.

온듯하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해방 후 여성은 변화하는 역사의 주체자로서 자리매김한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위치변화는 남성적 국가질서의 동요를 야기하였다. 김송과 안석주 등의 남성 지식인은 남녀평등이 민족국가의 발전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은 현모양처로서의 “숭고한 지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8)</sup> 여기에는 여성의 위치를 가정에 묶으로써 여성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려고 하는 남성의 내적욕망이 존재한다. 반면, 여성지식인은 남녀평등에 비협조적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남성사회다”라고 비판하며, ‘여성의 총단결’을 주장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한다.<sup>39)</sup> 해방 후의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남성과의 협조 또는 적대적 관계를 거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물론,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곧바로 여성의 생활세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1945년 8월 일본제국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3.8선 분할은 조선의 경제난을 가져왔다. 오기영은 조선은 곧 “失業者國”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가의 눈에는 좌우의 이데올로기만 보

---

37) 이태우, 「세계여성의 정치적 활약: 조국재건을 목표로 진군하는 그들의 용자」, 『경향신문』, 1948.4.4. (강조: 인용자)

38) 김송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말: 여성의 위치」(『부인신보』, 1947.5.22.)에서 여성의 의무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남녀평등의 의미를 오인하고 오직 사회활동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여성의 위치를 몰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석주는 「부인론」(『부인』, 1946.11.)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주장”은 국가의 발전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말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반드시 여자가 그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여자의 인간으로서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것만도 아니다. 여자의 권리는 사나히의 뒤를받치고 아이들을 잘길러서 그나라의빛나는 명일이 계속되게하는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인 참여를 남녀평등론에서 배제한다.

39) 모운숙, 「부인대의사는 누가되나?」, 『새살림』, 1947.11.12. ; 박승호의 「여성의 시대:입법의원한모통이에서」(『새살림』, 1947.8.9.)는 여성 인사들이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표로 선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을 통해 여성대의원 22명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위원들이 보통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부결시키자, ‘남녀동등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남성정치인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할때는 남녀동등권이 뚜렷”하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고 실업자는 보이지 않느냐고 질책하였다.<sup>40)</sup> 경제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여성의 교육지수는 절대적으로 취약하였고 봉건적 사상으로 인해 여성이 마땅한 직업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sup>41)</sup> 민주주의에의 열망은 여성의 권리향상의 기대감을 고취시켰지만, 한편으로 경제난은 여성의 생활의 고난을 가져왔다. 이후 한국전쟁은 남성의 권력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은 남성주체의 보조자로 제한되었으며 여성의 생활난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중적 해방’, ‘여성시대’에 대한 갈망과 환상은 전쟁을 겪으면서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해방 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여성의 공적 대의를 논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을 기반으로 여성이 자기바깥의 세계를 구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성의 위치와 그 변화는 해방 후 새로운 국가질서의 변화의 동인이었다. 나아가 국가적 질서에 여성의 목소리를 기입한다는 것은 권력과 힘의 재분배를 동반한다. 공적/사적 영역이라는 성차 분리가 동요되고 일상의 사회적 관계들이 재접합됨으로써 힘의 재분배가 가능해진다. 권력과 힘의 재분배는 새로운 개념적 지평이 열리는 세계를 예고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는 각자의 욕망체계에 의해 젠더를 재구성한다. 민족주체, 가정부인, 윤리적 주체, 하위주체, 내면으로 후퇴하는 젠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를 재현하며 해방 후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욕망한다. 따라서 해방 후 문학에 나타난 젠더적 현실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를 통해 권력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남성과 이를 수용, 전유하고자 하는 여성의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복수의 코드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당대의 정치적 방향 및 역사적 의미와 결부된 여성들(또는 남성들)의 서사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0) 오기영, 「失業者」, 『신천지』, 1946.8.

41) 이배용에 의하면 1938-1943년까지 여성 취업률은 34-38% 수준을 유지하다가 1948년에 이르면 27.8%로 급격히 하락한다. 또한 여성의 임금은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1/3 수준이었다.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1945-1948」, 『역사학보』 150, 1996, p.199.

## 2. 연구의 시각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된 젠더연구는 생물학적인 범주로서의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범주로서의 젠더gender를 구분하고 젠더에 내재된 가부장제적 억압에 반기를 들고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젠더 연구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1949)을 기반으로 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becomes” 라는 보부아르의 유명한 언급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한 것이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제2의 성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여성의 선천적 열등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후천적 예측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보부아르는 여성 해방은 여성의 예측성이 후천적이라 것을 자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기의 젠더연구는 이러한 보부아르의 논조를 기반으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들춰내면 그 아래 진정한 여성성, 즉 자연으로서의 여성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피력하였다.

1960-1980년대 젠더문학 연구는 이러한 젠더 연구를 기반으로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고발하거나 여성 작가의 고유한 경험을 발견함으로써 여성해방에 기여하였다.<sup>42)</sup> 그러나 여성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젠더문학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이 저항했던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sup>43)</sup>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 이후

---

42) 구체적으로 1960-1980년대의 젠더문학연구는 가부장제체제를 고발하고 이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비평feminist critique과 여성중심비평gynocritic으로 나눌 수 있다. 페미니스트 비평은 남성작가에 의해 표상된 여성의 왜곡된 이미지를 읽는 것으로, 케이트 밀렛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1969)이 대표적이다. 여성중심비평은 여성주의 시학을 선언하는 것으로 가부장제의 금기를 뚫고 나오려는 광기와 분노를 읽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의 『다락방의 미친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1979)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송명희 외, 앞의 책 참고.

43) 임옥희, 「젠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정숙 엮음, 한길사, 2012, pp.450-451.

여성의 정체성 확립이 또 다른 억압을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한국문학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면서 여성성이라는 미학적 개념을 도출하는 여성문학의 접근방법은 결국 여성문학의 다양성을 제약한다는 논조가 등장하고 있다.<sup>44)</sup> 여성의 경험을 그것의 표현에 앞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여성은 필연적으로 여성성이라는 또 다른 제약과 억압 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젠더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 주디스 버틀러와 조앤 스콧의 이론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디스 버틀러와 조앤 스콧은 ‘여성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의 구분을 폐기한다.

우선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 *Gender trouble*』(1990)에서 여성을 단일한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여성을 고정된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중인 ‘과정-중의-주체’로 본다. 그는 여성을 단일한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버틀러는 ‘젠더 존재론의 계보학’이란 명칭으로 젠더가 권력구조에 의해 생산되고 제한되는 방식을 분석한다.<sup>45)</sup> 여기서 계보학이란 푸코가 「니체, 계보학, 역사 *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1971)에서 니체의 방법론을 계승한 것으로, 존재와 진리에 대한 일반적 전제들에 대해 의심하고 그것의 유래 *Herkunft*와 출현 *émergence*을 탐구하는 역사적 감각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기원’과는 달리, 역사의 복잡한 경로를 따라 지나간 사건들의 고유한 분포와 그 특징들 속에서 풀기 어려운 하나의 그물망을 추적하고 힘의 투쟁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sup>46)</sup> 따라서 버틀러의 젠더 존재론의 계보학은 여성을 하나의 정치 주체로 범주화하여

44) 심진경,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4, p.182. ; 권명아 역시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가 여성사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주체성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신성화하는 역설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여성사에서 경험의 역사화와 차이화를 중시하는 젠더사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권명아, 『맞장뜨는 여자들』, 소명출판사, 2001.

45) Judith Butler, 『젠더트러블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16.

46) Michel Foucault, 「니체, 계보학, 역사 *Nietzsche, Genealogy, History*」,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이광래 역, 민음사, 1995, pp.329-344.

그 기원과 본질을 탐색하는 것을 거부하고 젠더를 제도와 담론, 실천의 원인이 아니라 ‘효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언급한 “행위, 효과, 과정 뒤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행위자는 단지 그 행위에 덧붙여진 허구에 불과하다. 행위만이 전부다”를 차용한 것이다.<sup>47)</sup> 이 공식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 ‘행위’는 행동 내부에서 부단히 생성되는 행동양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확립시키며 모든 제한들을 개방시키는 내적경향을 말한다.<sup>48)</sup>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매우 견고하게 규정된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것이다. 구성된 행위로서의 젠더를 논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구성체 안에서 ‘행하는do’ 방법을 질문하고 젠더라는 범주가 권력구조에 의해 생산되고 제한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sup>49)</sup> 버틀러는 이를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이라고 언급한다.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가져온다. 그는 카프카의 『법 앞에서』의 시골 남자가 법안으로 들어가기에 기다리는 행위가 곧 자신이 기다리는 법에 어떤 힘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권위적인 의미에 노출되리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권위가 부여되고 설정되는 수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가 수행문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50)</sup> 존 오스틴의 수행문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데리다에 의하면 수행성은 언어행위를 통해 실천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작용이다.<sup>51)</sup> 이런 점에서 보면,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섹스/젠더가 행위의 반복과 인용을 통해 굳건해지는 것으로, “행위성agency의 존재론적 효과가 세워지는 매개수단

47) 니체의 「도덕의 계보」는 김정현의 번역본(Friedrich Nietzsche, 「도덕의 계보」,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역, 책세상, 2004.)을 참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영역본을 참고하였다.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9, p.45.

48)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역, 한길, 2008, p.252.

49) Judith Butler, 앞의 책, pp.44-65.

50) 위의 책, p.55. (강조: 인용자)

51) Jacques Derrida, 『법의 힘 *Force de loi*』, 진태원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 p.57.

vehicle이자 담론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요컨대 젠더 수행성의 핵심은 행위의 반복과 인용이다. 버틀러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우리가 권력을 거부한다고 해도 권력 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권력을 형태변화하려고 하는 만큼 그러한 권력에 의해 스스로가 형태화된다고 말한다.<sup>53)</sup> 결국 권력에 대한 전복과 저항은 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외부적인 공간이나 유토피아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복되는 의미화 실천의 내부”에서만 가능하다.<sup>54)</sup> 여기서 주요한 것은 반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이다. 즉 젠더의 규범을 어떻게 반복하고 또 위치 변경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55)</sup> 반복은 규범과 규제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반복의 실패와 오인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발화행위의 생산적인 불안정성은 반복을 통해 지배적인 권력을 고착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권력을 재배치하고 급진적으로 재의미화한다. 환언하자면, 수행성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견고한 권력체계를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들이 ‘출현’하는 방식이다.<sup>56)</sup> 여기서 출현이란 바로 앞서 살펴본 푸코의 「니체, 계보학, 역사」에서 언급한 ‘출현’으로, 푸코에 의하면 출현은 제반 힘의 등장이다. 각 힘들이 자체의 활기찬 힘을 지니고 주변에서 중앙으로 도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배력들의 유희다.<sup>57)</sup> 결과적으로 섹스/젠더의 이분법을 폐기한 버틀러의 논의를 참고하면 젠더 연구는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 그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성, 반복과 인용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가능성’이 출현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젠더를 담론적 실천의 장소로서 권력의 위계질서가 교차하는 권력관계의 효과로 보는 것이다. 젠

52) 조현준, 『젠더는 패러리다』, 현암사, 2014, p.42.

53) Judith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김윤상 옮김, 인간사랑, 2003, p.449.

54) Judith Butler, 앞의 책(2016), p.357.

55) 위의 책, p.362.

56) Judith Butler,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by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Žižek, 박대진,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 b, 2009, p.31.

57) Michel Foucault(1995), 위의 글, p.342.

더가 정치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권력의 효과로서의 젠더를 강조할 때 주요한 것은 당대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젠더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앤 스콧은 『젠더와 역사정치학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1989)에서 섹스/젠더의 구분이 유용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며 페미니즘이 보편화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나 젠더를 역사화할 것을 강조한다.<sup>58)</sup> 스콧은 젠더를 성차에 입각한 사회관계의 구성요소이며 권력관계가 의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으로 정의한다.<sup>59)</sup>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스콧은 젠더가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환원되는 것에 반대하며 복수적이고 다양한 사회관계와 정치권력의 효과로서의 젠더에 초점을 둔다. 스콧은 본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성 범주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늘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이 가진 모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sup>60)</sup> 페미니즘은 초기에 남성과 동등해지기를 욕망하였다가 그것이 남성의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비판하며 여성의 고유성에 호소하고 여성성의 우월성을 증명해 오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모순과 역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여성해방의 후퇴와 진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서사가 보여준 역사적, 정치적 범주로서의 여성의 구체적인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앤 스콧이 젠더를 역사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앤 스콧은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에서 프랑스 페미니스

---

58) Joan Wallach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스콧은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1999. 스콧은 이 저서의 개정판을 낼 때 “Some More Reflection on Gender and Politics”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 글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13, 2001.9.

59) Joan Wallach Scott, 「젠더: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송희영 역, 『국어문학』 31, 1996, pp.313-314. 이 글은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의 2장을 번역한 것이다.

60)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 조앤 스콧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34, 2008, pp.12-13.



트들의 보여준 여성해방의 의미를 동일한 여성성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이 보여준 여성해방의 여러 방식과 그 역설의 의미를 추적하고 이를 당대의 역사적 정치적인 특수성 아래에서 해석하였다.<sup>61)</sup> 이는 페미니스트의 행위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는 일련의 고정된 행동도 여성들의 본질적인 속성도 아닌 특정한 인식론 안에서 일어난 역사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요컨대, 조앤 스콧이 강조하는 젠더연구는 당대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긴밀한 연관관계 내에서 주체의 위치subject positioning를 가시화함으로써 젠더의 복잡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방 후는 남녀평등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젠더 규범을 규범으로 고정시키려는 행위와 새로운 젠더 규범 사이에 지배 권력이 출현하고 그 권위를 설정하는 힘의 투쟁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하게 나타난 시기다. 헤겔에 의하면 남성은 보편성과 개체성의 분리를 자각함으로써 공적 영역인 국가에서 공공적 시민으로서 국가적 법적질서를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는 개체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성은 개체성과 공공성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가정이라는 인륜적 공동체 내에서 행위할 뿐이다.<sup>63)</sup> 공적/사적 영역의 성차性差분리는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을 사적 경험의 존재로 환원함으로써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을 부정해왔다. 해방 후 여성의 공적 대의의 진입과 여성의 목소리가 개입된 여론장의 형성은 그간 사적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던 행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원조는 “賢母良妻란 항상 男性의 玩弄物이란 概念을 약간 粉飾한 假面의말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잇서 아프로 提起될 女性의 問題는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地位向上을 通해 女性의 人間性을 獲得하고 創造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해방 후에는 여

61) Joan Wallach Scott,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 Massachusetts』,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옮김, 앨피, 2017.

62) 위의 책, p.73.

63) Hegel, 『정신현상학Phänomenologie des Geiste』 II,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1988, pp.550-570.

성의 왜곡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논의는 여성에 관한 새로운 젠더규범의 탄생을 예고한다. 새로운 젠더규범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젠더규범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젠더는 담론적 실천의 장소로서 권력의 위계질서가 교차하는 권력의 효과로 나타난다. 해방 후 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이 출현하는 역사적 실천의 맥락으로 독해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I. 젠더 정체성의 재현을 통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이 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까지의 소설을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행위의 의미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해방직후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각된다. 해방직후 여성은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에서 이러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현’하고 있을까.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젠더 정체성의 재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현(표상)representation이 “받아들여지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 표상 작용을 달리 한다”라고 했을 때,<sup>64)</sup> 젠더 정체성의 재현은 젠더라는 범주가 당대의 권력 구조 내에서 구성되고 제한되는, ‘행하는do’ 방법을 묻는 것이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젠더라는 범주를 둘러싼 남성/여성 작가의 욕망의 차이다. 물론 남성/여성이라는 성별이 곧 남성성/여성성의 특징을 일대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작가라고 해도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반대로 여성작가라고 해도 남성성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성적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권력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sup>65)</sup> 남성에게 여성은 영원한 타자로서 존재한다. 반면, 여성에게 여성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타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식민지와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중의 해방’이 선언되었을 때, 남성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등장한 여성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작품화하였는지, 여성작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방된 직후 남성작가들이 문학단체를 구성하고 곧바로 문단에 진입하여 1945년 10월부터 소설을 발표한 것과 달리, 여성작가가 문단에 작품을

64) 李孝德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表象空間の近代』, 박성관 역, 소명출판, 2002, p.19.

65) Pam Morris, 『문학과 페미니즘Literature and Feminism』, 강희원 역, 문예, 1997, p.14.

발표한 것은 1946년 중후반이다. 그 시간적 차이 속에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는 과연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재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건설의 재건을 꿈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젠더 불평등의 근본적 구조가 문학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여성적 글쓰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작가와 여성작가가 재현하고자 한 젠더 정체성의 차이와 교섭을 통해 당대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 의식이 출현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 1. 정치적 범주로서의 여성 재현과 남성성의 복원

### (1)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정권 수립의 구상

이 절에서는 김남천, 염상섭, 정인택, 정비석 등 남성작가의 정치적 포지션과 여성 주인공의 재현 양상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김남천의 「1945년 8.15」(『자유신문』, 1945.10.15.-1946.6.28. 165회 미완)와 「동방의 애인」(『예술통신』 66), 1946. 9.5(?).-1946.12.14. 55회 미완),<sup>67)</sup>

66) 『예술통신』은 1947년 3월 2일 412호까지 발간한 후, 『문화일보』로 개제하여 1947년 3월 11일부터 재발간된다. 3월 11일자 「改題辭」에서 개제이유를 “藝術中心의 通信으로부터 文化全般의 一般新聞으로 飛躍”을 들고 있다. 「동방의 애인」 55회 이후에도 『예술통신』은 『문화일보』로 개제하여 지속으로 발간되었지만, 「동방의 애인」의 연재 중단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연재중단의 원인은 게재지의 문제라기보다 작가 개인에게 있는 것을 추측된다. 참고로 연재 중단 이후 김남천의 글은 「藝術運動을 어떻게 展開할까?: 大衆化路線積極推進」(『예술통신』, 1947.1.1.)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7) 이 작품은 「“東方의 愛人” 連載小説을 通信 提供」(『예술통신』, 1946.8.29.)에서 9월 5일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고 예고되었으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5년 11월 5일자 34회(『예술통신』, 1946.11.5)부터다. 34회 연재분의 내용은 <여태까지의 대강이야기>로 그간 소설의 내용을 짐작할 수

그리고 염상섭의 「효풍」(『자유신문』, 1948.1.1.-1948.11.3. 200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그 날, 대부분의 지식인은 환희와 감격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sup>68)</sup> 해방의 감격과 함께 이 시기 지식인이 직면한 최대의 화두는 ‘민족국가건설’이었으며, 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된 바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은 <조선문학건설본부>(문건)의 간판을 내걸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한다. 문인들의 정치적 이념적 포지셔닝은 신속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해방직후 창작에 대한 방향상실을 토로한다. 1945년 12월 12일 아서원에서 열린 좌담회 「조선문학의 지향」(『예술』, 1946.1.)에서의 첫 발언은 한설야의 “쓸 것이 많은 것 같으나 포착할 수가 없” 다는 “새로운 고민”이었다. 권환, 임화, 이기영 등은 한설야의 고민에 동의하며 소설 창작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설야는 그 원인으로 사상의 빈곤을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김남천의 상반된 의견이다. 김남천은 과거 사상의 공백이 된 것을 쓰면서 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작가의 고민이고 빈약성이라고 할지라도 “쓰면서 자신을 구체화하며 진보” 시켜야 하는 것이 리얼리스트 작가의 몫이라고 말한다.<sup>69)</sup> 요컨대 한설야는 격변하는 해방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의 부재로 인한 소설 창작의 불가능을 언급하였다면,<sup>70)</sup> 김남천은 작가란 창작하는 가운데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루카치에 의하면 서사시는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

있다. 55회(1946.12.14.)를 끝으로 연재분을 확인할 수 없다.

68) 1946년 2월 『신천지』는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가장 먼저 지식인들의 설문을 게재한다. 임화, 김남천, 계용묵, 정비석 등의 문학과 정치인, 언론인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월 15일 세기적 방송을 들으신 순간의 귀하의 심정을 알고 싶습니다, 2. 과거 日人の 惡政중에서 가장 혹독했다고 생각하시는 죄상 몇가지, 3. 완전 독립의 시기는 어느 때쯤이라고 보십니까?, 4. 귀하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스기를 원하십니까?” 설문에는 8.15 당시 천황의 라디오를 직접 들었다는 고백도 있고 며칠이 지난 시기에 비로소 해방을 알았다는 등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방의 소식을 듣고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고 회고한다.

69) 「조선문학의 지향」(『예술』, 1946.1), 『김남천 전집』 II, pp. 496-503.

70) 김윤식, 앞의 책(1989), p.71.

성을 형상화하는 반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서 이를 구성하는 장르로, 소설의 주인공은 총체성을 찾는 자다.<sup>71)</sup> 한설야의 토로가 ‘숨겨진 삶의 총체성’ 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김남천의 반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 찾아야 한다는 것, 그 길을 ‘찾는 자’로서의 소설 주인공에 방점이 있다. 이러한 김남천의 확고한 신념은 그의 창작적 실천에서 배태된 것이다. 한설야가 구상은 했지만 쓰지 못하였다고 말한 장편소설을 김남천은 해방된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신문에 연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작품이 바로 「1945년 8.15」다.

김남천의 「1945년 8.15」는 해방 후 최초의 신문연재소설로, 해방 후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이다.<sup>72)</sup> 이러한 「1945년 8.15」에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인텔리 여성 박문경이다. 김남천의 작품에서 박문경이라는 여성은 해방 후 정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민족주체로 호명된다. 기왕의 「1945년 8.15」 연구는 해방의 역사적 방향을 남성인물인 김지원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sup>73)</sup> 「1945년 8.15」에서 청년 김지원의 행위는 해방 후 김남천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아서원 좌

71) Georg Lukács, 『소설의 이론 *Die Theorie des Romans*』, 반성완 역, 1998 p.64.

72) 『1945년 8.15』은 해방 후 김남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1945년 8.15』에 대한 단독논문은 김외곤의 「새나라 건설을 위한 노력과 좌절: 김남천의 「1945년 8·15」」(『외국문학』 31, 1992)와 신형기의 「역사의 방향: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그리고 김동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현대소설연구』 26, 2005), 서영인, 「김남천의 해방기 문학해석을 위한 시론: 「1945년 8·15」를 중심으로」(『어문론총』 44, 2006. 등이 있다. 김외곤은 「1945년 8·15」는 지식인이 자기반성을 거쳐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낙관적 현실인식으로 인해 당대 정치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형기는 「1945년 8·15」는 작가의 확고한 역사적 방향을 양심적 지식인 김지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김동석과 서영인은 「1945년 8·15」를 해방전후 김남천 문학의 연속성이라는 주제 하에 분석하고 있다.

73) 대표적으로 정호웅, 「김남천의 해방 후 문학세계」, 『인문과학』 12, 2004. 신형기의 「역사의 방향: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가 있다.

담회에서 보았듯이, 현실을 포착할 수 없는 해방직후 김남천이 소설 창작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정치적 이념의 확인 또는 확신이 아니라, 그 사상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8.15」의 첫 장면이 박문경의 해매임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박문경은 김지원에게 정신적으로 예측된 인물로 평가받았다.<sup>74)</sup> 그러나 작가 김남천이 해방직후의 첫 연재소설에서 남성이 아닌 박문경이라는 여성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찾고자 했던 해방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8·15」는 일제말기 동래고녀에서 교편을 잡았던 박문경이 해방을 맞아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전 조선 각지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범을 즉시 해방하라!

(참말일까 이것이 참말일까)

(...중략...)

무장한 일병이 정거장마다 뚱뚱뚱뚱 서성거리고, 차를 멈출때마다 금시 누구를 찌를듯이 살기가 등등해서 헌병의 무지스런 흰칼이 진흙물 절은 장화를 올리며 터질 듯이 처박힌 승객을 짓밟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피곤과 더위와 악취와 주림에 지친 차내의 이재민은 그 전날의 풍습대로 두루두루 눈치를 살피면서 한두마디 나즌말로 씨부렁 거려 보고-모든 것이 그전과 다른없는 식민지 풍경 굴욕의 한토막 장면 갓었다.

(이것이 정치범의 석방과는 다른 것일까)

(...중략...)

정치범의 석방은 역시 열떨결에 빼앗은 최초의 큰 탈환 인지도 물을

74) 김외곤은 「1945년 8.15」에서 여성의 남성성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김주리 역시 박문경은 김지원의 세계관을 “비판없이 수용함으로써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세계와 단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양숙은 박문경이 “김지원의 지도를 받아 사회주의 운동에 철저히 헌신”한다고 논구한다. 김외곤, 앞의 논문. ; 김주리, 「해방기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 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25, 2011. ; 이양숙, 「해방기 여성과 정치: 헌신과 속죄를 통한 정치적 재생: 『1945년 8.15』와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2011.9.

일이다.<sup>75)</sup>

문경이 보는 해방의 첫 풍경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굴욕”의 장면이다. 이는 8.15가 자력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그 굴욕의 장면은 정치범의 석방과 오버랩되면서 “탈환”의 서사로 전환된다. 주어진 해방을 “탈환”의 서사로 전화시키는 첫 자리에 있는 정치범의 존재는 바로 김지원이다. 문경은 과거의 김지원과의 일화를 통해 해방된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본다. 경성대 의학부에 재학중이던 김지원이 학도지원병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문경은 김지원을 찾아가서 이공학계통이 면제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한다. 이에 김지원이 학도지원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도 공동의 문제입니다”라고 나직하나 단호하게 말하고 문경은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원에 대하여 느끼는 부끄러움은 이후 문경이 해방의 방향성을 찾는 기제가 된다.<sup>76)</sup> 문제는 문경의 부끄러움을 생산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놀리고 갈퀴고 차이고 할퀴워서 36년. 순진하고 아름다워야 할 젊은 처녀의 가슴에도 조선이나 민족전체의 생각대신에 나하나 일신상의 안일, 이기심 그런 것만이 깊다랗게 침윤되어 버렸었구나.)<sup>77)</sup>

인용문은 문경의 내면고백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작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다. 작가의 목소리는 문경을 일제치하에서 수난당한 ‘순진한 여성’으로 호출한다. 이때 수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성의 부재를 가져온 정신적인 훼손이다. 수난자로서의 주체정립이 수난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려는 주체 재건의 욕망을 내포한다

75) 김남천, 「一九四五年 八.一五: 서울 (一)」, 『자유신문』, 1945.10.15.

76) 이양숙은 문경의 부끄러움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문경이 “정치적 주체”로 변모한다고 언급한다. 이양숙, 앞의 논문, pp.357-363.

77) 「一九四五年 八.一五: 서울 (三)」, 1945.10.17.



고 했을 때,<sup>78)</sup> 해방 후 문경의 포지션은 새로운 자기로서의 자리매김이다. 그런데 ‘순진한 여성’으로 호출된 그녀는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무의지적無意志의 인물로 묘사된다. 무의지적인 문경을 행위하는 자로 변모시키는 자가 바로 김지원이다. 해방직후 문경에게 부끄러움을 환기시키며 민족을 깨닫게 해준 김지원은 「1945년 8.15」에서 시종일관 문경의 의식을 지배한다.

(김지원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잇는 것일까? 그는 사십여개나되는 어노정당을 지지하는것일까 또 어느 정치단체에 가담해 잇는 것일까 모든 정치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잇는 것이나 아닌가)<sup>79)</sup>

인용문은 문경이 해방 후의 지원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를 생각하는 장면으로 김지원의 사상과 행적이 문경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경의 행위는 김지원의 사상과 행적을 모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왕의 연구에서 「1945년 8.15」가 김지원의 서사로 독해되거나 박문경을 의존적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김지원의 발화는 해방 후 김남천의 이념적 포지션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작가 김남천은 당시 자신과 이념적 동궐에 있는 김지원이 아니라, 박문경을 ‘숨어있는 총체성’을 ‘찾아가는 자’로 내세웠는가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김지원의 사상과 그가 주변인물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제 말기 학병 반대 격문사건으로 고등수사계에 검거되고 해방 후 석방된 김지원은 전공인 의학을 그만두고 해방 전선의 제일선에 나선다. 박문경이 해방 후의 방향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과 달리 김지원은 해방직후 어떠한 갈등과 번민도 없이 확고부동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방직후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78)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2003, p.158.

79) 「一九四五年 八.一五: 鼓手 (六)」, 1945.11.19.

(나의 갈길은 이미 작정이되어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해서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장차무엇을 해야 할것인가에 대해선 막연하나마 이미 마음속에작정한 바가 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단 하나의 정당한 길이다. 어떠한 장애가 있셔도 뚫고 나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다. 이 길을 가는데 가치갈 사람이 생기는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것이나. 그러나 가치 끌고 나선 사람이 장애물 밖에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이나. 슬플 뿐만아니라 그것은 얼마나 앞길을 흐리게하고 발거름을 더디게 하는 방해물일것이라)<sup>80)</sup>

해방직후 김지원의 내면에는 이미 주어진 길이 존재한다. 해방직후 김지원은 그가 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행위할 뿐이다. 그에게는 어떠한 갈등도 내적분열도 없다. 평안도 대지주의 아들인 그가 친동생으로부터 평안도 집이 소작인들에게 습격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한 갈등도 내적고민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삼십팔도 이북은 차츰 잘 되어 가겠지요.” 라고 평안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부동의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부세계는 어려움과 방해를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내면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1)</sup> 김지원에게 내적분열과 갈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주변 인물은 오직 두 가지, 목표의식에 도달하는데 “장애물”이 될지 아니면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로 나뉜다. 지원이 문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길에 함께 하였을 때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sup>82)</sup> 그렇다면 김지원이 말한 “단 하나의

80) 「一九四五年 八.一五: 北緯三十八度 (六)」, 1945.12.19.

81) Georg Lukács, 앞의 책, p.84.

82) 문경이 지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김지원은 문경이 자신의 반려자가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한다. 가령 지원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병문안을 온 문경을 보고 김지원은 “문경을 일생의 반려로서 단정해서 그의 장래와 연결시켜 깊이 생각하고 천착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선택한 “단 하나의 길”을 문경이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길”로 주어진 목표는 무엇인가? 그 길에 대한 해답은 황성묵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김지원이 감옥에서 만난 황성묵은 “종로사건”으로 8년 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종로사건은 1941년 경성콤그룹 체포사건으로, 박헌영을 지도자로 둔 경성콤그룹은 해방직후 조선공산당(1945.9.11)을 재건한 핵심 조직이다.<sup>83)</sup> 작가 김남천이 소속된 문건의 노선은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에서 제창한 8월 20일 테제의 정세인식과 부합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sup>84)</sup> 김남천은 일련의 비평문에서 당시 조선공산당에서 내세운 극좌적 편향의 비판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피력한다.<sup>85)</sup> 그런 점에서 볼 때 「1945년 8.15」에서 황성묵이라는 경성콤그룹의 일원을 내세운 것은 김남천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신념의 확인이자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945년 8.15」에서 황성묵의 발

83) 경성콤그룹은 1939년 5월경부터 이관술, 김삼룡, 이재유 등이 권영태가 주창한 ‘경성공산주의자그룹’의 후계운동을 벌이다가, 1940년 당시 출소한 박헌영을 최고 지도자로 정식 영입하여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한 비밀조직이다. 경성콤그룹은 1940-1941년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검거로 다소 위축되었다. 이중 1941년 제2차 체포사건은 종로경찰서에서 주도하여 ‘종로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포된 중심인물의 대부분은 전향하지 않았고 체포되지 않은 인물도 비밀리에 소그룹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공산당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방직후 소수파인 경성콤그룹은 도덕적 정당성을 앞세워 다수파인 장안파를 흡수하여 ‘재건파 조선공산당’(통일재건조선공산당)을 발족하였다. 경성콤그룹에 대해서는 신주백, 「박헌영과 경성콤그룹」, 『역사비평』 13, 1991. ; 김경일, 「경성콤그룹과 지방조직」, 『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94. ; 이해숙, 「일제말기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경성콤그룹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 2004. 참고.

84) 문건과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임화의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문화전선』, 1945.11.15.)가 박헌영의 8월 20일 테제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와 유사하다는 것에서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박헌영과 임화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김남천 역시 마찬가지다. 김남천은 「민족대서사시의 영웅적 주인공 박헌영 선생」(『문화일보』, 1947.6.30.)에서 “나는 불행히 해방되었다는 하늘 밑에서도 박 선생을 친히 뵈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도 박헌영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듯하다.

85) 김남천, 「조선문학의 재건」, 『민성』, 1946.4. 「민족문화 건설의 태도 정비」, 『신천지』, 1946.8.

언과 행위는 당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의 노선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김지원은 그런 황성묵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명한다. 김지원이 “단 하나의 길”에 대한 확신만 있고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부재할 때, 황성묵은 병원으로 찾아와서 곧 열성자대회를 거쳐 당이 건설될 것을 알린다. 황성묵이 예고한 당은 1945년 9월 11일 발족한 조선공산당이다.<sup>86)</sup> 소설에서 황성묵의 선언은 실제 조선공산당 내의 갈등과 반목은 부재하며 절대 진리로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황성묵의 발언에 대해서 김지원은 맹목적인 믿음을 보인다.

어떠타할 확신은 업스나 이 혁명의 성질을 올케결정하고 잘못결정하는데따라 운동전체가 커다란 변동이 생긴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잇었다. 이러한 각자의주장을 충분히 토론하여 바르고정당한 노선이 결정된다는것은 얼마나 기쁘고 조흔 일이라 시뻘다. 그 주장우에 강력하고 굿센주체의 중앙이 건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병줄이고저 원하는 지원에게 잇어서 신뢰와 신념을 가지게 하는 커다란사건이 아닐 수 업섯던 것이다.<sup>87)</sup>

김지원에게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성과정은 완성된 합리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해방직후 낭만적 열정을 향해 전진하는 김지원에게 황성묵이 선언한 세계는 그 열정을 실현할 최고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김지원이 어떤 대립도 모순도 없이 그 세계로 “돌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박헌영 중심의 (재건)조선공산당이 발족할 당시, 박헌영 노선으로 흡수된 다수와 장안파의 불만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봉합된 상태였다.<sup>88)</sup>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86) 작품에서 황성묵은 김지원에게 현재 여러 분파가 있지만 “현재의 혁명의 성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만이 정당합니다”라고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김지원은 황성묵이 병원에 들러 당의 건설을 예고하고 돌아간 며칠 후를 아래와 같이 회고한다. “벌써 9월이 된지도 열이틀!”로 회고한다는 점에서 황성묵이 말한 당이 조선공산당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87) 「一九四五年 八.一五: 戰列엽해서 (三)」, 1946.1.3.

88) 한 예로 1945년 9월 8일 장안파의 해체를 선언한 열성자대회에서 장안파 최

놓고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1945년 8.15」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주요인물로 경성콤그룹 출신의 황성묵과 그를 지지하는 김지원을 등장시킴으로써 조선공산당의 발족을 이 상화한다.

〈성채城砦〉 부분에서 영등포지역 사회주의 그룹이 등장할 때도 이와 같은 인물구도로 당시 조선공산당의 내부갈등을 봉합해 버린다. 영등포 지역 사회주의 그룹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이론적 조직적으로 비판한 단체다.<sup>89)</sup> 〈성채〉 부분에서 영등포지역 사회주의 그룹은 황성묵에게 공장점수와 관리, 그리고 대미인식對美認識에 관한 입장차를 전달하지만, 황성묵은 조선공산당 중앙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sup>90)</sup> 김지원은 황성묵이 보고를 하는 동안 서기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설정으로 인

---

익한은 8월테제가 개량주의적, 경제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발족되었을 때도 장안파의 중심세력 이영, 최익한, 정백 등은 당외에서 분파투쟁을 일삼았다.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국가건설 운동」,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5, pp.52-55.

89) 당시 영등포사회주의그룹은 ML계의 이정운 계열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정운 계열은 장안파 공산당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에서 박헌영 그룹과 함께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일방적 노선으로는 노동운동과 공장관리운동의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즉, 공장점수와 관리에 있어서 노동조건 개선만을 주장할 것인가 공장관리권 획득 또는 실질적 참여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조선공산당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해방직후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은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협조 하에 평화적으로 정권수립을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등포 사회주의 그룹은 이러한 중앙당의 방침이 실상 프롤레타리아 계급해방이라는 국제적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위의 논문, p.45-49. p.149.

90) 「1945년 8.15」에서 황성묵은 공장점수와 관리 문제에 관한 조선공산당의 회의 결과를 영등포 노동자들에게 보고한다. 황성묵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통일적인 지도적인 전위당이 나서기 전에” 공장점수와 관리를 둘러싼 투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극좌적(極左的) 과오”를 범하였다고 비판하며, 공장점수와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한 노동자가 친일파이자 연합국의 적이었던 “악질 자본가”를 미군정이 옹호하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극좌적” 이냐는 질문에 황성묵은 “원칙적으론 극좌적 경향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선공산당의 대미인식을 그대로 전달한다.

하여 김지원은 당 내부의 갈등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며 황성묵의 발언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성채>에서 서술된 영등포 사회주의 그룹과 (재건)조선공산당을 상징하는 인물 간의 입장 차는 황성묵의 일방적인 발언과 김지원의 침묵(동조)을 통해서 당시의 조선공산당 내의 갈등 봉합하고 당의 이념은 이상화되고 만다.

해방직후 문건과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한 김남천이 조선공산당의 이념을 지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김남천은 해방직후 문학의 교육적 임무를 “맹렬한 정치성”에서 찾고 있다.<sup>91)</sup> 그가 「1945년 8.15」에서 문학적 풍경을 정치적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윤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정치운동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금지될 때, 카프문학은 이를 대신하여 정치행위를 은밀히 내면화한 “운동으로서의 문학”이었다. “조선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운동의 이데올로기의 대행자 노릇”을 했던 것이 카프문학의 사상사적 의미였다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이 의미가 소거된 것이다. 문인은 “은밀한 이데올로기에의 믿음”을 정치가에 내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것이 해방직후 문인의 최대의 위기였다고 김윤식은 평가한다. 김윤식은 이런 상황에서 문인이 자기를 지키는 것은 순수문학을 선택하든가 정치가로 나서는 두 가지 길에 놓여있었다고 말한다.<sup>92)</sup>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카프문인의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한다. 김윤식은 이 길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 임화를 맨 앞자리에 두고, 김남천을 이 길에 들어서자 “자기모순”에 빠진 작가로 평가한다. 일제강점기 김남천은 풍속문학론에서 관찰문학론으로 이행을 거치면서 확고한 창작방법론을 가진 작가였다. 그런 그가 해방직후 정치가로 나선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축적해 온 세계관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여기서 오는 갈등, 즉 외적 행동은 정치가로 나섰지만 내적 믿음은 작가로 머물러 있는 것에서 오는 자기모순은 이 시기 김남천이 겪고 있던 내적풍경이다. 김윤식은 이를 “용두사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sup>93)</sup> 이러한 자기 모순적 상태야

91)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문화전선』, 1945.11.), 『김남천 전집』 I, p.732.

92) 김윤식, 앞의 책(1989), pp.123-124.

93) 위의 책, pp.174-175.

말로 김남천이 아서원 좌담회에 모인 작가들과 달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국 속에서도 장편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방직후 김남천의 정치가로서의 포즈에서 탄생한 인물이 바로 김지원과 황성묵이다. 작품에서 (재건)조선공산당의 황성묵의 이념은 절대적 진리다. 1935년 카프의 해산계를 제출했던 김남천에게 형무소에서 정치적 신념을 지키고 해방 후 조선공산당을 발족한 핵심 인물인 황성묵의 정치적, 윤리적 위치는 작가 김남천을 넘어서는 권위를 확보한다. 이러한 경우 인물이 작가를 압도하여 작가가 작품의 외부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자신의 지탱점을 잃어버린다. 이로 인하여 인물의 가치 평가는 불가능하게 된다.<sup>94)</sup>

김지원이 황성묵의 이념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면서 그의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도 동일한 구조다. 황성묵이라는 절대 진리를 따르기로 한 김지원에게 조선공산당으로의 회귀와 영등포 사회주의 그룹의 논의에서의 침묵은 해방된 조선에서 황성묵이 갖는 절대적 위치로 인한 것이다. 해방직후 문학적 풍경을 정치적 노선으로 전화하였을 때 김남천의 창작방법은 조선공산당의 이념을 충실히 재현하는 “정권 수립에의 선을 좇는” 것이었다.<sup>95)</sup> 바꿔 말하면, (재건)조선공산당 황성묵의 절대적 진리와 그에 대한 김지원의 추종은 해방직후 정치가로서의 김남천의 외적풍경이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해방직후 작가의 외적풍경은 그동안의 작가 김남천이 탐구한 창작방법론을 부정하는 행위다. 김남천이 해방직후 여타의 작가와 달리 신문에 장편을 연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 온 창작방법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령 「1945년 8.15」를 연재할 때 홍명희와의 대답에서 김남천은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94) Mikhail Bakhtin, 「미적 활동에서의 작가의 주인공」, 『말의 미학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김희숙, 박종소 역, 도서출판 길, 2006, p.43.

95) 김남천, 「본격 소설의 완성: 내외면의 분열 초극」(『조선일보』, 1945.11.24.-25), 『김남천 전집』 1, p.746.

벽초: 작자와 작품과의 거리가 멀어서야 참된 작품이 나올 수 없지. 그 거리가 가까워지자면 그 작자의 신시어리티에 달린 것이니까. 「8.15」의 작자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8.15」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소. 작가는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 광경을 볼 게 아니라, 언제나 관조적인 태도로 검토하고 비판해야 할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검토하고 비판하도록 작자의 머리가 냉정해질 것 아니오. 「8.15」는 정녕코 실패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동 소)

김남천: 요는 현실의 물결 속에 앉아서 작자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얼마나 냉정하고 비판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겠지요.<sup>96)</sup>

홍명희가 작가와 작품의 관조적 거리를 가지기도 전에 쓰인 「1945년 8·15」를 두고 그 실패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때, 김남천의 대답은 단호하였다. 물론, 김남천 자신도 「1945년 8.15」가 대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듯, 그에게는 현실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 근거에 놓인 것이 바로 김남천 자신이 식민지 시기부터 꾸준히 전개해 온 창작방법론이다.

작자가 자기와 가장 근접한 육체적 연계(連繫)를 가진 지식계급의 전형을 적극적인 방향에서 찾고자 할 때에 나는 작가가 흔히 작중인물에 대한 익애와 관념적인 이상화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 과거의 프로문학이 얼마나 이 위험에 빠져서 추상적 인간의 창조에 허다한 정력을 소비하였는가 — ‘일꾼’과 ‘투사’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은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정서를 상실한 나무로 깎아놓은 목탁이었고 오직 일률적으로 기성(既成)된 한가지 눈 한가지 코 한가지 마음 한가지 행동을 하는 아무 개별적 성격과 특징도 없는 인간들이었다.<sup>97)</sup>

96) 「벽초 홍명희 선생을 둘러싼 문학 담의」(『대조』, 1946.1), 『김남천 전집』Ⅱ, p.490.

97) 「지식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조선중앙일



인용문은 김남천이 1930년대 후반 리얼리즘에 관해 논의한 비평 중 일부다. 여기서 김남천은 주요인물의 이상화를 경계한다. “작중인물에 대한 익애”에 빠질 때 그 문학은 프로문학의 공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천은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은 “주인공으로부터 적극성을 뺏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sup>98)</sup> 엥겔스가 카우츠키에 보낸 서신 중 “작가가 주인공에게 반하여 버리는 것은 언제 보아도 보기 흉한 일입니다”라는 구절은 김남천 자신이 내세웠던 창작방법론이다.<sup>99)</sup>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작가 김남천에게 정치가로서의 포즈를 요구하였고, 그는 과거 자신이 경계한 인물을 창조하는데, 황성묵과 김지원이 그들이다. 해방직후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질문에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작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형상화한 인물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현실적 갈등이 사라지고 추상적인 이념의 형상화만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남천은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포즈를 유지하려고 한 지식인이다. 그가 이 시기 “혁명적 로맨티즘을 계기로 내포한 진보적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을 내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100)</sup> 해방직후 김남천이 언급한 진보적 리얼리즘은 혁명, 꿈, 미래, 몽상 등과 결합된 리얼리즘이다. 해방직후 정치가로 전환하면서 그가 내세운 창작방법은 혁명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낭만적 열정의 전면화다. 문제는 이러한 낭만적 열정이 리얼리즘을 정신을 제약한다는 데 있다.<sup>101)</sup> 그렇다면 리얼리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방의 열정을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김남천이 「1945년 8.15」를 창작하면서 홍명희 앞에서 언급한 “냉정하고 비판적인 관찰”의 가능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김남천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보』 1935.7.4), 『김남천 전집』 I, p.88

98) 위의 글, p.88.

99) 위의 글, p.90.

100)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하여」(『중앙신문』, 1946.2.13.-16.), 『김남천 전집』 I, p.761.

101) 정호웅, 앞의 논문(2004), p.138.

해방 후 거리로 나온 박문경이란 여성인물을 내세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문경은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확고한 정치적 세계를 구축한 황성묵과 김지원과 다르다. ‘순진한 여성’으로 호출된 박문경은 해방 전에는 공적 영역과 거리를 둔 여성이었다. 그런 박문경이 해방된 순간 거리로 나와 과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해방을 기점으로 그녀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 김남천이 해방 후 첫 연재소설에서 박문경이라는 여성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는 해방 후 공적 영역의 진입이 가능해진 여성의 위치변화와 연결된다.<sup>102)</sup> 김남천은 해방 후 새로운 위치를 점유한 여성인물을 통해 해방 후의 현실과 갈등을 재현한다. 내적 갈등이 부재하는 김지원과 달리, 박문경은 김지원이 지니고 있는 이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세계와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 지점에서 박문경의 젠더 정체성은 행위를 통하여 구성된다.

박문경과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박문경의 아버지 박일산과 그의 동생 무경이다. 해방된 서울에 도착한 문경은 박일산의 귀환소식을 대흥콘체른의 총사장의 딸 이경희로부터 듣는다.<sup>103)</sup> 문경을 일제말기 대흥콘체른에서 일하다가 동래고녀에서 교사로 근무한 직업여성이다. 대흥콘체른은 친일기업이지만, 박문경은 이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될수록 문경은 행위하는 주체로 거듭난다는 것에 주목을

---

102) 실제로 해방 후 김남천은 “천오백만조선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완전해방”을 주장하였다. 김남천, 「女性解放運動의 管見」, 『적성』, 1946.2, p.40.

103)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조선일보』 1938.8.1.-1940.3.3.)에 등장한 대흥콘체른의 일가 사장 이신국, 딸 이경희와 사위 김광호는 「1945년 8.15」에서 재현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는 해방전과 후를 잇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수족관」이 김광호와 이경희의 연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1945년 8.15」에서는 박문경과 김지원을 중심으로 다룬다. 「1945년 8.15」에서 김광호와 이경희는 부정한 계급으로 등장하는데, 김광호는 이신국 일가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인물로, 이경희는 해방 후 탁아소의 운영 등 재기를 꿈꾸지만 부르주아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문경의 동생 무경과 불륜에 빠지는 인물로 전락한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의 비교고찰은 和田とも美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取才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3, 1988, ; 김주리, 앞의 논문 참고.

요한다.

「1945년 8.15」의 첫 부분에서 문경의 시선과 의식의 변화를 알리는 장면은 김지원의 석방이외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존재한다. 바로 문경의 아버지 박일산의 귀환소식이다. 문경은 아버지가 “나라찾은 오늘 다시 돌아오실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한다. 문경이 해방을 맞이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날 정치범의 석방을 생각하며 ‘해방’의 의미를 생각하듯이, 그녀의 아버지 역시 해방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일제에 저항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김지원과 박일산이 소속된 정당과 이념은 해방 후 상이한 노선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이 문경의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원인 된다.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 박일산이 돌아온다는 소문으로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방직후 임시정부(임정)의 환국구상은 임정 내의 계파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임정의 외부, 즉 남한 내의 계파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sup>104)</sup> 「1945년 8.15」에서도 임정의 환국을 둘러싼 남한 내의 이념갈등이 주가 된다. 이러한 혼란이 임정의 아버지와 조선공산당의 연인을 둔 박문경의 내적분열과 갈등으로 드러난다.

박일산의 귀환소식에 문경의 집에 제일먼저 찾아온 인물은 최진성이다. 「1945년 8.15」에서 최진성은 대흥콘체른의 이신국과 함께 우익정당 “대한공화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둘은 박문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최진성이 해방직후 국외혁명세력 가족의 생활원조를 돕는 사업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박문경은 최진성을 과거 아버지의 사상 동지였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사상범의 가족의 도움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비도적적인 인물로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은 박문경의 가족이 최진성의 사

---

104) 임정의 환국을 둘러싼 남한의 갈등은 우익의 임정봉대론이다. 임정은 1941년부터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에 임정을 승인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임정이 한반도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으로 간주하였으나 망명정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익은 임정이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선전으로 임정봉대론을 내세우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고 좌익은 임정이 국제적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임정봉대론을 거부하였다. 김정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정치세력의 대응」, 한국근현대 사학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p.600-601.

업을 거절하는 명분이 되지만, 여전히 박문경은 국외혁명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최진성의 의도는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이신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경은 최진성과 이신국 등의 일원이 국외혁명세력을 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대립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뼈라를 보고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친이 잘 아는 이들의이름을이런광고문에서보면 역시 친밀감이 가는 것이 서로 대면이나 한것처럼 기쁜 생각이 든다. 위엄끼잇고 묵중하게 생킨육순이 지낸 이사장, (...중략...) 이런분들과 또 최진성 씨와 그박게 백여명이나 되는분이 서로 체취(體臭)나 개성(個性)을 넘어서 한 가지 정치적 목적에 통일될 수 있다는것, 그것이 신기해도 보이고 또 미듬직 스럽게도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와 대립되어야 하는지는, 그 정책이 소상치 안코 정치내용을알수업어서 역시 문경으로선 이해키 힘든 일이엇다.<sup>105)</sup>

1장 <서울>에서 ‘순수한 여성’으로 호출된 문경에게 아직 역사적 현실감각은 부재한다. 우익을 대표하는 최진성과 이진국의 의도와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한 문경은 외부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경험 내에 갇혀 있다. 이러한 문경의 포지션은 정치가로서의 김남천의 이념적 지향점과는 불일치한다. 이는 ‘작가≠주인공’라는 공식을 통해 작가는 주인공의 외부에서 권위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명분을 제공한다.<sup>106)</sup> 즉, 황성묵의 경우 작가보다 절대적 우위의 정치적 존재로, 김지원의 경우 작가와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견지한 것으로 설정됨으로

105) 「一九四五年 八.一五: 鼓手 (六)」, 1945.11.19.

106) 바흐친의 초기이론에 의하면 작가는 외재적인 절대타자로, 주인공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의 모습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 역할을 한다. 반면 작가가 주인공의 외부에 위치할 수 있는 가치평가적 지탱점을 잃어버리면 작품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고 설득력 있고 강력한 완결의 기법들의 총합인 문체는 관습적인 작품으로 퇴화한다고 지적한다. Mikhail Bakhtin, 앞의 책, pp.43-44. 김영숙, 「바흐친의 작가론: 절대타자에서 초존재로」, 『노어노문학』 22(3), 2010, p.262.

써 그들의 이념을 이상화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문경의 경우 주인공의 외부에서 위치함으로써 해방의 열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경은 공적 영역이라는 외부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자의식을 지닌 문제적 개인으로 변모한다. 소설 초반부에서 문경이 외부세계를 인식하게 된 것은 지원의 이념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문경이 외부세계와 나의 세계의 불일치에서 오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그녀의 포지션이 변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경의 내적 갈등이 전면화 된 장면은 6장 <戰列엽해서>에서의 종로시위행렬이다. 문경은 지원을 병문안 갔다가 그곳에서 지원의 사상적 동지 고故이창현의 동생 이정현을 만난다. 이정현은 일찍이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다. 문경은 이정현을 보고 자신이 진리에 뒤쳐져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패배감”을 느끼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정현의 질문이다. 이정현은 문경과 일면식이 있다고 얘기하던 중 갑자기 화제와 전혀 다른 질문을 문경에게 한다. 문경은 “인민공화국이 생겼다고 반대하는 사람두 많은가 봐요.”라는 정현의 질문에 다소 당황해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남동생 무경의 중얼거림을 떠올리지만 이내 “항간을 번거롭게 하는 정치 동향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이 질문에 대한 문경의 반응을 살펴보면 문경은 여전히 김지원의 이념을 정확히 알지 못할뿐더러, 무경이 지지하는 아버지의 사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현의 질문은 지원, 정현과 함께 종로시위행렬에 참여하면서 다시 그녀에게로 되돌아온다.

문경은 지원, 정현과 함께 종로행렬에 나선다. 종로행렬은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경과”를 알리는 시위로, 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조선공산당의 구체적인 내셔널리즘의 구상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sup>107)</sup> 이 행렬을

107) 인민공화국은 미군이 진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좌파의 통일이 긴급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한다. 1946년 9월 6일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은 건준 주축로 제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다. 이어서 9월 14일에는 선언과 강령 및 행정부서 각료를 발표한다. 인공에 대해서는 김무용, 「해방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조선인민공화국(1945.8.-1945.12)」, 『한국사학호』 9, 2000. ; 이현주, 「조선공산당의 권력구

보며 지원과 정현은 “진정한 해방”과 “역사의 진행”을 실감한다면, 문경은 지원과 정현을 따라 나온 구경꾼에 불과하다. 행렬은 여러 공장의 노동자가 참여하였는데 시위행렬은 “조선인민의 정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만세!”를 외치자 문경도 함께 “미칠 듯이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도중 무경이 나타나서 문경을 데리고 시위행렬을 나와 “누나, 인민공화국 대신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까?”라는 비난에 아무 말도 못하고 흠투성이가 된 옷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부끄러움은 단지 흠투성이가 된 옷 때문이 아니다.

무경의 말은 앞서 정현이 물어본 질문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종로시위행렬에 나서기 전, 문경에게 현실은 자신의 직접적인 삶과 무관한 세계였다. 그러나 종로시위행렬 속에서의 환희, 그리고 무경과 정현의 질문은 문경을 그녀의 내적분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그동안 지원에 대한 애정으로 지원의 이념을 추종한 문경 앞에 처음으로 “아버지, 공산당, 인민공화국”이라는 현실이 뒤섞여 눈앞에 ‘자기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지원과 아버지가 각각 상징하는 정권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선을 살아가는 자기의 문제로 나타났을 때 문경이 겪는 내적 갈등은 이후 텍스트의 주된 서사가 된다. 김지원이 황성묵이 지닌 조선공산당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어떠한 갈등도 고민도 하지 않았다면, 문경은 진리를 선택하기 위한 갈등과 모순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후 문경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9장 〈旗발밧흐로〉는 종로 네거리에서 돌아온 문경의 내적고민으로 시작한다. 종로 네거리에서의 사건이후 문경은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는지, 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하는지에 따라 우와 좌를 나누고 우에 최진성이, 좌에 김지원이 있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이처럼 종로시위행렬에서의 부끄러움을 통해 문경은 좌우의 이념을 인식하고 그들이 모색하는 정부수립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경의 인식은 자기반성을 불러일으킨다.

---

상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참고.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러서도 문경은 또한번반성한다.

동생 무경이가 아무런 비판도 연구도 판단도 업시 아버지와의 관계만으로 임시정부지지세력에 가담하는것이 불순하고 사심이 끼인것일진대 문경이가 그의 애인인 김지원의 가는 방향을쫓차 무조건으로 그의 뒤에 따라나선다면 그것역시 불순하고 사심이 끼인것이라 보지 안홀수 업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선의 건국에 잇는것이요, 삼천만 새살림사리의 아름다운 건설에 잇는것이요, 결코 아버지나 애인에 잇는 것이 아닐것이기 때문이다.<sup>108)</sup>

문경은 지원의 이념을 좇던 무의지적인 자신을 반성하고 조선의 건국을 구상하는 자의식을 지닌 청년으로 재탄생한다. 다만, 인용문에서 보듯 공적인 대의에 참여하려는 여성인 문경의 의식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내포작가다. 문경을 국가적 법질서에 참여한 민족주체로, 조선건국을 고민하는 청년으로 재위치시키기 위해 작가의 가치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문경이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노선에 뛰어들면서 내포작가의 목소리는 줄어들과 문경의 내면고백과 대화가 증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경은 정현을 찾아가 부녀조직, 구원회, 조합 등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직접 운동노선에 뛰어들기로 한다. 그때 문경은 미귀환한 아버지의 의중을 생각한다. “ ‘아버지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서도 새 조선을 꾸미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연구하고 잇는 것일까?’ ” 등의 생각을 하며 임정의 아버지의 정권구상이 실상 조선건국을 위한 조선공산당의 정권수립계획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를 통해 문경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임정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경의 이러한 생각은 무경과의 ‘대화’를 통해 임정의 아버지와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난 아버지가 소속해 계시는 임시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그

---

108) 「一九四五年 八.一五: 旗발땃호로 (二)」, 1946.3.8.

반대로 생겨난 인민공화국과 그것을 만든 공산당은 반대요,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국내세력을 또한 지지합니다.” 라는 무경에 말에 문경은 무경의 삼단논법은 이론적 계기가 없는 비논리라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얘기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유일한 지팽이가 되고 등대불이 되길엔 우리 자신이 이미 너무나 청년이다. (중략) 문제는 아버지나 자식에 잇는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나 인민공화국이나 임시정부지지에 잇는 것이 아니다. 조선을 구하는 길이 조선 삼천만 민족을 구하는 길이 무엇이나 하는데있다. 나는 임시정부반대를 섭섭히 생각한다. 그러나 임시정부절대지지만으로 한목을 차지하려는 정당이나 정객을 더욱 미워하고 경멸한다.” 109)

문경의 이러한 확고한 자기 의사 표현은 앞선 서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내적고민의 결과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부정’하는 단계를 통해 문경은 외부세계에 대한 관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모한다. 이는 작가의 구상에 의해 존재를 부여받은 인물을 넘어서 자기를 둘러싼 세계(작가가 부여한 환경)에 대해 반응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답하는 주체로의 전화를 의미한다.<sup>110)</sup> 즉, 작가가 현실의 완성된 이미지를 문경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의식적인 저자의 의도와 무의식적인 욕망, 현재와 과거의 사회적 함의들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통해 문경의 자의식이 형성되고 문경이 직접 말하고 판단하는 주체로 서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인 10장 <一步退却 二步前進>에서는 문경이 어머니에게 해방 후 자신이 판단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日省錄>은 문경의 일기로 구성된다. 일기란 개인의 내적고백이라는 점에서, <日省錄>은 문경이 자아를 깨닫고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109) 「一九四五年 八.一五: 旗幟밧호로(十三)」, 『자유신문』, 1946.3.27.

110) 최진석, 「타자-화와 주체-화: 미하일 바흐친의 초기 사유에 나타난 존재론적 미학」, 『서강인문논총』 40, 2014, p.317.



이러한 변화는 문경이 무의지적인 인물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외부세계를 해석하고 공적 대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요한 것은 이때 문경은 김지원과 황성묵과 달리 이념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 어떡케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것인가.” 라는 문경의 발언은 해방직후의 정권수립구상의 분열과 위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황성묵과 김지원이 보여준 완벽한 이념으로 형성된 진리의 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문경의 행위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해방직후 김남천이 마주한 현실은, 김윤식의 말대로, 정치가와 작가로서의 두 길이었다. 정치가로서의 선택은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작가로서의 길은 정치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때 김남천이 선택한 것은 재건 조선공산당의 황성묵과 그의 이념을 추종하는 김지원이라는 남성인물을 통해 낭만적 열정을 이상화함으로써 정치적인 노선을 지키는 한편으로, 문경이란 여성인물이 ‘순진한 여성’에서 민족주체로 자각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낭만적 열정을 객관화함으로써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가가 의미부여한 여성인 문경의 젠더 정체성은 혁명을 희구하는 남성주체의 이념을 좇는 인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민족주체인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가 진행될수록 문경은 연인 김지원, 아버지 박일산, 그리고 내포작가의 영향에서 멀어지면서 자신의 발언을 획득한다. 요컨대 문경의 행위는 작가가 의미부여한 인물의 정체성을 이탈하고, ‘진리’라고 강요되는 것들이 갖는 허구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체로 호명된 여성의 젠더 정체성은 ‘순진한 여성’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경이라는 여성인물을 통해 재현된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해방 후 문학의 목표를 “정권수립에의 선을 좇는” 것이라고 선언한 작가 김남천에게 리얼리즘을 안겨주는 대신, ‘혁명’의 불안과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후 김남천은 「1945년 8.15」를 미완성으로 남긴 채 장편 「東方의

愛人」을 연재하는데, 여기서 내세운 여주인공은 「1945년 8.15」의 박문경의 젠더 정체성과는 다르다.

여기에 진리만에 모든 정열과 행동과 지식과 생명을 바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위와 가정과 그리고 일체의 것을 바치는 부인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sup>111)</sup>

「동방의 애인」의 연재예고에서는 김남천은 혁명적 정권수립을 완성하고자 하는 남성주체와 이를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등장을 예고한다. 「1945년 8.15」의 여주인공 박문경이 작품의 말미에서 정치적 물음에 스스로 답하는 여성주체로 재현되고 있다면, 「동방의 애인」의 여성 주인공은 아예 그러한 가능성이 차단된 인물, 즉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김남천은 공적 대의에 스스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여성에서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에 ‘희생’하는 여성인물의 재현으로 전화하였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주체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방의 애인」의 남성인물 안영남은 학병거부자로 해방된 후 형무소에 출소하여 좌익운동을 하며 정권수립을 꿈꾼다는 점에서 「1945년 8.15」의 김지원과 동일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김지원의 경우 (재건)조선공산당의 황성묵의 그늘 아래서 소극적인 정치행동에 그치고 있다면, 안영남은 직접적으로 좌익운동의 계획을 세우고 행위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위태로워져 갔다 합법적(合法的)인 상태를 곳까지 유지하고 활용해 나가야하되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기하고 언제 어느때일지라도 당황하지 안홀만한 준비는 갖추어 두어야할것이 느껴 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중략...) 해방이 되어 조선의 새로운 건설을 위한 사업과

---

111) 김남천, 「작자의 말: 김남천 작 東方의 愛人: 연재소설을 통신 제공」, 『예술통신』, 1946.8.29.

운동이 일체 아래모양으로 지하(地下)로 들어간다는 것은 잊을수 없는 일이고 또 잊게하도록 만들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로되 그러나 어떠한 사태의 발생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만한 준비태세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 (...중략...) (나병국씨 저택 꼭 우리들의 아지트로 땡글어야 하겠다.)<sup>112)</sup>

인용문은 안영남이 위기에 몰린 좌익운동을 구하기 위해 재벌 나병국의 저택을 아지트로 삼기로 결심하는 부분이다. 안영남이 재벌 나병국의 집을 아지트로 삼은 이유는 일제기업과 민족반역자 소유기업을 인민에게 넘기려는 조공의 신전술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안영남은 좌익운동의 탄압에 대비하여 아지트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민족반역자 소유기업을 쟁취하여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지닌 인물이다. 안영남은 해방 후 정권수립의 목표를 위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안영남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인물이 재벌 나병국의 부인 방혜련이다. 방혜련은 동경유학시절 음악을 전공하다가 중도에 의학으로 바꿨으나 아버지의 전보로 영문도 모르고 급하게 열흘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1940년 23살의 나이에 아버지 방진사가 정해준 나병국과 결혼한 인물이다.

방혜련과 안영남의 첫 만남은 7년 전인,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혜련은 1939년 ‘유학생환영간담회’에 가던 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안좌수댁에 편지를 전해주러 들렀다가, 안좌수의 아들 안영남을 만난 것이다. 이 시기 방혜련은 음악과 의학을 전공한 신여성이지만, 안영남과의 대화에서 시종일관 정치사회에는 관심이 없는 ‘무지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안영남이 전쟁과 관련하여 공산당을 언급하자 “‘공산’이란 어휘가 주는 공포심” 때문에 적지 않게 놀란다거나, 유학생간담회가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 개최되었는지 “역시 딱이는 인식지 못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혜련의 무지는 「1945년 8.15」의 박문경과 동태에 있다. 현재로서는 소설의 전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

112) 김남천, 「東方의 愛人(37): 回想(一)」, 『일간 예술통신』, 1946.11.9.

에, 방혜련의 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연재예고에서의 작가의 말과 안영남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로 변모한 박문경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해방’을 기점으로 거리로 나선 박문경은 소설 초반부에 김지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해방의 의미를 묻고 있다면, 방혜련은 해방된 지 일 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친일재벌” 나병국의 아내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한마디로 방혜련에게 ‘이중의 해방’의 의미는 부재한다. 그런 그녀에게 “차츰차츰 소생하는” “생기(生氣)”를 부여한 것은 안영남의 존재다. 방혜련은 나병국이 갑자기 검사국에 인치<sup>113)</sup>되고 가택수사를 당했을 때, 회사관련 서류보다 안영남이 맡긴 서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방혜련은 안영남의 서류를 맡으면서도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안영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박문경이 김지원의 행위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고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연재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혜련은 그동안 “친일재벌”의 아내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위,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안영남의 사상에 동조할 것이다. 그러나 방혜련의 정체성의 변화는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의 끊임없는 대결과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안영남의 서류를 보관하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줄 때, 방혜련은 “오래간만에 맛보는 경쾌한 기분”을 느낀다. 방혜련의 행위는 그간의 생활에서의 일탈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근저에는 안영남에 대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혜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영남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켜 그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여성은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바깥의 여성으로 신화화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한다.<sup>113)</sup> 따라서 방혜련은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아니라, 민족적 대의

---

113) 水田宗子미즈타 노리코,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 女性の自我と表現』, 田畑書店, 1982, pp.20-21.

를 실천하는 남성주체의 주변적인 인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1945년 8.15」에서 박문경을 통해 재현된 정치적 물음에 스스로 답을 구하는 여성주체를 봉쇄하고, 남성성을 복원하여 남성주체에 의한 혁명적 정권수립을 완성하고자 하는 작가의 은밀한 내적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남천은 해방직후 새롭게 부상하는 여성을 통해 8.15이후 변모된 세계의 전망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버틀러에 의하면 ‘여성’이라는 재현 대상은 그것이 묘사하거나 재현하려는 바에 완전히 동의하는 안정된 기표가 아니라 경합의 장소, 불안의 원인이 되는 문제적 용어다.<sup>114)</sup> 결국 박문경이라는 여성인물이 보여준 해방 후는, 작자의 의도와 달리, 현실과 이념이 괴리된 불안과 혼란의 세계였다. 이후 김남천이 「동방의 애인」에서 재현한 여성인물은 남성주체의 대의에 희생하는 역사바깥의 인물이었다. 이는 실재계의 불안을 드러내는 여성의 행위를 봉쇄하고 확고한 이념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가는 완벽한 남성주체를 역사의 주체 자리에 내세움으로써 8.15라는 해방의 낭만적 열정을 이상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해방 후 공적 대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재현은 염상섭의 「효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효풍」을 연재하던 1948년은 중간파인 염상섭에게 남 또는 북의 이념적 체제를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였다. 1947년 12월 좌우합작위원회의 해체선언 후, 1947년 12월 20일 일부 중간파세력은 다시 모여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식을 거행하고, 민족의 자주독립과 미소간의 친선과 조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사회도 무산계급 사회도 아닌 “조선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건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남북협상을 제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반대하는 노선을 발표한다.<sup>115)</sup> 중간파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1947년 12월은 그야말로 정권수립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114) 조현준, 앞의 책(2014), p.33

115) 「민족자주연맹 규약, 선언, 강령, 정책」, 한국안보교육협회편, 『서울시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등록철』, 1990, p.772.

중간파인 염상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6년 즈음 38선을 넘어 서울로 넘어 온 염상섭의 창작도 이 시기에 집중된다.<sup>116)</sup>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는 염상섭에게 문학적, 정치적으로 절박함이 있었던 시기다. 조남현은 1948년이 염상섭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라고 한다면, 장편소설 「효풍」은 “염상섭이 작가이자 사상가로서 1948년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던 것임을” 증명하는 작품으로, “1947-1948년 현실의 중심부를 살펴본 이데올로기 소설”이라고 강조한다.<sup>117)</sup> 한마디로 「효풍」은 해방 후 염상섭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열망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47년 12월 「효풍」의 연재예고는 비장하다.

새벽바람은매웁고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곳해방조선의현실인듯  
쉽습니다. (...중략...) 여기에 쓰는 이 생활기록이 아무리기구하고 혼  
란하고 무질서하고 참담하더라도 그것은 당장 오늘낮이되면 바람이  
자고정상(正常)한 제살이, 제자국에 들어안즐새질서를차저가는 고민  
이요 노력에 지나지 않음을잊지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sup>118)</sup>

1947년 12월, 염상섭에게 해방조선의 현실은 “혼란”, “무질서”, “참담”이라는 언어로 얼룩진 공간이었다. 염상섭은 그 혼란과 무질서한 공간에서 곧 동이 틀 것을 기대하며, 「효풍」을 통해 “새질서”를 찾고자 한다. 신국가건설의 전망을 찾기 위한 중심의 자리에는 김혜란이라는 여성인물이 존재한다.<sup>119)</sup>

116) 염상섭은 해방 후 「첫걸음」(『신문학』, 1946.11)을 발표한 이래, 1948년 「영등이에 남은 발자국」(『구국』, 1948.1), 「삼팔선」(『삼팔선』, 금룡도서, 1948.1), 「모략」(『삼팔선』, 금룡도서, 1948.1), 「이합」(『개벽』, 1948.1) 등 총 11편의 단편소설과 「효풍」(1948.1.1.-11.3) 1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한다.

117) 조남현, 「1948년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현대문학연구』 6, 1998.12, p.294, p.297.

118) 염상섭, 「작가의 말」, 『자유신문』, 1947.12.30.

119) 「효풍」의 중심인물을 박병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구의 논의가 그러한데, 그는 효풍이 “작가적 이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병직의 관점에서 남북북단의 원인 및 그것의 극복가능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형범과 김종욱이 지적하고 있듯이, 혜란은 「효풍」의 거의 모든 소재목의 중심서사로 등장하며, 대부분의 서사에 관여

「효풍」은 거칠게 말하면, “미군이 진주한 지도 이태가 되는” 1947년을 배경으로, 김혜란이 약혼녀 박병직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신문기자 박병직의 정치적 포지션은 1947-1948년 언론인이자 사상가로서의 작가의 거울이다.<sup>120)</sup> 김남천의 「1945년 8.15」와 「동방의 애인」에서도 남성주인공의 정치적 지향점은 작가와 동일하다. 확고한 사회주의 이념을 지닌 김남천의 경우 「1945년 8.15」와 「동방의 애인」에서 남성주인공을 이념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직에 가입하거나(김지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는(안영남) 인물로 묘사한다. 반면, 해방 후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염상섭의 경우 「효풍」에서 박병직을 중도노선의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기보다, 남(혜란)과 북(화순)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요컨대 박병직은 자신의 이념적 지향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아니라,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어느 쪽을 최후의 종착지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왈로 회담>(1948.3.17-1948.3.25) 부분에서 병직은 베커와의 논쟁을 통해 미군정의 정치적 실패, 우익분열을 부추긴 것을 지적한다. 나아가 병직은 “우리는 무산독재도 부인하지 마는 민족자본의 기반도 부실한 뿌르조아 독재나 뿌르주아의 아류(亞流)를 굶어모른 일당독재를 거부한다는 것이 본심인데 그게 무에 빨갱이란말요? 무에 틀리단 말요?”라고 말하며 신국가건설이 특정한 계급으로 구성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중도세력을 표방하는 병직의 논리는 민족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지 못한다. 이는 병직의 논리가 “우리”, 즉 중도세력을 “빨갱이”로 모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박병직이 보여준 것은 중도세력의 행동방향이 아니라, 중도세력이 특정계급의 이념분자로 물리는 것에 대

---

하고 있다. 따라서 「효풍」의 중심인물은 김혜란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33, 2009, p.82. ; 서형범, 「염상섭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2004, p.72;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0, 2015.

120) 조남현, 앞의 논문(1998), p.298. ; 김병구, 위의 논문, p.82.

한 일종의 방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방향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이념의 이상화를 동반한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사라졌던 병직이 느닷없이 나타나 ‘조선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해란과 결합하는 낭만적인 결말은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sup>121)</sup>

이데올로그로서의 박병직의 행위가 이념의 구체적 실천방향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북이나 남이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효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선택의 행위가 독자들로 하여금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와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배경막의 재현양상이다. 따라서 문제는 최종적으로 박병직이 해란을 선택할 때, 그에 합당한 배경막이 무엇이었는가에 있다. 「효풍」에서 해란의 서사가 주요성을 가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데올로그 박병직이 현실의 무질서와 혼란을 관망하고 회의하며 이념적으로 우나 좌냐를 고민할 때, 해란은 서울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직접 마주한다.

해란은 L여자전문 영문과를 나온 인텔리 여성으로 여학교 선생을 하다가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사에서 일하는 약혼자 박병직의 사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사상범으로 몰려 퇴직한 후 골동품을 파는 경요각의 점원으로 일한다. 해란은 자신이 “빨갱이”로 몰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양조회사 사장으로 해방의 이권을 챙기려는 정치적 야심가인 박종렬, 해방 후 하와이에서 날아와 미국인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이진석, 영어선생을 하다가 해방 후 “형사 꼬나풀과 고물상 거간꾼”이 되어버린 장만춘, 미군을 따라 사업을 하러 조선으로 다시 온 브라운 등은 자신이 가진 부와 언어, 그리고 권력 등을 매개로 삼팔선 이남에서 정치와 경제적 이득으로 한몫을 챙기려는 인물로 “빨갱이”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연히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해란은 브라운에게 “빨갱이가 되었다는 소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러자 해란은 영어로 “만록총중에 일점홍이란 말이 잊지요? 장미꽃은 붉은 것이 자랑으로 시가 됩니다!”라며, “빨갱

121) 서형범은 “병직이 보여주는 민족주의적 중도주의 정치관은 결말 부분의 성급한 끝맺음으로 인하여 「무정」에서 보이는 회극성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한계를 보인다”라고 지적한다. 서형범, 앞의 논문, p.76.



이”란 단어에 내포된 정치적 낙인을 시로 환원해버리며 이를 무화시킨다. 또한 혜란은 경요각 주인 이진석이 자신의 매개로 미국인 베커에게 접근하여 무역과 산업부분에 진출하려는 것을 알고, 이진석에게 자신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라며 저돌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진석은 “남자의 어떤 농지거리라거나 반죽 좋게 척척 받아낼 것같이 남자에게 덤벼드는 기세를 보다가도 싹 돌아서서 깔끔한 소리를 할 제”에는 혜란에게 “한 수 넘어간 것 같고 얼굴이 뜻뜻하다”라며 부끄러움을 호소한다. 이처럼 혜란은 삼팔선 이남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인물들에게 당돌한 처세술을 보이며 그들이 가진 적대적 이념 감정과 속물적 경제관념을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혜란의 모습은 미국을 상징하는 베커를 상대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오키나와전에서 통역 겸 선전공작을 한 이력이 있는 베커는 동양적 취미를 가지고 있다. 베커는 혜란의 “조선적”인 모습과 “현대적 인격”에 반한다. 베커에게 혜란은 엑조티시즘exoticism의 대상인 한편, 영어가 가능한 현대적 여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베커에 대한 혜란의 태도다. 혜란은 처음 베커를 만났을 때, “당신 나라 병정은 무서워요 더구나 찻간에서는”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짙막하게 언급된 이 말은 1947년 1월 7일 호남선에서 미군 4명이 3명의 조선여성을 윤간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sup>122)</sup> 혜란의 발화는 미군정의 횡포와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혜란의 말에 베커는 “거북스러워하는 낮빛”을 잠깐 내비치며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젠틀맨은 믿습니다. 여자를 덮어놓고 존경하거나 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인격을 아는 민주주의 국가의 신사를 나는 존경할 줄 압니다.”라고 말한다. 베커는 찻간에서의 폭력적인 미군과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을 분리시키며 자신은 후자의 미국인으로

122) 이 사건은 ‘미군의 부녀자 능욕 사건’이라고 불리며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뒤인 11일 신문지상에 공개된다. 당시 하지중장과 헬미군정장관대리는 공부부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엄중 처단할 것을 표명한다. 그러나 미군정은 조선여성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구타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임화,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과 섹슈얼리티」, 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 미디어, 2004. pp. 289-299 참고.

로서 조선, 구체적으로 조선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베커는 “부드러운 정서를 회복” 하고 “친구”로서 혜란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에 혜란은 “처음 만나는 이국 청년과의 교제에 버젓하게 응대하였을 뿐 아니라 저편이 질질 끌려오는 듯한 눈치가 무슨 승리를 얻은 듯이 유쾌” 한 감정을 내비치며, 베커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념과 사상의 잣대로 베커에게 정치적 불만을 토로하는 병직과 달리, 혜란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정의 폭력성을 들추며, 베커(미국)와의 교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물론, 혜란은 베커가 정치적으로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미국 청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혜란은 그 권력에 기대어 유학을 가서 출세를 하고픈 욕망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두 원시(原始)의 나라가 아니라 원자(原子)의 나라가 되거든 구경가조” 라고 말하며 베커의 유학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한다. “조선 돈이 미국돈과 일대일(一對一)로 교환될 때” 를 재차 강조하는 혜란은 해방된 조선의 과학적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며 점령군과 피점령지로서의 미국과 조선이 아니라 동등한 국가 관계의 성립을 욕망한다.

혜란이 미군정(미국)으로 상징되는 베커와의 동등한 관계를 욕망하며 그와의 권력적 위계 관계를 거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안 서사에서 사라졌던 병직이 등장한다. 화순을 따라서 삼팔선 이북행을 선택한 줄 알았던 병직은 최종적으로 삼팔선을 넘지 않고 혜란에게 돌아온다. 「효풍」의 주요서사가 병직과 혜란의 연애담이라고 했을 때, 병직이 혜란에게 되돌아 온 것은 예측 가능한 결말이다. 눈여겨 볼 것은, 병직이 최종적으로 혜란을 선택한 시점이다. 혜란이 속물적 경제관념을 지닌 모리배 이진석을 비판하며 그의 곁을 떠나고, 베커의 권력적 위계 관계를 정중히 거절하며 동등한 관계를 요구할 때 비로소 병직은 삼팔선 이남에 있는 혜란을 선택한다. 병직의 선택의 합당함은 혜란의 행위에서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12월 「효풍」에서 염상섭이 연재예고에서 혼란, 무질서, 참담함으로 표현한 해방 후의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은 혜란이다. 그런 점에서 혜란은 해방 후 새

로운 주체로서의 공적 대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은 미국식 민주주의 담론 속에서 새로운 주체로 호명된 여성을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세계와 마주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란은 사상과 이념을 소유한 주체적 행위능력을 지닌 개인으로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란의 거의 모든 행위의 중점에는 병직과의 결혼이라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전제된다. 이진석과 베커 등과 마주하며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당돌하게 이를 거부하는 일종의 ‘다면적인 인물round character’로서의 해란을, 염상섭은 “가정부인”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닌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로 환원시켜 버린다.<sup>123)</sup> 결국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신조선의 미래는 해란의 행위를 통해서 구해졌지만, 그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인물은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 즉 병직과 해란의 아버지 김관식이라는 점은 「효풍」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천과 염상섭은 창작을 통해 해방된 조선의 전망을 찾고자 하였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서의 여성이 존재한다. 텍스트에서 ‘그녀’들은 해방된 조선의 이념과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자로서 해방의 전망을 시험한다. 그러나 행위주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재현대상은 안정된 기표가 아닌, 끊임없이 유동하는 현실의 불안을 드러내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결국 남성작가는 여성의 행위를 희생자 또는 가정부인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로 재현하면서 남성주체에 의해 승인된 정치적 이상을 제시하는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노라의 재현에서도 나타난다. 해방 후 남성작가는 노라를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호명한다. 무엇보다 그들이 호명한 노라는 해방 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

---

123) 채트먼은 인물의 종류를 ‘평면적 인물’과 ‘다면적인 인물’로 나눈다. 평면적 인물은 하나의 특성만을 부여받아 명확한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다면적 인물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서로 갈등적이거나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열린종결open-ended을 지향한다. Seymour Benjamin Chatman,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pp.159-160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2) ‘노라’의 고발을 통한 민족성의 회복

해방 후 젠더 서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모티프는 아내의 가출로 상징되는 노라다. 한국문학에서 노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매일신보』에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 번역된 이후다.<sup>124)</sup> 1920-1930년대 「인형의 집」은 봉건적 사회와 인식에 저항하는 여성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되었다.<sup>125)</sup> 한편으로, 노라는 여성들만의 서사가 아니었다. 남성 지식인들이 노라를 “자기혁명의 대사업을 완성”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노라는 여성해방의 넘어서는 근대적 개인으로 호명되었다.<sup>126)</sup> 남성지식인들은 피지배계층이자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노라와 식민지의 피지배자인 자신들과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성작가의 노라에 대한 동일시는 ‘조선의 노라’를 부권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sup>127)</sup> 조선의 노라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반항의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예지의 여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sup>128)</sup> 염상섭의 「제야」(1922),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부권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라의 가출이 불온과 타락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129)</sup> ‘조선의 노라’는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124) 「人形の 家」가 매일신보에 처음 연재될 때는 양건식, 박계강 공역이었으나, 이후 단행본 『노라』(영창서관, 1922.6)에는 양건식의 이름만 역자로 게재된다. 이 작품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김재석,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36, 2012. 참고.

125) 이수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수용과 노라」, 『민족문학사연구』 58, 2012.

126)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여」, 『신생활』, 1922.7.

127) 가령 이승희는 춘원의 「노라야」(『노라야』, 1922)는 노라와 조선여성을 교묘히 겹쳐 놓으면서, 노라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훈육”하고 노라를 “‘규문’ 안으로 재배치하는 성정치”를 시도한다고 지적한다. 이승희, 「입센의 번역과 성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2004, p.62.

128) 城東生, 「漫評: 女性の 叡智」, 『동아일보』, 1929.1.23.

129) 이와 관련해서는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앞의 논문, pp. 114-150. 참고.

고발하고 여성해방과 자아의 각성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공적 영역으로 진입할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해방 후의 노라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사람이 아니고 안해가아닌지라 ‘어머니’가 될수없어서 그집을떠났다. 그後의 노라가 어찌되였는지는 입센도 말이없었고 따라서 筆子도 모른다. 다못 그가 女性인以上안해가되어야하고 어머니가되어야할 宿命的인人生行路를다시돌아왔섯스리라. 否定을위한 否定이아니였으며, 再肯定을 위한 새出發이 있었을것이고 새結論을 어뎈섯스리라. (...중략...) 그러나 朝鮮의 노라는 여가만에 껴칠 수 없는 새로운科題가있다. 새로운呼吸을 가지게된 새朝鮮의 새事情은 새로운要請下에서 全體에 連結된노라를 부른다. (...중략...) 실로朝鮮의 全女性은 朝鮮과 結婚하는 心境과 義氣로 일어서야겠다. 한家庭의 안해에 껴치지말고, 한家庭의 어머니에껴치지말고 朝鮮의안해, 朝鮮의어머니가 되어주기를 朝鮮은 要求한다. (...중략...) 朝鮮의女性들이여! 過去에 사로잡히지 말고 現在를살피라, 現在에執着하지말고 또 未來를 想像하라. 아장아장 가는 맵시도 조치마는 뚜벅뚜벅 걸어야할 時代다.<sup>130)</sup>

인용문에서 보듯,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노라의 가출은 현모양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여기에 해방 후 노라의 가출은 “조선”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행위가 더해진다. 노라는 해방 전에는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집을 나왔다면, 해방 후에는 조선의 민족성의 회복을 위해 가출할 것은 요구받는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노라의 가출은 여성을 위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封建社會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生活이 비릇하는 마당에 朝鮮에도 많은 노라가 ‘人形의집’을 뛰어나올 것이다. 그것이 좋건 그르건 한번은 必然的으로 일어날 現象이다. (...중략...) 女性뿐 아니라 男性도 하로바빠 ‘人形의집’을 뛰어나와서 그대들의 손으로 甞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싸우라.<sup>131)</sup>

130) 小梧生, 「노리개집: 朝鮮의 노라는 누구」, 『동아일보』, 1946.3.18.

인용문에서 ‘인형의 집’은 과거의 유산을 상징한다. 청춘남녀는 과거의 집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나오라는 김동석의 주장은 이 시기 노라가 상징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후 노라는 여성 해방을 넘어서 신조선 건설의 민족주체로서 조선의 해방을 상징하는 기수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노라의 가출을 소재로 한 작품은 거의 대부분 남성작가에 의해 창작된다.<sup>132)</sup> 그 중 정비석과 정인택의 작품은 노라로 상징되는 아내의 가출을 통해 남성의 부정행위가 고발되고 있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sup>133)</sup> 정비석과 정인택은 1930년대 등단한 작가군으로 주로 일제말기에 작품 활동을 한 공통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sup>134)</sup> 1930년대 작품 활동한 이들은 1910-1920년대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일제말기 전향을 작가와 달리 전향의 사상적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해방 후 문인의 자기비판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그러나 해방 후 그들은 일제협력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에 협력한 그들은 협력이력을 반성 또는 은폐함으로써 신조선의 건설의 단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반성과 은폐의 길항 사이에 노라의 가출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항의 문제의식이다. 우선, 정인택의 작품부터 살펴보자.

131) 김동석, 「新戀愛論」, 『신천지』, 1946.5, pp.36-38.

132) 1945-1953년까지 노라를 모티프로 다룬 소설로는 최의순의 「노랑이집」(『신천지』, 1946.6.), 정인택의 「황조가」(『백민』, 1947.3.), 정비석의 「안해의 항의문」(『신천지』, 1948.6.), 임서하의 「搖籃」(『민성』, 1948.12.), 김광주, 「연애: 어딘 ‘풍류과부’의 수기」(『백민』, 1949.5.) 등이 있다. 이중 최의순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작가다.

133) 해방기 노라에 관한 연구로는 전지니, 「8.15 해방과 ‘노라’ 이야기: 최의순의 「노랑이집」과 정비석의 「안해의 항의문」을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2012.6)가 있다. 전지니는 최의순과 정비석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방기의 노라는 식민지 시기 입센이 극화한 인간해방의 의미보다는 여성해방과 조선해방이 병치되면서 현모양처로서 국민화된 노라상이 형상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4) 정인택과 정비석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35년 전후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문단에서는 중견과 신인간의 세대논의가 이루어진다.

정인택의 해방 후 첫 활동은 1947년이 지나서야 확인가능하다. 그가 다른 문인보다 늦게 활동한 데에는 일제협력이력이 가로놓인 것으로 보인다.<sup>135)</sup> 해방 후 두 해가 지나서 발표한 그의 첫 소설은 「황조가」(『백민』, 1947.3)다.<sup>136)</sup> 해방 후 두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8.15의 열정과 내적고민의 시간을 겪고 발표한 「황조가」에서 작가 정인택의 성적 정체성과 다른 여성을 주요인물로 내세우는 ‘젠더 역전Gender Reversal’ 서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sup>137)</sup> 식민지 시기 정인택의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남성 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촉루觸虬」(『문장』, 1936.6), 「준동蠢

135) 정인택은 1930년대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상의 친구로서 주목받았으나, 문학적으로는 소설 몇 편이 문단에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런 그가 문단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일제말기다. 이 시기 그는 1944년 3월 『淸涼里界限』로 제3회 국어문예총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영아는 정인택의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글쓰기는 이상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국민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의 장에서만 큼은 자신의 재능의 한계에 대한 열등감 없이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가 친일문학, 혹은 국민문학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이영아, 「정인택의 삶과 문학 재조명: 이상 콤플렉스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5, 2007, p.173.

136) 권영민 편 의 『한국현대문학작품연표』(서울대 출판부, 1998, p.494)에서는 해방 후 정인택의 첫 작품을 1946년 5월 『신천지』에 발표한 「병아리」로 기록하고 있으나, 「병아리」는 『신천지』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정인택의 작품은 「황조가」다. 「병아리」의 존재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황조가」가 해방 후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37) 라멧은 젠더역전을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간에 사회적 행위, 임무, 태도, 이데올로기 등을 조금이라도 달리해서 다른 젠더에 접근한 경우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그는 젠더역전이라는 주제는 성별의 고정된 역할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문화가 엄격한 젠더체제를 강화시키려고 애쓰자 이에 대한 일탈의 방법으로서 종교의식,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젠더역전이 등장해 왔다고 말한다. 그 예로 라멧은 종교의식에서 옷바뀔입기를 통한 젠더역전은 신성성에 다가가는 과정이었으며, 여성들이 연극무대에서 남성의 역할을 맡게 된 17세기에는 젠더역전의 무대가 곧 섹스/젠더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젠더역전은 생물학적 본질 또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자신이 형성해 온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Sabrina Petra Ramet, 「젠더역전과 젠더문화」,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젠더역전과 젠더문화 Gender Reversals & Gender Cultures』, Sabrina Petra Ramet 편, 당대, 2001, pp.5-21.

動」(『문장』, 1939.4), 「미로迷路」(『문장』, 1939.7) 등은 1인칭 남성 지식인을 주요인물로 내세우고 있는 ‘사소설’ 계열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남성의 심리고백은 치밀한 것에 비하여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미에라는 여성의 심리는 묘사되지 않는다. 유미에라는 여성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식인 남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표하는 순애보의 여성이다.<sup>138)</sup> 이처럼 1930년대 남성 지식인을 1인칭 시점으로 내세운 소설에서 여성인물은 현실적 실체로서의 내적 갈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남자 주인공의 자기애적 이상으로서만 등장한다. 그런데 그가 해방 후 발표한 「황조가」의 경우 내적 갈등을 겪는 현실적 실체로서의 인물은 여성이다. 「황조가」에서 내적 갈등과 심리고백은 여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자기애적 이상으로서 등장한다. 「황조가」는 정인택의 식민지 시기의 서사와는 정반대의 젠더 재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 고구려의 「황조가」에서 애정의 삼각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노래하는 시적화자는 남성이다.<sup>139)</sup> 정인택은 그 외로움을 노래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치환한다. 그 여성은 카페여급 혜옥으로 그녀는 해방 후에도 일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남편을 보고 혐오와 증오를 느끼며 집을 뛰쳐나온다.<sup>140)</sup> 혜옥이 집을 뛰쳐나오는 것은 남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138) “나: <조락>, <촉루>, <미로>, <준동> 기타의 남주인공. 이십팔세. 모전문중 서퇴학무직. 약간의 이상주의자이나 약간의 회의주의자, 허무주의자이기도 하다. 서울에 늙은 홀어머니를 남겨놓고 동경에서라 다니며 학교에도 다니고 소설도 써보고 사회운동도 하고 그런다. 요새는 肺患으로 누어 있는데 안해 ‘유미에’가 벌어다 주는 것을 넘죽넘죽 받아먹고만 있다.” 정인택, 「나와 그들: 작중인물지」, 『조광』, 1940.11, p.205.

139) 고구려의 「황조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작가, 대상, 시기, 창작 당시의 언어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유리왕을 작가로 보는 견해(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p.82)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증보판), 신구문화사, 1983, pp.53-56)가 있다. 그러나 시조의 화자가 남성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140) 정인택의 「황조가」에 대한 연구로는 박경수의 『정인택, 그 생존의 방정식』 (제이앤씨, 2001.)와 서승희의 「국민문학 작가의 해방 이후 글쓰기 전략 연구:이무영, 이석훈, 정인택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 43, 2013, pp.267-273.)의 연구가 있다.



혜옥의 옛애인 독립투사 김학성의 출옥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혜옥과 학성의 관계는 작가의 친일이력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 관계다. 「황조가」의 첫 장면은 학성의 출옥을 예상하는 혜옥의 심적변화로 시작한다.

정신이 아찔한만치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회호리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 모양으로, 惠玉은 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

‘만세, 만세, 만세’

가치 악을 쓰면서, 남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눈물을 짹짹 흘렸다.

그러다가 문든, 혜옥은 고개를 들어, ‘트럭’ 위에서 이에 회답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바라보고, 금방 숨이 막 매키도록 놀랐다.

(...중략...)

출옥한 동지들이었다.

(...중략...)

두근거리는 가슴을 惠玉은 한손으로 얼싸안으며, 한걸음, 두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음은 쏜 살 같이 ‘트럭’ 곁으로 다름질쳤으나 공연히 두렵고 불안하여 발이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말았던 것이다.<sup>141)</sup>

인용문에서 보듯, 혜옥의 8.15의 감격은 정치범의 출옥을 보고 “두렵고 불안” 한 마음으로 바뀐다. 해방직후 정치범의 출옥은 마지막까지 일본제국주의에 굴하지 않고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를 보고 혜옥이 두려워 한다는 것은 그녀가 민족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상 「황조가」에서 혜옥이 시종일관 독립투사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일제협력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작가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의 근원이다. 과거 독립투사 학성과의 일화를 서술하는 혜옥의 내적고백은 그 죄책감의 근원이 순애보적 사랑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보여준다.

141) 정인택, 「황조가」, 『백민』, 1947.3, p.84.

과거 카페 여급이었던 혜옥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독립투사 학성과 동거하는 사이로 혜옥은 늘 그를 기다리는 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성은 혜옥에게 자신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밝힌다. 그때 혜옥의 심리는 “무엇보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압도” 된다. 학성이 독립투사라는 것을 안 순간 혜옥에게 학성은 애정의 대상을 넘어서 존경과 동경의 대상,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때 학성에 대한 혜옥의 애정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전환된다. 학성의 독립자금을 위해 오천원을 천씨에게 빌려오고 자신은 천씨의 첩으로 들어간다. 오천원의 출처를 모르는 학성에게 혜옥은 “배반의 계집”이 된다. 결과적으로 혜옥의 배반행위는 학성에 대한 순애와 희생적 사랑에 발로한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사랑을 순애와 희생의 범주에서 논하는 것은 식민지시기 정인택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서사다. 식민지 시기 정인택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순애와 희생적 사랑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이 현실을 지탱하는 자기에적 이상으로 등장한다. 반면 해방 후 혜옥의 순애와 희생적 사랑은 정인택의 친일이력을 상기시키고, 일제협력에 대한 자기변명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정인택이 해방 후 처음으로 발표한 「황조가」에서 혜옥의 순애와 희생적 사랑에 기대어서 일제협력행위를 해명한다는 것은 작가 자신의 일제협력행위에 대한 일종의 자기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학성은 혜옥의 이상향으로서 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대타자the Other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혜옥에게 학성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연인이다. 즉 학성과의 거리감은 애초에 혜옥이 독립투사가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인택이 일제협력을 고백함에 있어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가냘프고 나약한 여성성에서 발로된 것으로,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일종의 친일에 대한 자기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동적 행위를 능동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투사의 길로 전환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성에 대한 혜옥의 그리움이 모리배 천씨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혜옥은 학성과 함께 할 “때”가 왔는데 “뿔뿔하게 학성이와 더부러 그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심경으로 인한 고민과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혜옥은 학성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혜옥의 시선은 모리배 천씨의 해방 후 행적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무리 돈만 아는 사람이기로서니, 지금, 조국의 해방과 자주독립의 날을 맞이하여 천천만 겨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판에, 일본놈들이 감춰두었던 물건을 사다가 장사하려는 궁리를 하고 있다니.....이 이가 과연 조선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새로 건국되는 새나라 국민이 될수 있을까?

(...중략...)

그 이가 출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것을 구실로, 남편을 버리려는것이나 아닌가?

惠玉은 그렇게도 생각하여 본다.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할수도 없었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아닌 것을 혜옥은 하늘에 맹서하여 단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학성이 자신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惠玉은 결코 그것에 응하지 아니할 결심도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여성두 해방 됐대지? 그러면 동무가 一천五백만이나 되는데... 외롭긴 뭐 외로워!’

그렇게 속으로 웨치고, 천변스가에 다다라서야 겨우 숨을 돌린 후, 걸음을 천천히 할 수 있었다.<sup>142)</sup>

혜옥에게 모리배 천씨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배반하는 행위로 묘사된다. 혜옥은 해방의 테제를 수행하지 않고 일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천씨를 고발함으로써 “배반의 계집애”라는 표식에서 벗어난다. 주요한 것은 혜옥은 해방의 테제를 이행하지 않는 남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과거와 같이 독립투사 학성이 찾아오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리를 나선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거리를 나서는

---

142) 「황조가」, p.93.

행위를 통해 혜옥은 고구려 「황조가」의 외로운 정조에서 벗어나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보여준 나라로서 새 시대의 출발점에 선다.

정인택의 해방 후 첫 작품 「황조가」에서 보여준 젠더적 현실인식은 과거 친일이력에 대한 자기변명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해방의 대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의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해방된 조선의 민족주체로서 동참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발로다. 그러나 민족 주체로 동참하고자 하는 정인택의 욕망은 1948년 10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듬해 1월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포령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진다. ‘반민혐의자反民嫌疑者’로 이름을 올린 정인택은 1949년 8월까지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sup>143)</sup> 이후 그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정지용, 김기림과 함께 1949년 12월에 개최된 종합예술제에 참가하여 북조선 예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낭독 한다.<sup>144)</sup> 그리고 「청포도」(『자유신문』, 1950.5.5.-1950.6.26.)를 연재하던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인택의 경우 여성 인물을 통해 친일에 대한 자기변명과 민족성을 회복하고 있다면, 정비석의 경우 여성인물을 통해 민족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적 측면에서 젠더위계를 공고히 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비석은 193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성황당」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주목 받기 시작한다.<sup>145)</sup> 일제말기 총력전체제 하에서 주로 활동한 정비석은 조선문인보국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청춘의 윤리』(매일신보사, 1944) 등에서는 동양의 부덕婦德, 직역봉공을 내면화하면서 체제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sup>146)</sup>

143) 「所在를 모르는 反民嫌疑者 自首않으면 期日지나도 逮捕」, 『동아일보』, 1949.8.20.

144) 「自由精神을 高調 綜合藝術祭盛況裡閉幕」, 『동아일보』, 1949.12.6.

145) 정비석이 처음으로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은 1932년 일본유학시절 『文学新聞』에 공모한 「朝鮮の子供から日本の子供たち」다. 이후 조선문단에 진출한 것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줄곡제(卒哭祭)」를 통해서다. 당시 김동리의 단편소설 「산화」와 공동 당선되었는데 주목은 받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조선일보에 응모하여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다.

146) 정비석의 일제말기 체제협력 작품군에 대해서는 정종현, 「미국 헤게모니 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1940-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

이 시기 정비석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의제에 민감했지만, 자기의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147)</sup> 해방 후 일제협력에 대한 정비석의 내적고민과 갈등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시일은日」(『생활문화』, 1946.1)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과거 친일을 사죄하는 인물은 정비석을 연상시키는 1911년생의 작중 화자 ‘나’가 아니라, 1901년생의 손희득이다. 즉 일제협력은 자기세대의 문제가 아닌 한 세대 위의 몫으로 전가하면서 작가 자신의 친일문제를 전면화하지 않는다. 이후 정비석은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거나 민족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대표적으로 전작장편 『고원』(백민문화사, 1946)의 경우 일제강점기 만주와 조선을 배경으로 남녀의 애정관계 다룬 작품이다. 『고원』에서 만주는 ‘나’가 친일협력의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공간으로 제시된다. 작품의 말미에서 조선은 ‘나’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민족지로 표상됨으로써 민족주체로서 회귀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드러난다. 「귀향」(『경향신문』, 1946.10)에서도 정비석은 일제의 핍박으로 만주로 떠난 가족이 해방 후 조선으로 귀환하는 서사를 통해 해방된 민족주체의 문제를 서사화한다. 결국 정비석은 일제협력을 세대문제로 환원하고 해방 후 민족국민국가의 새로운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민족성의 회복에 초점을 둠으로써 신국가건설에 참여하고자 한다. 노라가 등장하는 「안해의 항의문」(『신천지』, 1948.6.) 역시 민족성의 회복 문제를 다룬다.

「안해의 항의문」은 남녀의 애정을 다룬 작품이다. 남녀의 애정을 다룬 정비석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남성이 순수한 여성을 선택하거나 또는 타락한 여성을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상적인 남성주체에 의한 근대화를 긍정하고 여성은 가부장제의 윤리의식을 수행할 인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젠더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sup>148)</sup> 그런데 「안해의 항의문」에서 도덕적 윤

로」, 『한국문학연구』 35, 2008. ; 정하늬,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 박사학위논문, 2014, pp.189-217. 참고.

147) 정하늬, 위의 논문, p.217.

148) 정종현, 앞의 논문(2008), 참고.

리적인 인물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윤리적인 여성이 비윤리적인 남성의 행위를 고발하고 집을 나오는 것이 이 작품의 중심 서사다. 아내는 남편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남편에게 편지를 쓴다. “육체고 인격이고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유린당한 한 여자가 온 여성의 이름으로 남성에게 부치는 항의문”이라는 문구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 작품은 남편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러한 부정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피력하는 서간문이다.

서간체 소설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다. 서간체 소설에서의 발신인의 고백은 주로 화자의 진실을 청자로부터 얻기 위한 행위다.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자기 정화Catharsis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성립하고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다.<sup>149)</sup> 서간체 형식을 빌려 내면 고백을 통해 진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위는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특징이다.<sup>150)</sup> 「안해의 항의문」의 서간체도 내면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로부터의 진실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서간체 소설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러나 「안해의 항의문」에서의 서간체는 ‘내면’의 고백보다는 수신자를 향한 ‘비판’, 즉 고발에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그 양상에 차이가 있다. 고발에서 주요한 것은 발신자의 정당성 획득뿐만 아니라, 고발 대상자의 반응이다. 요컨대 「안해의 항의문」의 서간체 형식은 내면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자기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 고발 대상자의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149) 우정권, 「1920년대 한국 소설의 고백적 서술 방법」, 서울대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2002, p.18.

150) 가령 김윤식은 『김동인 연구』에서 창조파 소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편지’라고 지적하며 「어린벚에게」, 「마음이 열린 자여」, 「제야」 등을 서술적 장치를 ‘고백체’라고 언급했으며, 이재선은 “1920년대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서술유형에서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서간체 소설”이라고 하였다. 이는 근대소설의 특징인 내면의 고백이 서간체 형식을 빌려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수영 역시 한국의 서간체 소설은 내면의 고백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며 1920년대 서간체 소설에서의 내면의 고백은 1930년대 심리소설의 한 형식으로 발전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1961, pp.132-137. ; 이재선, 『한국 단편 소설 연구』, 일조각, 1975, p.152. ; 윤수영, 「한국 근대 서간체 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이때 회개 대상자는 수신자 남편이다.

수신자 남편은 아내의 내적 정서와 감정 하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첫날 밤 아내를 두고 요릿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내 은옥을 “집에서 기르는 매음녀”로 취급하는 등 남편은 돈과 성적 쾌락에만 탐닉하는 부도덕함의 상징으로 서술된다. 반면 아내 은옥은 남편의 그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소생 은혜를 잘 키우는 인종적이며 희생적인 여성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은옥의 도덕적인 우위는 남편의 부도덕함을 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의 정비석의 작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은 주로 남성이며 그 남성에게 애정의 대상인 여성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요컨대 정비석의 작품에서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으면서 내성적이고 정숙한 여성을 선택할지 아니면 육체적이고 도발적인 여성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인물은 예외 없이 남성이다. 앞서 언급한 『고원』(1946)도 그러하거나 『청춘의 윤리』(1944)도 그렇다. 그렇다면 왜 「안해의 항의문」에서는 여성을 도덕적 우위에 놓았을까. 그 답변은 ‘고발’의 행위에 있다. 「안해의 항의문」에서 아내 은옥의 고발은 단순히 가정적이지 않은 남편의 작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초점은 해방직후의 남편의 행적에 있다.

八一五를 마지했슬새 저는 그거대한 역사적인 변혁으로해서 우리가 정년 무슨 새로운 서광이 비치지 안홀까하는 남모르는 기대를 품꼬 잇섯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노도가티 이쌍에 퍼져나가는 소리를 들은 당신은 그길로 불이나케 나가신채 십여일이 되도록 집에도라오시지 안흔섯습니다. 저는 날마다 당신이 도라오기를 기대리면서 이제야말로 참다운 당신을 알엇는가보다고 혼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준비위원회니 무슨동맹이니 하는것들이 연방 생겨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건국사업에 총동원 된다는 뉴-스를 라디오로들엇을새 당신도 그어느단체의한사람으로 지금 신국가건설에 맹활약을하고계시리라고 미뎃기새문이엇습니다. (...중략...) 오랫동안의 철사에서 해방된 청천 백일의 오늘에, 무슨 짓을 못해서 하필 모리배입니까? 그 백만원은 누구의 기름과 누구의 피를 빨어낸것입니까? (...중략...) 나라에 경사

잇스매 설혹 좀끓느다기로 참아 모리배 노릇이야 어찌케 하신단 말  
슴입니까? 생의 참다운 가치는 호화로운 살림에 잇다고는 저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sup>151)</sup>

은옥이 남편을 고발하고 가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지 않는 남편의 반민족적 행위 때문이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의 가출이 여성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위한 것이라면, 「안해의 항의문」에서의 은옥의 가출은 개인의 독립 위한 것이라기보다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은옥의 고발 행위는 민족을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은옥은 고발 대상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고발자를 여성을 설정한 것에는 수신자 남성의 회개와도 연관이 있다. 앞서 정비석의 작품은 젠더위계의 재생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정비석의 작품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지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있는 것은 남성이다. 그러나 『고원』과 「귀향」에서 남성 주인공이 민족지로서의 조선으로 귀향하여 민족주체의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검열 장치가 필요하였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여성주인공이다. 정비석이 「안해의 항의문」에서 여성의 내적감정과 토로를 통해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지 않는 남성을 고발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민족주체인 남성의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환언하자면, 「안해의 항의문」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여성성을 통해 해방의 테제를 이행하지 않는 남성을 고발함으로써 남성의 반성을 요구하고 은연중에 남성의 명예와 지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내적욕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남성작가가 작품에서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지 않는 남성의 과오를 비판하는 행위는 민족주체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남성작가가 민족주체로서의 남성의 젠더적 정체성이 아닌,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서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통한 객관성과 보편성의 확보를 위함이다. 정인택과 정비석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된

151) 정비석, 「안해의 抗議文」, 『신천지』, 1948.6, p.203.



여성을 통해 비판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작가는 타자로서의 젠더적 정체성을 통해 조국건설의 욕망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남성인물의 조국 건설의 욕망은 여성의 행위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공적 대의에 참여하면서 행위하는 주체로 변모한 여성인물은 해방 후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이는 혁명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에 여성인물은 남성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역사바깥의 인물, 가정부인, 또는 남성주체의 재건을 욕망하는 인물 등으로 재현됨으로써 그 행위가 제약된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정치적 욕망의 대리인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여성작가의 경우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통해 신국가건설에 동참하고 있을까.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2. 윤리적 범주로서의 남성 재현과 탈脫여성성

### (1) 불안한 남성과 국가건설의 균열

해방 후 여성작가가 문단에 소설을 발표한 시기는 1946년 중후반이다. 가장 먼저 문단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이선희와 지하련이다. 이선희와 지하련은 각각 1946년 6월, 7월에 소설을 발표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작품 모두 남성인물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이다. 여성인물은 아예 부재하거나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요인물의 아내 등의 미미한 역할을 하여, 작품의 갈등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근대문학에서 여성작가의 글쓰기는 자기서사에서 출발한다.<sup>152)</sup> 여성작가는 은밀한 사생활을 고백함으로써 자기自己的 존재를 인식해 간 것이다. 그들은 사생활을 고백함으로써 자신, 즉 여성을 둘러싼 억압적 현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소설의 주인공은 예외 없이 여성이다. 이선희와 지하련도 그러하다. 두 작가의 해방 전 작품에는 예외 없이 여성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서 해방 후 정치적 열망을 재현하는 인물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성작가의 작품과 대조적이다. 8.15를 ‘이중적 해방’이라고 언급한 시대적 담론 속에서 왜 여성작가는 해방 후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에서, 그 이전 시기와 달리 작가 자신의 젠더적 정체성과 동일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이 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과연 이선희와 지하련의 젠더적 현실인식이 해방 후의 내셔널리즘과 어떠한 정치적 영향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이선희부터 논구하고자 한다.

1911년 함흥에서 태어난 이선희는 1933년 잡지 『개벽』과 『신여성』의 기자로 활동하다가 1934년 12월 『중앙』에 「가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다. 이선희는 1935년 동향 출신의 극작가 박영호와 재혼하는

---

152) 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 2016)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성을 획득한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 자신에 관한 글쓰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데, 이러한 결혼 생활은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 이선희의 작품은 주로 부부갈등(「계산서」, 「처의설계」), 처첩 갈등(「여인 명령」, 「돌아가는 길」)의 변주로 나타난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예외 없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겪는 모순과 갈등을 드러낸다. 환언하자면, 일제강점기 이선희 작품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현실을 재현하고 그 속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조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선희가 일제강점기에 예외 없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원인은 사적 경험 내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사회적 구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여성의 정치사회적 진출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여성작가의 정치적 상상력은 사적 경험 내에서 통제되고 재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53)</sup> 이러한 양상은 해방 후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후 여성도 민족주체로서 또한 신국가건설의 참여자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여성의 상상력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선희가 해방 후 발표한 유일한 작품인 「창」에서는 여성의 사적 경험이 부재한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국가의 법적질서에 참여하려는 남성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재현한 남성 주인공은 남성 중심적 의미와 규범에서 이탈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해방 후 이선희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sup>154)</sup> 이선희의 월북 시기는 1946년 10월 전인 듯하다. 이 시기에 이선희가 서울에 없다는 소식이 잡지와 신문을 통해 재차 전달된다.<sup>155)</sup> 1946년 월북 이후 이선희의

153) 일제 강점기 여성의 자아 각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신여성, 나혜석과 김일엽, 김명순 등의 최후는 정치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배제였다. 제국과 남성으로부터 이중적인 억압에 놓인 식민지 여성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상경에 의하면 제국일본 여성의 경우 국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성참정권과 모성보호를 요구하며 여성의 공적 영역 진입을 시도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여성은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으며 그녀들의 현모양처는 탈정치화된 가족주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이상경, 「일제말기의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p.203.

154) 해방 후 한 기사를 보면 이선희는 이기영, 박세영, 송영과 함께 잡지 『우리집』의 편집위원을 맡았다고 하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婦人啓蒙誌發刊」, 『자유신문』, 1946.3.4.).

155) “李善熙 氏(女流 小說家): 氏는 夫君 朴永鎬 氏를 따라 平壤에 내려가서

행적은 C.S.P라는 필명의 기자가 쓴 글을 통해 짐작가능하다. C.S.P는 최근 20일 정도의 간격을 둔 소식이라며, 이선희가 극작가인 남편 박영호와 함께 평양에 있다가 원산으로 이동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함남위원회에 소속으로 북문예총 출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다.<sup>156)</sup> 원산은 남편 박영호의 고향이자 이선희가 유소년기를 보낸 곳이며, 그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sup>157)</sup> 그런데 월북 후 이선희의 행적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1947년 6월 북조선문학동맹 함경남도위원회에서 발간한 『六月에의 獻詞: 노동법령 기념문집』에서도 이선희의 이름은 없다. 최정희의 회고로 미루어보아 이는 지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정희의 회고가 정확하다면 이선희는 월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괴혈병으로 세상을 떠난다.<sup>158)</sup> 1946년에 발표한 「창」이 그의 유일한 해방 후 작품이다.<sup>159)</sup>

「窓」(『서울신문』, 1946.6.27-7.20 15회)은 1946년 『서울신문』에서 기획한 ‘신록단편 릴레이’의 작품들 중의 한 편이다. 8.15 해방의 단편적 현상을 포착하는 르포르타주 문학을 넘어서 해방의 의미를 사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문학을 선보이겠다는 기획 의도는 이태준,

---

活躍中”(편집부, 「문화남북」, 『민성』, 1946.10); “李善熙氏(小說家) 夫君과 함께 以北으로 가셨다는 所聞이 있으나 그 眞僞는 몰라도 서울에는 안계신 듯”(「뒤의 女流文人」, 『경향신문』, 1946.10.24.).

156) 「북조선의 문화인들: 以南서 간이들의 近況」, 『경향신문』, 1947.1.4.

157) 이선희는 1911년 12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지만 성장기의 대부분을 원산에서 보냈다. 이선희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이후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다. 이선희의 아버지는 대한의원(醫專전신)을 수료한 근대지식인으로, 이선희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지식인의 가정에서 근대적 사고를 접하며 자랐다. 이후 이선희는 1928년 元山樓氏高普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에서 문과를 수료했다. 이선희의 생애에 관한 연구는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 서정자, 「이선희의 소설 연구」, 『원우논총』 3, 1985.8. ; 김명희, 「이선희 연구」(『한민족어문학』 24, 1993) 참고.

158) 서정자, 위의 논문, p.59.

159) 이선희의 작품연구는 주로 해방 전에 집중되어 있다. 해방 후 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류진희, 「월북작가 이선희와 지하련의 해방이후」(『상허학보』 38, 2003)가 있다. 류진희는 이선희의 「창」이 좌도 우도 아닌 ‘좌우간左右間’의 사상을 서사화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동리, 허준 등 좌우익을 망라한 작가의 섭외로 이어진다.<sup>160)</sup> 그러나 실제로 연재된 것은 안희남의 「봄」(1946.5.15.-16. 2회), 김영수의 「밤」(1946.5.17.-6.4. 18회), 김동리의 「윤희설」(1946.6.6.-6.26. 16회), 이선희의 「창」(1946.6.27.-7.20. 15회) 등 4편이었다. 이원조는 4편 중 김동리와 이선희의 작품을 평하고 있는데 그 주된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金東里와 李善熙씨는 그야말로 八・一五以後 三八以北 以南의 現實의인面에서 取材했다는데서 前兩氏와 對照적인 立場에서나 金氏와 李氏의 作品이 하나는 三八以南을 取材로하고 하나는 以北을 했다는데서 또 다시 對照의立場에 서는것이아니라 李氏와 金氏의 作品은 作品의 本質로서 對照의立場에섰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이다. (...중략...) 李善熙씨의 「窓」은 三八以北의 土地改革을 中心으로한 現實的問題를 (약간의 感傷도잇스나) 가장忠實하고 眞摯하게 追窮한作品이다. 紙面이限定되어더못쓰나 이作品은 氏의 全作品 家例에서도 白眉에屬할뿐아니라 八・一五以後 우리가 가질 作品중에서 가장 우수한 作品中の 하나인것만은 斷言할수잇는 것이다. 만약 金東里씨 作品이 虛構의 標本이라면 이作品은 眞實標本이라고 할수 잇을 것이다.<sup>161)</sup>

이원조는 김동리의 「윤희설」과 이선희의 「창」이 8.15라는 당대의 시국적인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 중에서도 이남의 상황을 다룬 「윤희설」은 “허구의 표본”으로, 이북의 상황을 다룬 이선희의

160) “전무후무한 八・一五의 근사심과 감격을격고 이쌍의 작가들은모다 침묵을 칠했고잇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그날의 일기(日記)나 「루포르타쥬」문학으로서의 감격의 편린이기보다는 우리二천만 겨레의갈길을 쭉뚝이 비칠수 잇는전체적인각도에서 료리하고 비판할수잇는 썰물기다렷습이였고 쏘위대한 감격을 더욱 위대하게하기위하여 리성(理性)의 밋바지를 굿건하게 마련하엿습이였다 이제해방후十여개월동안만흔소재(素材)중가장 생생한 소재를가리여 주야로 심사묵고하야 상을가다듬고 붓을들어서는 짝고 다듬기를 여러번 하야 그야말로 주옥갓흔 단편을 이루운것이이 「신록단편리레」에참가한 제작품들이다.” 「新綠短篇리레」, 『서울신문』, 1946.5.10.

161) 이원조, 「虛構와 眞實: 서울신문단편리레—를읽고」, 『서울신문』, 1946.9.1.

「창」은 “진실표본”이라고 언급하며 「창」을 이선희의 작품뿐만 아니라 당대 소설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이라고 고평한다. 「창」에 대한 이원조의 평가를 정리하면, (1) 8.15의 시국적 의의 (2) 김동리의 「윤희설」과 대척되는 작품의 진실성 (3) 감상적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1)은 『서울신문』에서 애당초 「新綠短篇리레」를 기획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의도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창」은 8.15가 갖는 상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북의 토지개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평가다. (2)는 이원조가 비판한 「윤희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원조는 「윤희설」에서 묘사된 서울 운동장에서의 국민대회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이원조가 「윤희설」을 허구로 본 것은, 김윤식의 말대로, 당대 정치적 현상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sup>162)</sup> 그렇다면 역으로 이원조가 고평한 「창」의 진실성이란 객관적 사실성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3)이다. 이원조는 「창」이 토지개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실적 표현을 고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감상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김동리 역시 「창」을 “준리얼리즘” 소설로 분류한다.<sup>163)</sup> 물론 김동리의 평가는 “투쟁적 의의로도 소설자체를 그 저조한 수준에서 살려내지는 못하였다”라고 비판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조의 평가와는 그 기저가 다르다.<sup>164)</sup> 다만 김동리가 말한 “준리얼리즘”은 이원조의 의견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 김동리는 자신이 말한 “준리얼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바로 이원조가 말한 감상적인 요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창」을 8.15 이후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은 이원조마저 (3)의 감상적 요소는 작품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여긴다. 「창」의 감상적 요소는 김사백의 죽음의 서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사실 「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사백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지점이다. 이원

162) 김윤식, 앞의 책(2006), p.200.

163) 김동리, 「習作水準의 混迷」, 『동아일보』, 1947.1.4.

164) 김동리, 「문단1년의 개관」(『해동공론』, 1947.4.), 『김동리 문학전집』, 민음사, 1997, p.136.

조는 「창」을 고평하면서도 감상적 요소를 저평가했지만, 사실 「창」에서 (1)의 시국적 의의와 (2)의 진실성(객관적 사실성)은 바로 (3)의 감상적 요소를 통해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과 (2)의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3)의 요소다. 그렇다면 (1)의 시국적 의의와 (2)의 진실성이 어떻게 (3)의 지점과 연결되고 있으며, 「창」의 남성주인공이 가지는 젠더적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구해보자.

「창」의 주인공은 김사백이다. 사립학교 교원 김사백은 설비도 불충분한 명성학원에서 일본제국의 천대와 굴욕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세 번이나 감옥에 갔다 온 이력이 있다. 일제에 저항한 이력은 그가 투쟁하여 얻고자 한 이상적인 해방과 그가 실제로 맞이한 현실적인 해방의 불일치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김사백의 내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원조가 언급한 (1) 시국적 의의와 (2) 객관적 사실성의 내적 갈등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창」의 전반부는 해방이라는 시국적 의의에 주목한다. 일제강점기 감옥에 다녀 온 김사백에게 해방은 아래와 같이 다가온다.

김교사는 위선각교실노들아다니며 문들을 활짝 열어노았다. 좁은교실에 새가끼고 모서리가 찢어진 소나무책상들은 눈들을 깜박이는 것처럼 오늘따라 귀엽게 생각된다. 얼마후 이학원엔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모혀왔다. 김 교사는 엄숙하게 정열한 아희들압해서 일장연설을 했다. 그동안 삼십육 년이란 오랜동안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학대했든것과 이번 우리가 여러나라의힘으로 독립한 것과 또 압호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해서 우리조선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려야할것을 혹은 주먹을 쥐고 울면서 말했다. 아이놈들은 저이 선생이 운다고 꺾꺾 찢르며 우섯다.<sup>165)</sup>

김사백은 학생들에게 독립을 위한 투쟁과 향후 민족국가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름다운 나라”가 김사백이 꿈꿨던 해방의 순간

---

165) 이선희, 「窓③」, 『서울신문』, 1946.7.2.

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신생 조선의 밝은 미래를 연설한 김사백의 환희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김 교사는 그때부터 이 부락에서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는 명칭을 어둡고 그자신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와 자본주의경제조직을 씹씩이미워하고 원망했다. 십년전에 그러하든 김교사가 십년이 지난 오늘 조선이 씹가치 해방되고 다시 그가 것처럼 갈망하든 세계가 실현되나 그는 도모지즐겁지 안었다. 무섭기만 했다.<sup>166)</sup>

인용문에서 보듯, 사회주의는 김교사도 갈망하던 세계였다. 그러나 소련 주둔군 장관의 인사말과 격려의 말이 거리마다 불고 인민위원회는 공산주의를 언명하며 토지개혁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김사백은 “공사주의가 싫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다. 일제에 항거한 김사백에게 해방은 분명 민족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4년간 사립학교 교사를 하며 틈틈이 재산을 모아 소지주가 된 김사백에게 해방 후 사회주의는 “고추장덩이처럼 기름진 일등답”을 “일흘것이 무서”운 불안한 세계로 다가온다. 이제 김사백에게 해방은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특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위협이 된다.

이 같은 김사백의 변화는 국가설립을 위한 공적질서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사적정서의 대립을 예고한다. 신조선 건설의 대의를 지닌 해방 후에서 공적질서는 절대적인 공공선이다. 반면 김사백의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은 공적질서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발화되어서는 안 되는 ‘봉쇄된 목소리’다.<sup>167)</sup> 김사백의 두려움은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처분해야 할 잔여물이나 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즉, 김사백의 내적

166) 「窓⑤」, 『서울신문』, 1946.7.4.

167) ‘봉쇄된 목소리’는 가야트리 스피박이 국가에 의해 봉쇄되는 동시에 박탈당한 하위주체의 목소리라는 사용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차용하여 조국건설을 위해 ‘봉쇄된’ 목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Gayatri Spivak&Judith Butler,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Who Sings the Nation-State? language, politics, belonging』, 주해연 옮김, 산책자, 2008 참고.



갈등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원조가 언급한 (1) 시국적 의의와 (2) 진실성의 불협화음에서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창」에서 김사백의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공감의 대상,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을 산다. 논을 사야지. 학교를그만두시드래도 굶어죽지 안지. 살림미천을 작만해야 월급이 업서두 살아가지  
김교사 내외의 굿은 뜻으로 그들은 십년이 못가서 논을 샀다. 행길엽헤 닳마지기 논을 작만했다. 노존을 저러서 논을 장만하였다. 이것은 십 년 전부터 시작한이야기였다.<sup>168)</sup>

인용문에서 보듯, 땅에 대한 김사백의 집념은 단순한 탐욕이나 집착이 아니다. 김사백의 땅은 어린 시절 앓았던 홍역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쓰게 되었음에도 십 년 동안 아내와 함께 “노존(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을 짜서 겨우 마련한 논 닳마지기다. 그렇다고 김사백이 이 논 닳마지기에서 나온 쌀로 마음껏 배를 채운 것도 아니다. 김사백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이어간다. 비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논 닳마지기는 김사백이 자신의 운명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정당하고 ‘유일한’ 재산이자 그의 삶 그 자체다.

한편, 이러한 김사백의 삶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김사백의 동생 김사연이다. 김사연은 소지주인 김사백과 달리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작농이다.

김사연은일본정치시대에 농민조합사건으로 감옥에가서 룩년동안 징역하고 온경력이 잇섯고 아직까지도 등덜미에 고문으로 주리를 틀려서 상처받은 흙집이잇고 열개의 손가락과 열개의 발가락이 얼어빠져서 지금도 겨울이되면 가렵고압펴서 견되지못하고 황소같은 그힘이 지금은 한 가마니를 겨우 들도록 골탕을 먹은사람이다.<sup>169)</sup>

---

168) 「窓⑫」, 『서울신문』, 1946.7.16.

169) 「窓⑥」, 『서울신문』, 1946.7.5.

그러나 그렇든 세월은 가고 八, 一 五의 력사는왔다. 사연은 감연히  
이러섰다. 북조선의 정치에 몸으로써 주초돌이 되고저했다.<sup>170)</sup>

김사연은 육체에 투쟁의 흔적을 새긴, 말 그대로 새 시대의 “주초돌”이다. 육체에 새겨진 투쟁의 흔적과 소작농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 받은 김사연이야말로 해방의 대의를 수행할 적자다. 해방 후 김사연은 해방농민조합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신조선 건설에 앞장선다. 농민소설에서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이 전형적인 서사의 패턴이라면, 「창」에서는 둘의 관계를 형제로 설정하고 대지주가 아닌 소지주로 형상화함으로써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이해’라는 감정으로 치환한다. 토지개혁에 대해 묻는 소지주인 형 김사백은 소작농 동생 김사연에게 연민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래 언제부터 토지혁명인가 토지개혁인가 실시가 되능가?”

“아마 삼월부터 유월까지 걸쳐 쫓이나나 봅디다”

사연은 형의 날카로운 시선과 부딪혔다. 그는 이내 눈을 아래로 찌러트렸다. (...중략...) 사연은가슴이 뭉클하고 아팠다. 가난한아버지의아들, 가난한아희들의아버지.<sup>171)</sup>

토지개혁에 대해 묻는 형에게 그 정당함을 열변할 수 없는 것은 사연에게도 형은 가난과 싸워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형에게서 눈 닷마지기를 뺏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작농 김사연에게도 김사백의 행위는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원조가 「허구와 진실」에서 논한 (3) 감정적 요소는 김사백의 행위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인한 것이다. (2) 진실성, 즉 토지개혁을 둘러싼 소시민의 내적 갈등의 정당함은 (3) 감성적 요소를 통해 획득된다. 나아가 (3) 감성적 요소는 사백의 내면에 새로운 감각과 정서를 구축하는 원

170) 「窓⑧」, 『서울신문』, 1946.7.7.

171) 「窓⑨-⑩」, 『서울신문』, 1946.7.9. 7.11.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사백은 땅을 잃지 않기 위해 “북조선의 침식도 잊고” 토지개혁에 “반대” 한다. 1946년 3월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은 당시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자 반민족적인 행위로 심각하게 규탄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sup>17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희는 사백의 행위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소설이 대부분 해방의 정치적 열정을 서사화하기 위하여 공적 대의의 승리를 구가하였다면, 이선희는 신국가건설의 민족주체인 남성인물을 내세워 내셔널리즘의 정치적 열망에서 배태되는 억압과 균열을 드러낸다. 억압과 균열은 사백의 자살행위에서 극대화된다. 김사백은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이러한 사백의 죽음은 자신의 ‘유일한’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다.<sup>173)</sup> 무엇보다, 그 행위는 공적 대의를 버리고 사적감정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성의 영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사백의 자살은 비극적인 미로 승화된다.

탁-퉁인 들-과 강물에 달빰치 충충차서 출렁거린다. 사연은 형의죽음이 육체에 배여서 눈과코와 모두가 다죽음의 냄새뿐이다. 이승과저승의 갈내길에 선것처럼 아득하고 미묘한 검은 길이보히는것갓다. (...)

172) 1946년 3월 4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5차 집행위원회에서는 토지개혁안의 급진화의 이유를 민주주의 정책 실행조건의 형성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지주들의 반동적 파시스트적 행위의 노골화의 저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토지개혁의 주된 목적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공반소 분자들의 경제적 근거를 완전히 숙청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명림, 「북한혁명의 성격 반정복과 반혁명: 북한 토지개혁의 과정 내용 의미 분석」, 『아세아연구』 40, 1997.6. p.180.

173)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사백의 행위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의 안티고네의 자살과 유사하다. 라캉은 안티고네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죽음을 부를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승고한 아름다움’의 윤리적 실체라고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Judith Butler,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관계』, 조현순 옮김, 동문선, 2006, 참고.

중략...) 사연은 불빛이 비치는 유리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형김교사의 회고가손이 이불을 권것갓이만 생각된다. 그는 잠시 형의흰손이 이불을 컷다고 생각하였다.

사연의 어둡든 마음이 웬일인지 평안해진다. 그는 오든길을 되도라서 걸었다. 우리들의 압날도 누가컷지도 모르는 그창문에 빗처럼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sup>174)</sup>

해방의 적자 사연에게 배어든 죽음의 냄새와 유리창에 비치는 사백의 죽음의 빛은 북한의 체제를 반대한 것에 대한 속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매혹적이고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죽음으로 묘사된다. 사백의 죽음은 김사연에게 빛으로 환원되는 동시에 “학원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가 들끓도록 지내”는 장례로 진행된다. 이때 (3)의 감성적 요소는 극대화된다. 김사백의 자살행위에서 감정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김사백의 자살은 토지개혁이라는 공적 질서의 범령에 대항하기 위한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힘의 표상이다. 따라서 그의 자살에서 국가법과 대치되는 비극적 영웅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김사백의 자살은 타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김사백의 자살 행위는 텍스트에서 숭고한 형상으로 서사화되지만 그의 숭고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김사연과 동네 사람들이다. 유리창의 빛과 온 동네의 장례식이 이를 방증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감성은 타자로부터 오는 윤리적 호소와 요청을 수용하는 작용이다.<sup>175)</sup> 즉 김사백의 자살에서 감정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김사백의 죽음에 대한 윤리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원조가 「창」에 대해서 평가한 (1) 시국적 의의와 (2) 진실성이 당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성의 문제였다면, (3) 감상적 요소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예고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얼리즘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관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때, (3)의 장치는 바로 그 세계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

174) 「窓⑮」, 『서울신문』, 1946.7.20.

175)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과 탈현대윤리학」, 『철학논총』 23, 2001.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에서의 사백의 자살은 해방의 환희를 공적질서의 공공선으로 모두 환원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사적정서와의 화해와 공유를 시도하고 해방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선희가 해방 후 남성주인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해방의 정치적 열망에 내재해 있는 억압과 균열이다. 내셔널리즘의 억압과 균열은 해방 후 신국가의 위협과 분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봉쇄된 목소리’다. 앞서 살펴본 남성작가의 경우 여성의 희생과 구원을 통해 남성주체가 재건해야 할 내셔널리즘을 봉합하고 있다면, 이선희는 그 ‘봉쇄된 목소리’를 민족주체로서의 남성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시한다. 이선희는 남성성의 균열을 보여줌으로써 급진적인 내셔널리즘의 건설에서 오는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고 인간애를 실천하는 윤리적 국가건설을 욕망했는지도 모른다. 지하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지하련은 해방 후 탈여성성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남성주체의 민족재건을 재사유한다.

## (2) 회의懷疑하는 남성의 윤리적 성찰과 국가재건

해방 후 지하련의 소설에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이 부재한다. 탈여성성을 보이는 해방 후 지하련의 소설은 남성주체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창작방법은 작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감추고 남성의 정치적 실현에 대한 한계와 그 가능성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940년 12월 『문장』에 「결별」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지하련의 작품은 주로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의 애인을 둘러싼 삼각관계(「가을」(1941), 「산길」(1942)), 좌절된 식민지 남성지식인과 누이의 삼각관계

(「체향초」(1941), 「종매」(1942)) 등을 주제로 한다. 지하련은 남녀의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남성지배질서에 억압받는 여성의 심리를 보여주거나 남성 중심의 지배질서를 폭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176)</sup> 그러나 해방 후 그의 작품은 남녀의 삼각관계에서 벗어나서 남성인물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방 후 내셔널리즘 형성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서술한다. 해방 후 발표한 그의 작품에서 남성은 아예 부재한다. 탈여성성을 지향하는 배경에는 그의 정치적인 행적과도 연관이 있다.

해방 후 지하련은 좌익 남성들과 정치적인 행보를 함께한다. 그는 1946년 2월 8일 서울 종로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조선문학자대회에 참가하였고,<sup>177)</sup> 좌익 남성들과 함께 시를 발표하였다. 해방 후 지하련이 문단에 처음 발표한 글은 1946년 1월 19일 학병동맹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총살당한 세 명의 학생을 죽음을 애도하는 「어느야속한동포가있어」라는 조시다.<sup>178)</sup> 학병동맹사건이 발생하자 1946년 2월 『학병』은 특집호를 발간하고 임화, 김기림, 오장환, 권환, 지하련 등 좌익문인 16명이 이 특집호에 “頌歌”를 게재하는 데, 지하련은 특집 필진 가운데

176) 일제강점기 지하련의 작품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숙원, 「지하련 작품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2002. ;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양상: 인물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4, 2008. ;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가을」, 「산길」, 「결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 2008.

177) 권영민, 앞의 책(1986), p.16.

178) 시 전문은 아래와 같다. “敵의 손에서 敵의말을배우고 자라난 너/ 아득한 傳説속에 祖國은 네 서름과함께 커갔으리라/ 侵略하는 敵이 이리와같고 이리를 쫓는 同族이 너를애길리 없어/ 彈丸이아닌 네몸으로 敵은 火砲를 咎었다// 여기 어머니와 누나가 있어/ 빠아서지고 사금메였으나 너는 개만도 못하여 간역할 主人이 없었다// 오늘 / 원수의 砲煙속에서도 오히려 사러온 / 우리 귀중한 너 / 不義엔 목숨을 걸고 祖國 幸福앞에 / 大馬같이 充實하던 너 // 가슴엔 勳章도없고 銃도 아니가진 너 // 소금오르 밥 먹고 밤이면 머리맞대이고 별을안고 자든 너 // 그래 이 너를 어느 야속한 同族이 있어 죽였던 말이나! // 네 고단한잠이 길드란 宿舎는 피에물들고 / 人民의나라萬歲! / 너는 痛哭하며 죽었다 // 네 외오침이 높이 올라/ 또다시 祖國하늘에 사모칠게다/ 오늘도 서름동인 너 나의 가엾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동생아! // 네가 만일 부량자라면 나는 부량자의 누나가 될것이고// 네가 도적 이라면 도적의누나로 나는 名譽롭다// 그러나-/누가 진정 盜賊인가는/ 너만이-가슴을 찔러 통곡한 오-죽 너만이 잘알 것이다.”

유일한 여성이었다. 이밖에도 지하련은 1946년 4월에 개최된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 좌담회에 참여한 유일한 여성 작가이기도 하다. 이 좌담회는 1946년 4월 3일 ‘草苑’에서 『민성』의 고려문화사와 조선문학가동맹소설부와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총 25명의 문인이 여기에 참여하였다.<sup>179)</sup> 좌담회는 1946년 4월호 『민성』(2권 6호)에 「解放後の 朝鮮: 第一面小説家懇談會」로 게재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하련은 딱 한 번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낙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좌담회였던 데다 안희남, 김남천, 이태준의 발언이 주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지하련의 발언은 그가 해방 후에 발표한 유일한 소설 「도정道程: 小市民」(『문학』, 1946.7.)에 대한 작가적 포지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sup>180)</sup>

池河連: 그러나 어딘지 그동안 제가 만지고 있는 ‘사람’과 許俊氏의 ‘사람’이 어느 모습에있어서 다소 비슷한데가 있는 것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지금 허준씨의 찬데(感動하지않는)對 하여 말씀드린건事實은 제 자신속에 있는 이러한 면에 抗拒하는 姿勢일지도 모릅니다. (...중략...)그럼 지금껏 小說가운데 ‘내사람’이 것처럼 차지려는 것은 무슨까닭일까하고 생각한 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政治的庶民으로서 개성이 一種 不具의 發展을 해온데 所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시 文學이란 自然과 함께 싱싱하고 完全해야만 정말이고 아름답고 착할수있다고 생각해요. 다 까닭이 있어 庶民으로 不具와 같은

179) 참가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조선문학가동맹소설부측: 이태준, 안희남, 김남천, 박노갑, 허준, 이근영, 현덕, 김래성, 이현욱(지하련), 김영석, 박영준, 홍구, 박찬모, 이봉구, 지봉문, 안동수, 강형구, 곽하신, 김만선, 김학철, 윤세중, 이석정, 정원섭, 조선문학가동맹서기부측: 이원조, 본지측: 박계주, 채정근.

180) 「도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지영, 「혁명가를 바라보는 여성작가의 시선: 지하련의 「도정」, 한무숙의 「허물어진 환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학연구』 30, 2011. ; 손유경, 앞의 논문. ;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우리문학연구』 40, 2013. ; 이양숙,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감정구조: 지하련의 「도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2014.12. ; 류진희, 「월북작가 이선희와 지하련의 해방이후」, 앞의 논문. ;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되기의 서사: 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근대문학연구』, 2016.4.

虛弱者가 된것도 생각하면 분할텐데 이제 ‘새것’이 있고, 情熱이  
솟아 부끄러움이 없을 때 무슨 邪症으로 不具의 趣味를가지겠습니까.  
너무 어두운방속에 있던사람은 바깥에 나와도 한참동안 캄캄할것이  
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아무튼 나의 차운면엔 어딘지 죄스럽고 염  
체없어 제가 미워져요.<sup>181)</sup>

이 말은 허준의 「잔등」의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해방의 ‘열정’이  
아니라 해방의 혼란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잔등」(1946)은  
좌담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하련은 자신이 쓰고 있는 작품  
의 인물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  
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현덕은 “약소민족”에서 해방된 현재를 묘사  
함에 있어서 허준의 「잔등」에서 나타난 열정 없는 냉소적 태도는 부정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하련은 “새 것”의 도래가 “열  
정”을 가져오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열정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없  
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진보적 믿음과 그 실천은 미래적 시각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지하련이 마지막 “어두운 방에 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와도  
한참동안 캄캄”하다는 비유적 표현은 8.15라는 정치적 사건을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과거와 연속된 시점에서 해방된 현재를 직시하는 포즈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하련이 좌담회 당시 창작하고 있던 「도정」의 남성주인공  
석재의 태도는 해방의 순간을 바로 열정으로 전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  
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관찰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해방의 순간  
을 곧바로 열정으로 전화하지 않는 석재의 태도는 당대 문학에서는 지양  
해야 할 방법이었다. 이는 조선문화가동맹 제1회 해방문학상의 심사평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池河連의 「道程」은 八.一五直后 國內에서 勃興한 民主主義運動에  
良心의 問題를 取扱한 거의 唯一한 作品으로서 새로운 朝鮮文學이

181) 「解放後の 朝鮮: 第一面小説家懇談會」, 『민성』, 1946.4. p.5. (강조:인용자)



創造하여 나갈 人間의形象의 한 境地를 開拓하고 있으며, 心理描寫及 人物의 形象化에 있어 表示된 作者의 非凡한 資質과 더부러 우리들 가운데있는 小市民性의 陰影을 感知하는 銳敏한 感覺은 注目에 冑하는 것이다. 그陰影을 誇張함으로서 作者自身이 期하지않고 小市民性에 대한 一種의 偏愛를하였었다. 그리하여 主題의 時代性과 表現의 稠密에도 不拘하고도 主人公 現實性이 滅殺되고 作品全体의 事實性及藝術的推力이 不足하여졌다. 그리하여 李泰俊의 「解放前後」를 最終審査의 小說候補로 推薦하게되었다.<sup>182)</sup>

심사자는 「도정」이 소시민성의 “陰影”이 과장되었다고 평한다. 소시민성의 불안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멸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앞서 「解放後의 朝鮮」좌담회에서 허준의 작품을 두고 문인들이 논한, 해방의 순간을 열정으로 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궐에 있다. 그러나 지하련의 「도정」이야말로 과거와 연속되는 해방 후의 ‘현실’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지하련의 「도정」은 8월 15일 정오 천황의 항복 선언이 나오기 30분 전을 배경으로 시작한다. 석재는 서울에서 도기 공장을 한다는 김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역전에 도착하기 전 석재는 벤치에 앉아서 과거 일을 회상한다. 서두에 놓인 과거 회상은 석재의 해방 후 포즈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사건이다. 그 사건은 바로 기철과의 술자리다.

“...난 너무 오랜동안을 나만을 위해 살아왔서. 숨어 단이고 감옥엘 가고 그것 다 꼭 바로 말하면 날 위해서였거든. 이십 대엔 스스로 절 어떤 비범한 특수한 인간으로 설정하고 싶어서였고……. 삼십대에와서는 모든 신망을 한 몸에 뭉은 가장 양심적인 인간으로 자처하고 싶어서였고 그러다가 그만 이제 제 구멍에 빠져 헤어나질 못 허는 시늉이거든.”

(...중략...)

그에 문제는 ‘인간성’에 가 부딪고 마는 것이었다. 결국-네가 나뿐

182) 「一九四六年度 文學賞審査經過及決定理由」, 『文學』, 1947.4. p.56.

사람이라-는, 애매한 자책 아래서게 되면, 그것이 형태도 죄목도 분명치 않은, 일종의 ‘울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한층 그로선 용납할 도리가 없었다.<sup>183)</sup>

광산에서 돈을 벌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철과의 술자리는 거의 일방적으로 석재의 내면을 토로하는 장으로 서술된다. 석재는 기철에게 자기 안의 부정적인 것을 고백한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것과의 마주함은 내면의 분열을 의미한다. 결국 해방 후 석재가 회의적인 포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 새로운 공동체로의 이행이란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불안한 의식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sup>184)</sup>

이는 이태준의 「해방전후」에서 현의 일제말기의 포즈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제말기 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일본제국의 탄압이라는 외부성에서 기인한다. 현은 문인보국회에 참여하라는 강요, 순경의 강압적 태도 등 일본제국의 폭력성을 견디면서 해방을 기다린다. 반면, 석재의 불안과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석재는 민족, 조국 등 공동체의 대의라고 의식한 행위가 사실 자기 자신의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석재의 불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상황을 타파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보다 명확해진다.

(가) (이게 나 혼자 꿈이나 아닌가?)

현은 철원에 와서야 꿈 아닌 『경성일보』를 보았고, 찾을만한 사람들을 만나 굳은 악수와 소리나는 우름을 울었다. 하늘은 맑아 박꽃

---

183) 지하련, 「도정」, 『문학』, 1946.7, pp.51-52.

184) 이양숙 역시 「도정」에서 주요한 것은 석재의 감정구조라고 언급한다. 이양숙은 「도정」의 특징을 과거 사회주의자가 느낀 “복잡한 감정”을 급변했던 해방 직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당대인의 감정구조”라고 말한다. 이양숙(2014), 앞의 논문 참고.

같은 구름송이, 따에는 무럭무럭 자라는 고식들, 옥어진 녹음들, 어느 것이고 우러러 절하고 소리질르고 날뛰고싶었다.<sup>185)</sup>

(나) 그는 가슴이 철석하며 눈앞이 앓질 하였다. 일본의 패망, 이겼은, 간절한기다림이엇기에 노상 목전에 선연했든것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렇게도 빨리올수가 있었든가?)-순간 생각이라기 보다는 거림자와 같은 수천 수백 매듭의 상념(想念)이 미칠 듯 급한 속도로 팽갹이를 돌리다가 이어 파문 처럼퍼져 침몰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은 극히 순간이었을뿐, 다음엔 신기할 정도로 평정한 마음이었다. 막연하게 이럴 리가없다고, 의아해 하면 할수록 더욱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이상 더, 이겼을 캐어무를 여유가 그의게 없었던 것을 보면 그는 역시 어떤 싸늘한 거반 질곡(桎梏)에 가까운, 맹랑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든것인도 몰랐다.<sup>186)</sup>

(가)는 「해방전후」의 현, (나)는 「도정」의 석재가 해방소식을 접한 직후의 감정표현이다. 「해방전후」의 현은 그를 억압하던 외부적인 요인에서 벗어나는 순간 격한 감정과 열망에 휩싸인다. 이는 과거 현의 행위의 부정과 갈등의 원인이 외부적인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해방전후」에서의 현이 한때 문학을 논했던 벗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직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내적 갈등 없이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를 억압하던 외부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해방전후」의 현의 내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8.15라는 외부적 사건이다. 반면 (나)의 석재에게 해방된 직후는 ‘거대한 그림자와 같은 수천 수백 마디의 상념’으로 다가온다. 석재에게 해방의 순간은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절연한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으로 다가온다. 석재에게 주요한 것은 8.15라는 사건과 결부된 자기 내면의 모순과 분열이다.

과거 석재의 경험에 의하면 공동체의 분열은 단지 외부로부터 초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원인이

185) 이태준, 「해방전후」, 『문학』, 1946.7, p.21.

186) 지하련, 「도정」, 『문학』, 1946.7, p.54.

존재한다. 해방이라는 사건이 새로운 공동체의 재건, 건설을 목표한다고 했을 때, 석재에게 긴요한 것은 열정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극복이다. 그것은 「解放後의 朝鮮」좌담회에서 지하련이 말한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출발의 시점은 천황의 항복선언을 석재에게 전달하고 있는 소년과의 대화다. 「도정」에서 석재가 천황의 항복 선언을 접한 것은 라디오, 신문 등의 공식적인 매체가 아니다. 석재는 “고막이 울리도록 크게” 틀은 라디오 소리에도 불구하고 석재의 육체는 “여전히 신음하는 자세로 쉽사리 일어서지질 않는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 해방의 소식은 한 소년의 울음을 통해서 전달된다. 석재는 “텐노우 헤이카가 고-상을 했어요”라고 울먹이는 소년에게서 해방의 소식을 듣는다. 석재가 해방의 순간을 소년의 슬픔을 통해서 확인하는 장면은 김동리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소시민」에 와서 씨는 演劇을 꾸미었다. 女流作家란 이렇게도 無責任할 수 있는겐지 모르겠다. 少年이 텐노오헤이카가 가엾다고 운다는 것을 보고 ‘大膽하다’ ‘리알하다’ 하고 손벽을 칠 멍텅구리를 만 이 이쁘고 생각하였다면 잘못이다. 설사 한 部分에 大膽하고 리알한 句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篇에 統一된 作者의 生命力이 有機化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한 枝葉的인 插話나 描寫가 小說이 되는 것은 아니다.<sup>187)</sup>

김동리는 지하련 작품의 장점인 “시적정서”가 「도정」에서는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특히 소년의 해방풍경은 작가의 세계관이 결여된 지엽적인 묘사라고 혹평한다. 김동리가 「도정」에서 포착한 것은 소년의 해방풍경이다. 그러나 「도정」에서 석재가 라디오 소리를 지나치고 소년의 슬픔에서 해방의 소식을 접하는 장면의 초점은, 소년의 감정 또는 해방의 사실적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187) 김동리,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 주로 현역 여류작가의 작품세계에 관하여」, 『문화』, 1947.7, pp.49-50.

석재의 내면의 변화에 있다.

“징 와가 신민 또 도모니, 하는데 그만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텐  
노우헤이까가 참 불쌍해요”

“텐노우헤이까는 우리 나라를 뺏어갔고, 약한 민족을 사십년 동안이  
나 괴롭혔는데, 불상허긴 뭐가 불상허지?”

“그래도 고-상을 허니까 불상해요-”

“.....”

“목소리가 아주 가엽서요-” 그는 무어라 얼른 대답할 말이 생각나  
니 았었다. 설사 소년의 보드라운 가슴이 지나치게 “인도적” 이라고  
해서 이상 더(미운자를 미워하라)고 “어른의 진리” 를 역설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내가 약한 탓일까. 반성해보는 것이었으나, 역시 “복  
수” 란 어른의 것인 듯 싶었다.<sup>188)</sup>

항복 선언을 한 천황이 불쌍하다는 소년에 말에 석재는 무슨 대답으로  
소년의 무지를 일깨워야 할지를 고민한다. 소년의 무지를 깨우칠 수 없  
다는 깨달음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환원된다. 이때 식민지예의 “복수”  
는 어른의 몫으로 서술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는 소년의 무지를 일깨우지 못한 지식인으로서의 반성이며, 둘째는 “복  
수” 를 위한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요청이다.

「도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해방’이라는 외부적 사건  
에 대한 지식인의 내적심리의 모순과 분열이라고 했을 때, 석재의 내적  
심리는 확실히 해방을 기점으로 변모한다. 석재는 해방된 후 “어떤 내  
부로부터의 심한 허탈증” 을 느낀다고 소회한다. 그 허탈증은 새로운 세  
계,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다. 그러나 선뜻 앞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망  
설이며 8.15 이후의 조선 사회를 관찰하는 이유는 당의 재건에 있다. 앞  
서 말했듯이, 소년의 모습에서 해방의 풍경을 본 석재는 자기반성과 함  
께 어른의 몫인 복수를 생각하는데, 이때 복수는 식민지 때와는 다른 윤  
리적인 자세, 즉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 이 없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

---

188) 지하련, 「도정」, 『문학』, 1946.7, pp.54-55.

다. 그런데 기철의 소식은 그의 이러한 태도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해방된 다음 날 석재는 당이 재건된다는 소식과 당의 최고간부 중 한 사람이 기철이라는 소식을 접한다. 그 소식을 들은 석재는 “내부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 일시에 엉켜려 헤어날 길이 없”는 분열과 혼란에 빠진다.

문득 기철이 눈앞에 나타난다. 장대한 체구에 패기 만만한 얼굴이다. 돈이 제일일땐 돈을 뽐으려 정렬을 쫓고, 구너력이 제일일땐 권력을 잡으려 수단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다. 어느 사회에 던져두어도 이런 사람이 불행할리는 없다. 그러나, 여기 한 개의 비밀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영예로워지면 질수록 흉악해지는 비밀이었다. 대체나 “겉”이 그렇게 충실허구야, “속”(良心)이 있을 리가 없고, 속이 없는 사람이란 외곽이 화려하면 할수록, 내부가 부패하는 법이었다.<sup>189)</sup>

해방 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석재의 열망은 자기내면의 분열과 모순을 극복한 윤리적인 포즈에서 배태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듯 기철은 “양심”이 부재한 인물이다. 양심의 부재는 무지한 소년의 슬픔에 대한 깨우침과 복수를 감행할 수 없다. 기철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할 뿐이다. 석재의 관찰과 망설임은 바로 이 시점에서 증폭된다. 석재의 관찰과 망설임은 내적인 자기반성을 넘어 당의 진리적 포즈를 의심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석재의 이성인 ‘당’의 당위성에 대해 의심한다. 기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적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옳다고 믿는 외적인 형식 틀에서 나온다.<sup>190)</sup> 석재는 바로 그 진리의 형식틀, 포즈를 거부한다.

잠깐 시선이 어데가 머무러야 할지, 눈앞이 아리송송 한게, 골치가 지끈 지끈 아프다. 눈을 감었다. 순간, 머리속에서 독감이 처름 불끈

189) 「도정」, 『문학』, 1946.7, p.60.

190) 손유경은 석재의 행위를 통해 당의 당위성이 외부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pp.164-165.

솟는 “괴물”이 있다. “공산당”이었다.—그는 눈을 번쩍 떴다. (...중략...) 결코 이 괴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었다. 괴물은 칠가치 어두운 밤에서도 화—이 밝은 단 하나의 “옳은 것”을 진이고 있다. 그는 믿었다.—옳다는—이 어디까지 정확한 보편적 “진리”는—나쁘다는—어디까지 애매한 물리적인 가책과 더부러 오랫동안 그에겐 크다란 한 개 고민이었든 것이다.<sup>191)</sup>(p.59)

석재는 “단 하나의 옳은 것”에 대해 의심한다. 보편적인 진리를 가장한 당은 석재에게 “괴물”로 비춰진다. 석재에게 해방의 대의는 정신의 부정적인 것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에게 진리는 외적인 것을 정신의 내면으로 되돌리고 이것이 다시 외적인 행위로 되돌려지는 정신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정면에서 마주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192)</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수’를 감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인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당은 보편적인 믿음만을 강요한다. 그러한 당을 따르는 것은 곧 기회주의자기철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석재는 마지막에 당을 선택함으로써 당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유경이 지적한대로 「도정」의 석재는 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끌려’ 간다. 이러한 석재의 행위는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당과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남성주체에게는 민족과 국가를 재건할 의무가 주어졌다. 소설에서 묘사된 해방 후의 남성주인공은 자신들이 완벽한 세계로서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주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후면에는 민족국가재건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한다. 남성주인공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여성주인공의 몫으로 치환함으로써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소설에서 남성주체가 맞이한 8.15는 국가재건의 낭만과 열정의 세계다. 이미 내셔널리즘을

191) 「도정」, 『문학』, 1946.7, p.59.

192)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부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은 내면의 모순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참된 정신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과 분열을 마주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Hegel, 앞의 책(1), 참고.

수행할 완벽한 세계에 대한 해답은 남성주체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도정」의 남성주인공 석재에게는 그 해답이 부재한다. 석재가 맞이한 8.15는 ‘사유’의 공간이다. 여기서 사유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물음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193)</sup> 지하련이 석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민족주체는 바로 이러한 사유를 하는 자다. 당의 선택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과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남성작가가 여성이라는 타자를 통해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했던 8.15에 대한 냉철한 사유를 지하련은 다시 남성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완벽한 세계를 지향하는 미래의 전망은 부재한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이를 현재와 연결시키려는 진지한 사유로서의 국가건설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이선희의 작품도 그러하다. 완벽한 남성성의 회복을 통해 민족국가의 재건을 꾀하고자 한 해방공간에 이선희와 지하련은 탈여성성을 통해 남성주체의 불안을 보여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재건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요청한다.

그러나 국가건설의 전망에 대한 여성작가의 정치적 사유는 오래가지 못한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될 즈음 여성작가는 ‘생활’이라는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

193) Slavoj Žižek & 인디고 연구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인디고 연구소, 궁리, 2012, p.99.



### Ⅲ. 여성의 사적 경험의 공론화와 생활의 구축

이 장에서는 단정수립 전후로 여성의 사적 경험이 공론화되고 생활이 구축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7년 중후반에 이르면 임옥인, 최정희, 장덕조, 김말봉 등도 작품 활동을 한다. 1947년 중후반은 이념대립이 극에 달한 동시에 3.8선의 분할이 지속되면서 조선의 경제 구조가 파탄에 이른 시기였다.<sup>194)</sup> 경제구조의 파탄은 생활의 위기로 이어졌다. 생존으로서의 생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졌나왔다.<sup>195)</sup> 지식인은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을 촉구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sup>196)</sup> 생활의 위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분명하게 체감하였다. 이배용에 의하면 미군정기 전반적인 생산 침체와 귀환자로 인한 노동인구의 증가 속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가 더 큰 실업의 위기에 노출되었다.<sup>197)</sup> 흥미로운 것은 전문직 여성의 수는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성경찰과 여성학교의 여성 교장, 여성 학장, 여성 총장 등의 선출, 그리고 여성의과대학의 신설 등 전문직 여성의 직업과 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의 출현은 전문직 여성과 여성의 권리 증대를 가져왔다.<sup>198)</sup> 지식인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을 얻은 반면, 한편으로 생활의 위기에 직면한 하층계급의 여성 수는 더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후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 임옥인, 최정

---

194) 실제로 1936년에 비해 1947년에는 소매물가가 약459배, 1948년 소매물가는 857배, 서울시 도매물가지수는 1,493배의 물가등귀율을 나타낼 정도로 남조선 경제난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된다. 洪漢杓, 「特輯 南朝鮮 産業經濟의 現況과 民生:物價, 賃金, 生活」, 『民聲』, 1948.5, p.28.

195) 이봉범에 의하면 해방 후 물가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대중과 지식인들은 시정당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촉구하지만, 시정당국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해줄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pp.21-31 참고.

196) 「경제부흥과 민생안정」, 『자유신문』, 1947.2.20.

197)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역사학보』 150, 1996, pp.198-203.

198) 위의 논문, pp.203-205.

회, 장덕조, 김말봉 등은 정치적 이념과 실현의 가능성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다. 해방직후 공적 대의를 위한 법적, 정치적 질서에 참여한 여성은 1947년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의 문제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의 문제로의 전환은 공적 대의로부터의 완전한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 여성작가가 포착한 세계는 지식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의식과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공동성의 의식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생활을 재구축하고 있다는 데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러한 생활의 구축은 작가의 젠더적 현실인식의 층위에 따라 서사의 양상을 다르게 나타낸다는 데 주목을 요한다.

## 1.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월경越境하는 여성

이 절에서는 해방 후 임옥인의 「이슬과 같이」(『부인』, 1947.9-11), 「오빠」(『백민』, 1948.10), 「약속」(『백민』, 1947.12)과 「서울역」(『민주경찰』, 1949.7)를 대상으로 여성인물이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월경을 통해 생활을 구축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9년 8월 『문장』에 「봉선화」가 추천되면서 등단한 임옥인은 해방 전까지 「고영孤影」(『문장』, 1940.5), 「후처기」(『문장』, 1940.11), 「전처기」(『문장』, 1941.2) 등 총 5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해방 전 임옥인의 작품의 특징은 애정문제로 갈등하는 여주인공(「봉선화」, 「고영」), 처첩갈등에서 오는 여성의 불행한 심리(「전처기」, 「후처기」)를 서술한다는 데 있다. 이들 작품은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성의 내적심리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여성의 운명을 다룬다. 대부분의 서사가 가정 내에서의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는 해방을 기점으로 가정 내의 문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조우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작가의 월남경험이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 절의 문제의식이다.

임옥인은 1946년 4월 단신으로 월남하여 1947년부터 작품 활동을 재개한다. 이후 임옥인의 출세작으로는 1956년 7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문학예술』에 발표한 「월남전후越南前後」를 꼽을 수 있다. 임옥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 역시 「월남전후」다.<sup>199)</sup> 「월남전후」는 김영옥이라는 여성지식인이 해방직후인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함경도에서 서울로 월남하기까지를 서사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작가의 실제 경험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자전적 소설이다.<sup>200)</sup> 그런데 그 창작 시기는 작가가 월남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기억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왜곡,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01)</sup> 즉 「월남전후」의 서사는 작가의 월남 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도 반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직후 임옥인이 발표한 작품에서의 월남경험이 기억의 진실성 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임옥인의 작품의 특징은 자기이야기다. 자기이야기가 역사와 허구가 공동으로 시간을 재형상화함으로써 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

---

199) 전해자, 「모성적 이데올로기로의 회귀: 임옥인의 「월남전후」론」, 『현대소설연구』 7, 1997. ; 김복순, 「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양상」,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 소설비평』, 한길사, 1997.6 ; 차희정, 「해방전후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과 이주: 임옥인의 「월남전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 김주리, 「월경과 반경: 임옥인의 「월남전후」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31, 2015. 등의 작품이 「월남전후」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서정자, 「자기의 서사화와 진정성의 문제」, 『세계한국어문학』 2, 2009. 한경희, 「임옥인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 체험의 서사화와 사랑의 문제」, 『춘원연구학보』 7, 2014.가 있다.

200) 임옥인은 1975년 한 잡지로부터 「8.15와 그날의 나」란 주제로 글을 청탁받았는데, 이에 「월남전후」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만큼 「월남전후」는 실제로 작가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임옥인, 「8.15 그날의 나」, 『기독교사상』 19, 1975.9.). 이러한 양상을 근거로 전해자는 「월남전후」가 자전적 소설, 사소설이라기보다 다큐멘터리 성격을 강하게 지닌 텍스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전해자, 위의 논문.

201) 임옥인은 「월남전후」의 후기에서 “事實은 越南以後 그때 그때 써내려온 千枚에 가까운 原稿가 있었지만 不幸히도 事變中에 燒失당”한 후에 “記憶을 더듬으며 또 새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섞어서, 엮어놓은 것이 本稿”라고 밝히고 있다. 임옥인, 「越南前後 後記」, 『문학예술』, 1956.12, p.108.

상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임옥인이 해방 후 자전적 소설을 선택한 것은 역사와 마주한 자신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sup>202)</sup> 기실 임옥인은 해방직후 자기이야기를 함으로써 종합불가능하고 파악불가능한 불안정한 생활자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다. 그가 해방 후 출간한 『후처기』의 후기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탐구의 표현을 어떠한 형식을 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기도 전에 거의 숙명적으로 문학의 형태를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sup>203)</sup> 이는 그가 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이 월남경험이다. 임옥인의 월남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은 오빠의 불구성이다. 임옥인은 한 회고에서 자신이 가족을 두고 월남한 이유 중 하나로 오빠의 불구성을 들고 있다.<sup>204)</sup> 오빠의 불구성은 오빠의 부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해방 후 작가 임옥인의 자기 존재의 존립근거가 된다. 해방 후 오빠의 서사가 등장하는 작품은 「이슬과 같이」(『부인』, 1947.9-11)와 「오빠」(『백민』, 1948.10)다. 이들 작품은 상당부분 「월남전후」의 서사와도 겹친다. 그러나 「월남전후」에서 월남이 여성동맹 군위위원회에서 받은 억압과 강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으로 서술된다면, 「이슬과 같이」와 「오빠」에서의 월남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이 부재한다. 이들 작품에서 월남의 계기는 해방 후 혼란한 상황과 가족사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립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슬과 같이」는 올케의 출산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대소설에서 1945년 8.15를 아이의 탄생으로 서사화하는 것은 「해방의 아들(첫걸

202)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 *Temps et récit : intrigue et récit historique*』 2, 김한식, 이경래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p.185.

203) 임옥인, 「후기」, 『후처기』, 여원사, 1957.

204) “이를테면 나는 홀가분하니까 떠났던 것이요, 그 분들은 설사 무슨 변을 당하더라도 앉아서 당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빠가 병중이라고 했지마는 병도 이만저만 예사로운 병이 아니었던 것이다. 설혹 눈앞에 벼락이 내리더라도 움쭉 떨 수 없는 병이었던 것이다. 오빠는 두 다리 무릎아래를 잘라버린 앓은뱅이었던 것이다.” 임옥인, 「8.15와 그날」, 『기독교사상』 19(8), 1975.9, p.183.

음)」(1946)과 엄홍섭의 「귀환일기」(194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해방의 아들」에서는 ‘나’는 해방 후 안동에서 신의주로 귀환하는 과정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건국”이라고 지으며 희망적인 미래의 도래를 기약한다. 「귀환일기」의 등장인물도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배 안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자 “건국둥이”가 태어났다고 “좋아라 날 뛰며 축하추념”을 한다. 민족담론에서 여성의 재생산은 ‘한 핏줄 common origin’이라는 신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경로다.<sup>205)</sup> 따라서 해방 후 서사에서 아기의 출산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포착된다.<sup>206)</sup> 그러나 「이슬과 같이」에서의 출산은 민족담론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1947년 후반기에 발표한 「이슬과 같이」에서의 출산은 해방 후 궁핍한 현실을 마주하는 생활의 위기를 예고한다.

‘나’는 간밤에 막달인 올케가 무사한지 보러갔다가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한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도 잠시 나가 마주한 현실은 깨어진 유리창, 떨어진 장지,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전기마저 나가 촛불에 의지해 겨우 아이를 낳은 올케의 모습이다. 올케의 출산은 해방된 조선의 국가재건을 상징하는 축복이 아니라 곤궁함으로 서술된다. 이렇듯 「이슬과 같이」에서는 해방된 기쁨도 열정도 부재한다. 오히려 해방과 함께 새로 태어난 아기는 “해방직후 불과 17일 되던 날” 소련 경찰기의 폭격으로 집터가 무너지자, 그나마 온전한 일본인의 터에서 태어나야 했다. 이는 해방이 제국과의 단절이라기보다 제국의 폭력의 연속으로 여겨지도록 만든다. 폭력의 자리에서 나가 발견한 것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배제된 주변화된 여성이다.

작중화자 ‘나’가 리어카로 기존의 집터에서 살림살이를 옮기며 새로 태어난 아기의 동냥젖을 얻으러 다닐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신여성 명선이다. 신여성은 임옥인의 등단작인 「봉선화」(1939)에서도 나온다. 그

205) Nira Yoval-Davis, 『젠더와 민족 Gender and Nation』, 박혜란 옮김, 그린비, 2012, p.58.

206) 해방직후 여성의 출산과 내셔널리즘의 관계성은 다음 논문 참조. 오태영의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2007.6,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귀환 의례’의 메커니즘과 귀환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 2009.

러나 「봉선화」에서의 신여성은 약혼자의 귀국을 기다리며 낭만적 사랑에 빠져있는 인물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성의 내적심리는 그의 해방 전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신여성은 「이슬과 같이」에 오면 “불행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신여성 명선은 여학교 졸업반이던 때에 사회주의자 서훈필의 아이를 낳았지만, 서훈필에게 버림받고 그 후 여덟 번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하층민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서훈필은 감옥에 다녀 온 후 친일을 하다가 해방 후에는 고장 군위장으로 추천된다. 민족을 배반한 서훈필은 해방 후 민족주체로서 국가건설에 참여한다. 제국과 이념의 폭격으로 몰락한 ‘나’의 집터를 함께 일으키는 것은 재건된 국가의 민족주체로서 호명된 서훈필이 아니다. 마을사람 모두가 외면한, 주변화된 여성 명선이다. 명선은 나의 짐을 날라주는 일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산모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자 젖동냥을 하는 일까지 나의 가족 일을 돌봐준다. 나는 그런 명선에게 “불행한 사람만이 진정한 불행을 아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라며 자매애sisterhood를 느낀다. 나는 몰락한 신여성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태에 놓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한다.

나는 명선과 함께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젖동냥을 다니다가 폭격당한 것이 자신의 집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K읍 다리이쪽은 물론 공습은 아니 당했지만 집집이 피란들을갔다 왔고 갖다오는새도적들을 맞아서 물건이 제대로잇는 집이업었다. 일어진 재봉침과돗자리와 축음기와옷과무엇무엇, 길가는사람들 특히 부인네는 자기들의일어진 물건의이름을 마치 미친사람 모양으로 주어 대며 지나가고 지나오는것이였다.<sup>207)</sup>

폭격당한 마을에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네” 들이다. 이들에게 해방은 잃어버렸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열정의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현재의 생활을 찾기 위한 공간이다. 임옥인은 오빠가 부재한 자리에 가해지는 이념의 폭격 앞에 어떠한 저항도

207) 임옥인, 「이슬과같이」, 『부인』, 1947.11.

할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앞세워 놓음으로써 비극적이고 암울한 해방 후 생활을 포착한다. 이는 해방과 함께 태어난 조카의 죽음으로 더욱 극대화된다. 열흘이 채 지났을 즈음 오빠의 딸은 결국 숨을 거둔다. ‘나’는 조카의 죽음을 보고 “며칠 전에 폭격을 당해 죽은 시체와 빛깔이 같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조카의 죽음은 “지리한 일생을 가진 한 사람의 겪은 그것”과 동일화된다. 나아가 나와 명선은 아기의 장례식을 치러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다.

「이슬과 같이」에서 여성인물이 주변화된 여성들과의 공감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면, 「오빠」의 여성인물은 오빠에 대한 사상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오빠」는 식민지시기부터 해방 후 고향 함경도를 떠나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서사다. 해방 전과 후의 교차적 구성이, 시간적 단절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정체성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소설의 행위 주체는 전문학교를 나온 여성 지식인 연희다. 연희의 옆에는 민족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오빠가 존재한다. 연희는 시종일관 오빠에 대한 존경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오빠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불가능한, “다리 두 개가 없는 앓은뱅이”다. 오빠의 행위불가능성은 당대 비평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오빠」가 不具의 絶望을 克復하여 平和스러운 얼굴이 되기까지의 內的鬭爭의 過程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그냥 表現하자면 說明이 되기수위니까 어떤 事件(虛構)의 契機가 必要한 것이다.”<sup>208)</sup> 오빠가 불구를 극복하는 내적투쟁의 과정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이는 오빠를 소설의 행위자로 본 관점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행위자는 오빠가 아니라 오빠를 딛고 일어나는 ‘연희’다. 연희는 오빠에 대한 존경과 연민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불구자인 오빠의 전부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 한다.

연희는 자기의 존재가 오빠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는것을 어찌할

208) 李正鎬, 「創作時評: 感動에의 慾求」, 『경향신문』, 1948.12.4.

수없었다. 학생 시절엔 잔뜩 벌렸다가 방학이 되기가 바쁘게 달려가면 오빠는 우선 연희의 손을 부들고 울었다. 연희는 자기가 먼저 눈물을 흘린 죄로 가뜩이나 서른 오빠를 울게 만든것이라고 스스로 책하면서도 오히려 그 오빠만 보면 느껴울었다. 어쩌다 몇일씩 늦게 고향엘 오거나 한 학기를 내쳐 안 왔다가 그다음 학기에 와보면 오빠는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싸어두었든듯이 와락 성을 내며 계집애가 바람이 나도 풍수가 있지, 그래일년동안이나 집엘 안오는 법이 있느냐고 책망을 퍼부었다. 연희는 얼떨떨하면서도 우선 전과 같이 울었다.<sup>209)</sup>

오빠에게 연희는 자신의 행위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자이자 자신이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다. 연희는 자신이 오빠의 존재의 원인이자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어찌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연희는 오빠의 잃어버린 육체를 함께 애도하고 고통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오빠가 분연히 일어난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고 난 뒤이다. 좌익서적, 그 중에서도 자본론을 읽다가 경찰서를 다녀온 오빠는 “놀랄 만큼 냉정하여졌고, 모든 사물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 전과는 판이한 어엿한 남자”로 변모한다.

데칼-트, 헤-겔, 칸-트 할것없이 제법 연희로서는 뒤척여 볼 엄도 못냈던 많은 서적을 제법 체계적으로 읽고 회의하며 있는 것이었다.

“하망드면 나는 죽을 뻔하였다.”

언덕을 채색하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오빠는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무더운 날이라든지 흐린 날, 내 다리 짙은 그른턱들이 근질근질하고 불쾌할 때, (중략) 나는 소름이 끼치는 두려움과 근심에 차느니보담 무척 커다란 생각 즉 회의에 잠긴다. 생각은 곧 내가 살아 있다는 가장 바로 증명하고 인식케 하는 노릇이 아니겠니?”<sup>210)</sup>

209) 임옥인, 「오빠」, 『백민』, 1948.10, p.81.

210) 「오빠」, pp.82-83.



이상의 서사를 살펴보면, 오빠의 재현은 개인의 가족이라기보다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빠의 행적은 식민지의 남성주체를 상징한다. 요컨대 오빠의 불구성과 그가 지닌 사상성은 일제강점기 국가법을 시행할 남성주체로서의 위치는 상실하였지만, 조국의 상실을 사상으로 극복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남성을 대표 representation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오빠에 대한 의식은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문제 하에서 배태된 것으로, 연희가 해방 전 오빠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해방 후 연희는 그러한 오빠와 새로운 관계설정에 진입한다.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 맺기는 자신과 대상 사이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변화에 중심에는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놓여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후 임옥인의 소설에서 해방은 기쁨과 환희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빠」와 「월남전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패망하고 그들이 다시 해방된 고향에 도라왔을 때에는 그들의 집은 흔적도없이 불타버린 뒤여서 그들은 다시 피란가있던 절간이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산골로 갔다.<sup>211)</sup>

골목길이 메우어지다시피 한 채의 집도 성한 것은 없었다. 폭삭 내려앉은 집, 아주 날려간 집, 그리고 반쯤 남은 집들이 도깨비굴 같았다.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더운 바람 속에 휘몰아 온다. (중략) 그리고 저기 반만 남은 기와집이 어머니와 오빠와 울케를 두고 온 바로 우리 집이 아닌가?<sup>212)</sup>

인용문에서 보듯, 임옥인의 자전적 소설에서 해방이라는 사건은 동일하게 폭격으로 불타버린 집으로 기억된다. 통상 집이란 안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여성적인 장소로 상징된다.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며 여성(어

211) 「오빠」, p.83.

212) 임옥인, 「월남전후」(『문학예술』, 1956.7-1956.12), 『임옥인 소설선집』 정재림 엮음, 현대문학, 2010, p.37.

머니)이 있는 이상향으로서의 고향이다. 이때 여성의 삶은 여성 자신과 주변의 역사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의 상징적 중심일 뿐이다.<sup>213)</sup> 해방 전 임옥인의 소설에서 보여준 서사에서 여성의 삶은 집과 가정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삶의 추구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해방의 순간이 안정적이고 상징적인 거처의 사라짐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그간에 추구하였던 것이 무<sup>無</sup>로 돌아갔음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상징한다. 해방을 기점으로 임옥인의 서사가 가정 내의 문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조우하고 있는 것은 작가에게 해방의 기억이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집의 붕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일상의 사회적 관계들이 재접합하는 새로운 개념적 지평을 가져온다.

해방 전과 후를 교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오빠」에서 연희가 보이는 변화의 내적 의미는 명확하다. 해방 후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기 위해 오빠는 “초인간적 정력으로 불경을 읽기 시작” 한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는 오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오빠가 “영원히 몽둥발이 얹은뱅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때 연희는 이남으로의 월경을 결심한다. 쇼왈터에 의하면 사적 영역인 가정에 얽매여온 여성은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재 욕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 ‘외출’을 감행한다.<sup>214)</sup> 여성이 가족과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주체로서의 자신의 공간을 찾기 위한 정체성 탐색의 기호다. 그런 점에서 연희의 월남행은 오빠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고자하는 행위다. 연희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곳에서 공산주의를 배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을 나온다. 오빠의 사상을 좇고 그의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상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남행을 결심한 것이다. 집과 가정의 울타리가 가장 여성화된 장소라고 한다면 연희의 월경은 그러한 장소로부터의 벗어남이다. 오빠의 부재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적논리가 연희의 월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

213) Doreen Massey, 『공간, 장소, 젠더 *Space, Place, and Gender*』,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320.

214) Elaine Showalter,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옮김, 문예출판사, 1990, pp.48-49.

라서 월경을 통해 정립하려는 연희의 정체성은 단순히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구성되는 적극적인 장소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바꿔 말하면, 연희는 오빠의 대상other에서 벗어나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월남 후 임옥인은 자신의 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을 두고 홀로 월남하였다는 죄의식과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낸다. 「약속」(『백민』, 1947.12)과 「서울역」(『민주경찰』, 1949.7)과 등에서 이러한 양가적 감정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속」은 우연히 알게 된 안주인 K씨가 나에게 배급받은 광목을 사다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맡기자, 나는 그 돈을 받는 대신 돈을 이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부탁한 것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모른 채 하고 혼자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약속」은 월남인을 상대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고 있지만, 한편으로 ‘나’가 단신으로 월남한 이후에도 여전히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임옥인 스스로 홀로 월남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옥인은 자전적 소설에서 해방 후 집터를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의 결별을 선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행위가 어쩔 수 없는 해방 후의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여성 혼자 월경해야만 했던 개인사적 상흔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에 대한 결별과 그리움으로 서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서울역」에서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내가 그 슬픔을 해방 후 암울한 현실을 포착하는 것으로 승화된다.

「서울역」은 홀로 월남한 내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오빠, 율케 등 가족을 그리워하는 서사다. 월남한 지 3년, 나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다. 나에게 서울역의 풍경은 “나와 똑같은 생활의 신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글우글 끓는” 장소다. 나는 그들과 자신이 동일한 처지에 있음을 인지한다. 나아가 나는 전차에서 젊은 여인을 보면 “해방이

니 삼팔선이니 고향이니 어머니와 조카들이니 하는 연상”을 하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그러던 중 나는 고향아저씨로부터 어머니의 부고소식을 듣는다. 아사餓死로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소식에 나는 “무겁고 고되게 슬픈 자기 집”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내 자신의 슬픔을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울음으로 치환한다. 열두 살 어린 소녀가 베 속바지에 감추어둔 물건을 잃고 길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나는 소녀가 겁탈당한 것이 아니라, “불행과 비애” 가운데 “물건을 잃었다는 것”에 통곡하였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자리를 뜬다. 소녀의 울음에 자신의 슬픔을 대입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월경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별해야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작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임옥인의 작품에서 해방의 기억은 집의 무너짐으로 서사화 된다. 집터의 상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했던 해방 전의 서사에서 벗어나 외부세계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기서 외부세계는 민족과 이념의 기치가 아니라,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여성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임옥인의 소설은 불구가 된 오빠의 부재를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그렇다면 해방 후 자기 정체성을 획득한 여성 지식인이 여성 하위주체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2. 생활의 파탄과 사적 경험의 공론화

이 절에서는 장덕조의 「저회低徊」(『연합신문』, 1949.1.30.-2.23), 「곤비困憊」(『국도신문』, 1949.8.8.-8.15), 최정희의 「봉수와 그 가족」(『풍류잡히는마을』, 아문각, 1949)과 「청량리역 근처」(『백민』, 1947.11)를 대상으로 지식인 여성이 사적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생활을 구축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32년 이태준의 추천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한 장덕조의 초기 작품은 주로 부부 갈등을 다루는데, 이때 주가 되는 것은 인물의 내적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외적 질투에서 오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sup>215)</sup>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장덕조의 작품은 여성의 내적세계를 치밀하게 추구하기보다 소극적 체념적인 특성을 보인다. 해방 후 친일이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장덕조는 반성하는 자아가 아니라 일제에 맞선 강인한 여성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은폐한다. 「함성」(『백민』, 1947.6.7.)이 그 예다. 이 작품은 식민지를 배경으로 일본 제국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남편과 이에 저항하는 아내의 구도를 통해 여성의 강인함을 표출한다. 무엇보다 작품에서 권력에의 저항이 여성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방 후 생활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 지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216)</sup> 이후 그는 「저회低徊」(『연합신문』, 1949.1.30-2.23)와 「곤비困憊」(『국도신문』, 1949.8.8.-15)에서도 남성의 부재로 인해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발현하게 되는 여성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15) 이에 대해서는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p.69-88 ;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장덕조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2012. 참고.

216) 김동현은 장덕조의 일제말기 협력소설과 해방 후 소설을 비교분석한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행로」(1944)와 「함성」(1947)의 차이에 대해서 전자가 “총후부인을 획득하면서 ‘국민’을 상상하고자 하였다면 후자는 비국민의 기억을 분유하면서 민족적 저항의 표상으로서 여성 주체를 상상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한다. 김동현, 「‘국민’의 상상과 ‘비국민’의 기억: 장덕조의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과 해방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 2012, p.48.

해방직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짊어지는 여성의 강인한 생명력은 해방직후 장덕조의 실제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장덕조의 남편 박명환의 선거 낙선으로 인해 장덕조는 생활의 궁핍함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저희」와 「곤비」가 연재되기 약 1년 전에 장덕조는 서대문 네거리에서 빈대떡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1948년 2월 25일 『자유신문』에는 「苦難을 克服한 ‘生の 快感’에 満足: 女流作家로 빈대떡장사 張德祚 씨問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는데, 기사에는 풍로 앞에 머리 수건을 쓰고 빈대떡을 부치는 장덕조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실렸다. 기자는 장덕조에게 장사의 근황과 동기 등을 질문하고, 장덕조는 개업한 지 열흘정도 되었고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 여섯도 거느리는 등 12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한다. 장덕조는 “이 일의 떳떳하고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표현한다. 해방 후 장덕조가 경험한 생활의 파탄은 그가 지식인으로서 해방의 정치적 대의보다 생활을 우선시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저희」의 주인공 정옥은 여학교를 나온 신여성이자 이북에서 선생을 하다가 남으로 내려 온 지식인이다. 정옥의 내적 갈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의 남편은 가정이 아니라 이념을 우선시 하는 인물이었다. 해방이 되고 함께 산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당의 지시로 남으로 간다. 정옥은 가족과의 “생활”을 제쳐두고 이념을 쫓는 남편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낸다.<sup>217)</sup>

위대한주의가 그 자신의 의의(意義)는 망각된채 대중앞에서 책략으로 쓰이는것을보며 정옥은 굳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 같은 실례는 얼마든지 있는것이였다. 석연치모한 깊은 회의가 언

217) 차희정은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서 가족과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모성성은 지배담론에 의한 위장된 형식의 여성성으로, 일제말기의 총후부인의 역할과 등가적 의미라고 지적한다.(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그러나 「저희」의 경우 생활에 대한 정옥의 입장이 해방 후 이념의 당위성을 쫓는 남편과의 불협화음에서 출발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나 그의 마음을 떠나지안았다. 그러므로 정옥은 지금껏 남편이 말하는 그강을건너서 그가직히고서있는 왼편언덕으로 옮겨갈 결의도 기력도 없었다.<sup>218)</sup>

인용문에서 보듯, 정옥은 개별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념을 거부한다. 정옥에게 이념의 절대적 진리를 내세우는 민족국가건설은 공동체의 의의가 아니라 한갓 “책략”으로 비취질 뿐이다. 그러나 정옥은 남편의 사상을 부정하면서도 남편이 월남한 며칠 후 “남편의 뒤를 따르는 듯한 마음”으로 남하한다. 이때까지의 정옥은 생활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부재한 상태였다.

서울에서 정옥은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친어머니와 자식을 돌보며 생활전선에 나선다. 그러던 중 만난 인물이 여학교 동창 영숙이다. 정옥은 편물 공장을 경영하는 영숙에게서 “남편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뭐 하나 신념 있는 생활을 본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며 영옥의 옆에서 그의 생활을 배워보기로 결심한다. 정옥이 영옥의 곁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본 것은 “인테리 근성을 배격”한 영옥의 태도였다. 자신이 남편이 지닌 이념에 대한 반동으로 터득한 ‘생활’에의 포지션을 그는 영옥을 통해서 어렵듯이 발견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옥은 빈대떡 장사를 하기로 결심한다. 빈대떡 장사로 생계가 안정이 되어가던 즈음 정옥에게 남편이 찾아온다. 4년 만에 보는 남편은 정옥을 찾아와서 자신과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한다.

정옥은 이같이 태연한 남편의 표정에서 또 하나 남성들의 숨은 얼굴을 본듯하였다.

방안에 아무도 없다면 덩굴면서 소리를 내여 울 것 같았다.

(중략)

“돌아가 주서요 당신과는 전연 반대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없나 봅니다.”

그것은 그 전에 남편과 헤어질 때 그의 입에서 들은 말이었다.

---

218) 장덕조, 「低徊 (5)」, 『연합신문』, 1949. 2.4.

정옥은 몇 해가 지난 지금 자기 입에서 이 같은 선언을 할 줄은 몰랐다.<sup>219)</sup>

정옥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이념을 따르라는 “남편의 표정”에서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발견한다. 여성의 자아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념과 사상의 절대적 진리를 강요하는 남편은 정옥에게 이제 부정의 대상이 된다. 남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옥은 결별을 선언한다. 해방 후 정옥의 내적 갈등은 이념의 당위성을 강요하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며 남편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것은 곧 ‘생활’의 발견과도 연관된다. 바꿔 말하면, 작품에서의 ‘低徊’, 즉 머뭇거림은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욕망하는 여성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결별한 후 정옥은 적극적으로 생활에 뛰어든다. 복종과 이념을 강요하는 남편과 결별하기로 결심한 후 정옥에게 있어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화된다.<sup>220)</sup>

‘생활이란 좀더 곤란하고 엄숙한 것이다. 내 조고만 자존심 허영이 반대떡 장수와 무슨 관련이 있었느냐.’

눈물이 핑 돌았다.

전에도 괴롭고 짐이 무거웠지만 앞으로 닥쳐 올 생활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가야 한다. 지긴 누가 지겠느냐. 나는 이겨야 한

219) 「低徊 (11)」, 『연합신문』, 1949.2.15.

220) 당대평가에서도 정옥의 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호평한다. “張德祚氏의 「低徊」(...중략...) 觀點을 달리 해서 男性들의 世界에다 돌려 놓고 學校 敎員으로 혹은 會社員으로 또는 우리와 같은 小市民으로서 어떤 親舊의 好意로 露店이라도 하나지어 가지고 무슨 담배나 菓子나 果物같은 것을 샀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處地와 資本을 거저얻고 몸소그일을 하기만하면 一定한月給을받는便보다 훨씬利得이 있어서 家率들을 거느리고 餘裕있는 生活을 할수있다고하면 직접팔을치걸고 나설수있는가 自問해볼 때 어쩐지 우리에게는 한참망서린뒤에 結局新聞社나 雜誌社 귀탕이에 매어달려먹으로 굶으려 사는일을 取하게된다. 정옥이 돼지기름과 녹두 냄새와 아모리돈에대한 必要性和 慾望이크다고해도 그것은 대단히어려운 일인同時에 精神上으로 偉大한일이었다.” 최태웅, 「最近 女流作品 金.張.林 三氏의 近作에 對하여 上」, 『경향신문』, 1949.4.20.



다.’

‘물 밖으로 뛰어나온 미꾸라지가 진흙 속에서 몸을 뒤틀며 꿈틀거리듯 결사적으로 온몸에 진흙을 묻히면서 나는 살아가리라’ 221)

“엄숙한” 생활과 마주하고 그 생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해방 후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저회」에서 생활의 중요성을 자각한 일련의 과정은 ‘회상’의 형식을 통해 서사화된다. 회상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 보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실과 그것을 보충할 ‘새로 만듦’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사후성의 특징을 가진 회상기억은 재생의 수동적인 성찰이 아니라 새로운 지각의 생산적 행위다.<sup>222)</sup> 정옥은 회상이라는 새로운 지각의 생산적 행위를 통해 현재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주요한 것은 회상을 촉발하는 행위다. 그 행위는 바로 한 가난한 여성과의 공감을 통해 이뤄진다.

빈대떡 장사를 하던 어느 날 정옥은 초라한 행색을 한 아이 엄마를 손님으로 받는다. 다른 가게에서는 거절할 손님의 행색이었지만 정옥은 “유순한 눈”을 보고 거절할 수 없어서 음식을 내온다.

엹혀 있는 어린 것이 어미의 잔등을 두다리며 울었다. 치마 끝에 매달려 있는 어린 것도 뛰어 오르며 뛰어 오르며 어미가 쥔 것을 빼스려고 악을 쓰고-. 그래도 여인은 목이 메도록 저 혼자만 먹었다. 조고만 한 조각 빈대떡은 순식간에 없어진다. (중략) 변명 같이 말하는 그의 입가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미소가 구슬으게 떠도는 것이었다.

‘가엾은 사람들, 배곯은 사람들.’

정옥은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손의 모양을 바라보며 저도 구슬은 웃음을 띄었다.<sup>223)</sup>

221) 「低徊 (1)」, 『연합신문』, 1949. 1.3.

222)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Erinnerungsräume*』, 변학수, 백설자, 채연숙 옮김, 경북대출판부, 2003, p.133.

초라한 행색의 아이 엄마는 아이의 배고픔도 잊고 자신의 배를 채운다. 구색한 변명을 앞세우는 아이 엄마를 보며 정옥은 그들의 가난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자신도 그 “구슬은 웃음”에 공감을 표한다. 남편과의 결별과 생활의 발전은 고달픈 삶과 애환을 마주한 여성과의 ‘공감’을 통해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 장덕조는 「저희」에서 하위계층으로 전락한 여성을 통해 해방 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구호를 강요하는 남성적 세계와 결별하고 생활의 애환을 짚어준 여성과 조응하는 공감의 정서를 재현한다.

「곤비」에서도 가난을 마주한 여성이 등장한다. 「곤비」는 「저희」와 서사적으로 유사한 지점이 많다. 주인공의 이름이 두 작품 모두 정옥이라는 것,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 이러한 서사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저희」에서 드러난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곤비」에서도 지속된다.

「곤비」에서의 정옥의 번뇌는 먹고 사는 문제다. 정옥은 세 아이를 키우며 부재한 남편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행상을 하고 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옥은 쌀을 꾸러 아래 동네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이네 집에 자주 드나든다. 정옥은 자녀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성이 아주머니의 마음에 동질감을 갖는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이 아주머니가 미국인 목사 집의 식모 자리를 알아봐 주는데, 조건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다. 정옥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온다. 며칠 후 다시 그 집을 찾아간 정옥은 성이 아주머니의 어린 막내딸에게 배부른 사람은 오지도 말라며 문전박대를 당한다. 정옥은 성이 아주머니와의 나누었던 모성성이라는 동질감이 한갓 사치였음을 깨닫는다. 이때 배고픔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당한 수모는 분노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몹시 지친 상태의 ‘곤비困憊’로 표현되는데, 이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가난은 공유할 수 없는 거대한 이질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23) 「低徊 (2)」, 『연합신문』, 1949.2.2.

장덕조는 「저희」와 「곤비」에서 생활의 궁핍함을 겪는 여성의 재현을 통해 해방 후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는 사적 영역 내에 은폐된 여성의 생활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해방 후 최정희의 소설도 소외된 여성의 생활 문제를 공론화한다.

해방 후 최정희는 1947년이 되어서야 작품을 발표한다. 1946년 3월 13일 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전조선문필가대회에 최정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가 실제로 거기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sup>224)</sup> 1946년 한 신문기사에서는 최정희가 “京慶線 德昭에서 農村生活”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sup>225)</sup> 당대 최고의 여성작가가 해방직후 바로 문단에 등장하지 않고 농촌생활을 한 이유는 일제에 협력한 이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이력은 해방 후 최정희의 작품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해방 후 백철은 기성문단을 평하는 자리에서 최정희를 “解放뒤에 와서 過去의 作品世界를 清算하고 좀더 客觀的인 現實을 그려보려고 努力하는” 작가로 평가한다.<sup>226)</sup> 이 글에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해방 후의 최정희의 작품세계가 변모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정희는 일제강점기 「흥가」(『조광』, 1937.4), 「정적기」(『삼천리문학』, 1938.1) 등에서 보여준 사소설적 수법을 해방 후에도 사용한다.<sup>227)</sup> 일제강점기와 소설작법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서술방식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최정희의 소설은 주로 사적 영역 내에서 지식인 여성의 내적 갈등을 서술하였다. 「흥가」에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지식인의 공포와 고통을, 「정적기」에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자신을 학대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제말기 총력전체제에 수궁하였던 「야국초」(『국민문학』,

224) 「全조선문필가대회 13일오후 1시: 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동아일보』, 1946.3.11.

225) 「그뒤의 女流文人」, 『경향신문』, 1946.10.24.

226) 백철, 「現狀은 打開될것인가: 주로 既成作家에 對한 展望」, 『경향신문』, 1949.1.12.

227) 일제강점기 최정희의 자전적 소설과 관련해서는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현대소설연구』 30, 2006. 6) 참조.

1942.11.)에서도 최정희는 작가 자신을 연상케하는 인물을 통해 군국어머니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식인 여성의 내적 갈등을 다룬다. 식민지시기 최정희가 자기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다. 여기에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보다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작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앞서있다. 반면, 해방 후의 작품에서 최정희는 지식인이 아닌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즈막에 와서 農村生活에서 얻은 材料를 몇篇간 썼다. (...중략...) 내가 여기와서 그들과 한가지로 살고있으면서 내눈앞에 쓰릿한 慘狀과 事實을 목도하면서, 그것들을 보아가는 사이에 내피가 뛰고 내뱃대가가만있으려들지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적지않고 있을것이나 말이다. 나는 社會主義도 아무主義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社會의 正義가 어떤것인가를 觀察하기에는 조금도 게으르지않겠다.(一九四八年 一月九日 德沼山家에서)<sup>228)</sup>

인용문에서 보듯, 최정희는 해방직후 바로 서울로 바로 올라오지 않고 덕소에서의 사건을 서사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상과 이념의 바깥에서 “사회적 정의”를 “관찰” 하겠다는 선언이다. 친일이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최정희가 해방된 직후에 바로 문단에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는 덕소에서 머무르면서 해방 후의 상황을 목도한다. 그 안에서 최정희가 발견한 것은 이념과 사상의 정권수립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이다. 앞서 임옥인이 가족과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면, 최정희는 외부세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간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내적 갈등을 겪었던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한다.

해방 후 최정희의 작품에서 작중 화자인 ‘나’의 서술은 실제 작가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sup>229)</sup>

228) 최정희, 「나의 文學生活 自叙」, 『백민』, 1948.3. p.47.

229) 최정희는 한 인터뷰에서도 “내 작품은 나의 신변 얘기”라고 고백한다. 최정희,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월간문학』, 1976.9, p.18.

해방 후 처음으로 나온 단편집 『풍류잡히는 마을』(1949)에 실린 「풍류잡히는 마을」 「우물치는 풍경」 「점례」 「봉수와 그 가족」 등의 배경은 모두 최정희가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생활한 덕소다.<sup>230)</sup> 「봉수와 그 가족」은 덕소를 배경으로 『풍류잡히는 마을』(1949)에서 반복되는 삼분병작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청량리역 근처」에서는 작중화자 나가 청량리에서 원주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해방 전과 후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동리는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1947)에서 최정희의 작품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씨의 作品의 主人公은 모다가 女性이요. 女性 가운데도 모다가 不幸한 女性들이다. 아니 不幸하다기 보다는 괴롭고 슬픈 女性들이 그 괴로움과 슬픔이란 女性이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요 女性이기 때문에 있는 슬픔이란 것이다. (...중략...)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氏가 겪는 모든 슬프고 괴롭고 또 즐거운 事實들은 그의 어머니의 運命的發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략...) 더구나 氏의 지금까지의 모든 作品이 거의 自敍傳에 가까운 性格을 진여왔느니 만큼 앞으로의 氏는 얼마만한 眞實을 告白할만한 情熱과 勇氣와 意欲을 간직해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倫理와 道德을 우리에게 提供하게 될는지 期待하는바 많은 것이다.<sup>231)</sup>

김동리가 예로 들고 있는 작품은 해방 전 작품으로, 그는 최정희의 작품이 작가 자신과 어머니의 슬픈 운명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봉수와 그 가족」, 「청량리역 근처」 등의 작품에서 작가의 초점은 김동리가 언급한 작가 자신의 슬픈 운명이 아니라 생활이 파탄된 하층

230) 이병순은 『풍류잡히는 마을』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삼분병작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 인물 설정의 전형성과 에피소드 중심의 스토리 전개, 작중화자의 관찰자적 태도, 비장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결말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소설은 “자기복제소설”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한다.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해방기 최정의 소설 연구」, 『현대소설 연구』 26, 2005, pp.140-141.

231) 김동리,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 『문화』, 1947.7, p.47.

여성에게 있다. 해방 후 작가의 관심은 ‘자기’, 즉 지식인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 후 이념과 정치에서 주변화된 하층민의 ‘생활’ 문제로 모인다. 이중에서도 여성 하층민에 주목한 소설은 「봉수와 그 가족」과 「청량리역 근처」다.

최정희의 「봉수와 그 가족」은 『풍류잡히는마을』(아문각, 1949)에 실린 것으로, 최정희 자신은 이 작품을 1946년 8월에 창작하였다고 쓰고 있지만 당시 지면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당대 지면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봉수와 그 가족」은 최정희의 해방 후 첫 작품으로 그의 작품세계의 변모양상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봉수와 그 가족」은 징용 갔다 돌아 온 맏아들과 그의 처, 손자, 그리고 스물 두 살인 작은 아들, 노파의 이야기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가족에게 방 한 칸을 내준 작중화자 ‘나’가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맏아들을 대신하여 가장의 무게를 지닌 노파의 모습과 작중화자 나의 시선이다.

나는 노파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아래채를 빌려준다. 이들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은 징용 갔다가 돌아온 맏아들이다. 맏아들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쇠약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귀환한다. 노파 가족의 비극은 맏아들의 죽음에서 정점에 이른다.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한집 사람을 몰리우다니.... 참.....” 하였다. 내 말에 노파는 “남의 집이라 겁이 나서 그랬어요” 하고 소녀처럼 고개를 푹 숙여 버렸다. 또 말이 안 나왔다. 거저 노파의 씨물거리는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있으려니까 어느새 내 눈에도 눈물이 펑그르 돌았다. 내 얼굴을 보자 안심 되듯 노파는 씨물거리는 입을 겨우 벌려가며 “죽을 죄를 지었세요. 거저 용서해 주시오” 하고 애원하였다.<sup>232)</sup>

맏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는 나에게 노파는 맏아들을 잃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기보다 사죄를 고한다. 노파는 맏아들이 징용에 끌려간 후 쇠약한 몸으로 돌아와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

---

232) 최정희, 「봉수와 그 가족」, 『풍류잡히는마을』, 아문각, 1949, pp.155-156.

에 대한 부당함도 슬픔도 호소하지 않는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노파는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노파는 희생자에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해 항의할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하위 주체 subaltern인 것이다.<sup>233)</sup>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의 말할 수 없음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다.<sup>234)</sup> 그에 대한 답은 시점에 있다. 최정희는 작가 자신과 작중의 지식인 ‘나’의 발화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택함으로써 해방 후 하위주체의 말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노파의 가난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물은 바로 지식인 ‘나’다. 지식인 화자 ‘나’는 하위주체를 계도하는 매개자가 아니다. ‘나’는 노파 가족의 비극을 관찰할 뿐이다. 이병순은 최정희의 해방 후 대부분의 작품이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한 작중화자가 전해들은 ‘소문’으로 전개” 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한다.<sup>235)</sup> 관찰자 시점은 해방 후 최정희

233) 서발턴subaltern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하급 장교이다. 그람시는 이를 차용하여 『옥중수고』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하급자subordinate’를 사용하는데,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 없는 인물로 국가의 지배적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한다. 스피박은 그람시의 용어를 참조하여 종속적 위치에 있는 서발턴의 의미를 강조한다. 특히 스피박은 발화와 권리를 박탈당한 제3세계 하층 계급 여성에게 나타나는 서발턴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스피박의 대답The Post-colonial critic』, Sarah Harasym 편저, 이경순 옮김, 갈무리, 20016, p.318; Stephen Morton, 『스피박 넘기Gayatri Chakravorty Spivak』, 이운경 역, 엘피, 2005. pp.24-25. 참조.

234)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Subaltern Speak?」(1988)라는 에세이에서 서발턴이 담화를 실천하는 곳은 인식소episteme의 폭력에 의해 인종-계급-젠더가 중층결정되어 있는 발화공간으로 그들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서발턴을 표상불가능한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하위주체의 해방가능성을 봉쇄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후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의 논의가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고백하며 서발턴이 침묵당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추적한다. 이때 스피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Gayatri Chakravorty Spivak,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태혜숙 역, 갈무리, 2005, pp.426-427.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17, 2012.5, pp.51-56. 참조.

의 전략적 서술방법 가운데 하나다. 관찰자 시점은 주요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세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서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순은 「봉수와 그 가족」이 “창작노트수준”이라며 주요 분석 작품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지만, 해방 후 처음 집필한 「봉수와 그 가족」은 최정희가 관찰자 시점을 서술전략으로 선택한 이유와 해방 후 최정희의 작품세계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다.<sup>235)</sup> 이러한 모습은 만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지게 장례식 장면에서 부각된다. 작중 화자는 노파 가족을 보고 “내가 보아 온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나는 노파의 가난한 삶과 기구한 운명을 측은하게 여긴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노파의 만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만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는 노파의 가난의 굴레와 작중화자 나의 위치가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게에 짐머진 두대의 소나무에 엮어 맨 시체(屍體)가 분명히 보였다. 까딱하면 내 몸에 시체의 일부분이 닿을 수 있었다. 지게는 말없이 내 앞을 지났다. 마당에 둘러선 세 그림자는 그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 있었다.

지게는 사립문을 나갔다. 나가다가 사립문 부출에 걸렸다. 나는 나도 모르는결에 달려갔다. 가서 시체 엮은 소나무를 밀러 사립문 부출을 잡아다니며 하였다. 시체의 발이 내 손에 닿는 것을 알았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송장도 엠병도 무섭지 않았다. 가난과 무지가 빚어낸 세계에 유례없을 지게장 예식 앞에 나는 거저 침착해질 뿐이었다.<sup>237)</sup>

엠병으로 죽음에 이른 장남이 지게에 실려 나가는 장면은 가난과 무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의 비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식인 나는 병든 귀환자 만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235) 이병순, 앞의 논문, p.135.

236) 위의 논문, p.136.

237) 「봉수와 그 가족」, p.158.



않는다. 단지 그 지계 장례에 동참할 뿐이다. 나는 유례가 없는 지계장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말할 수 없음을 대리 표상한다. 지식인 나는 하층민의 반항과 저항을 촉구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박은 힘을 박탈당한 집단을 일관된 정치적 주체들로 구성할 때, 미학적 표상의 과정은 그들을 대신 하여 말하는 정치적 대리인의 목소리에 종속된다고 비판한다.<sup>238)</sup> 그런데 「봉수와 그 가족」에서 지식인 나는 노파에게 어떠한 행위도 저항도 촉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에 묵묵히 동참하며 그들의 침묵하는 목소리를 독자에게 ‘보여’ 줄 뿐이다. 하위주체인 노파의 ‘말할 수 없음’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지식인 나는 관찰자의 시선을 견지하며 노파의 가족의 삶을 담담히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침묵된 ‘목소리-의식 voice-consciousness’을 드러낸다.<sup>239)</sup> 즉, 최정희가 선택한 관찰자의 시점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청량리역 근처」에서도 하위주체의 모습을 관찰하는 작중화자가 등장한다. 이 작품은 작중화자인 나가 서울에 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청량리 역에서 원주행 열차를 기다리며 겪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 콩트다. 「청량리역 근처」에서는 가장의 부재는 서술되고 있지 않지만, 해방 후 관찰자의 시점을 차용하는 최정희의 작품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고찰할 수 있다. 해방직후 최정희의 작품이 대부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청량리역 근처」는 거의 유일하게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작중화가 나가 서울에서 포착한 것은 대합실 여기저기 “거적대기 우에서”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전재민이다. 전재민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근처에는 각종 오물냄새가 진동하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차표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마침 라디오에서 소학교 때 들은 노래 <금수의 강산>이 흘러나온다.

금수의 강산에서 내가 자라고

238) Stephen Morton, 앞의 책(2005), p.112.

239) Gayatri Chakravorty Spivak, 앞의 책(2005), p.383.

무궁화 화원에서 꽃피려하는  
배달의 어린동모 노래 부르자  
세상에 부러울 것 무엇이냐<sup>240)</sup>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는 노래를 들은 나는 청량리역 근처에서 보았던 광경을 금세 잊어버린다. 나는 노래를 듣고 “양손을 빼언쩍 들어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라고 말하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러한 해방의 감격도 잠시 나는 다시 청량리역 근처에 보았던 것과 유사한 혼돈과 가난의 흔적을 본다. 그 사건은 바로 한 소녀의 도둑질이다.

나가 기쁨과 환희에 빠져있는 그때, 나는 자신의 앞으로 소녀 셋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결사적으로 뛰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 중 한 소녀가 양복쟁이에게 붙잡히는 데 잡힌 소녀는 치마폭에 담은 숯을 내어놓고 서럽게 우는 것이다. 양복쟁이는 숯을 흠쳐 달아난 소녀를 구둑발로 차고 소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소녀의 모양이 더 인상적이였다” 라고 말할 뿐이다. 나의 시선은 소녀에 대한 동정도 감정이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소녀의 모습을 관찰한다. 소녀를 폭력에서 구해준 것은 또 다른 양복쟁이다. 그 양복쟁이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숯을 가져간 경유를 묻자 소녀는 숯을 팔아서 쌀을 사려고 흠쳤다고 말한다. 배가 고파서 쌀을 흠쳤다는 소녀의 말에 주위사람들은 남의 일 같이 앓으며 소녀를 두둔한다. 나는 “그제서야 잠잠히 구경만 하고 있든 축들이” 나선다고 말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금수강산>의 가사를 생각한다. 「청량리역 근처」는 한 소녀의 도둑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자유는 도래하였지만, “삼천리 무궁화 동산”의 안녕과 평화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폭력을 당하는 소녀를 바라보는 구경꾼 중에 ‘나’도 있다는 것이다. 「청량리역 근처」 역시 「봉수와 그 가족」에서와 마찬

240) 최정희, 「청량리역 근처」, 『백민』, 1947.11, pp.68-69.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여성 하위주체를 ‘보여’ 줄 뿐이다.

최정희의 해방 전 작품이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여성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면, 해방 후 작품은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들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 최정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차용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최정희는 하위주체의 말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적 경험 내에 갇힌 여성의 생활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족주체에서 배제된 여성 하위주체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에 의하면 빈곤이라는 사태는 재화의 결여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deprivation로 파악되어야 한다.<sup>241)</sup> 공적 대의가 최우선시 되었던 해방 후의 상황에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성 하위계층은 국가재건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들이었다. 장덕조와 최정희는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공감과 관찰을 통해 사적 경험 내에 있던 그녀들의 생활을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배제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들’의 생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역시 해방 후에는 긴요한 문제였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241) 齋藤純一-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公共性』, 류수연, 윤미란, 윤대석 역, 이음, 2009, p.87.

### 3. 섹슈얼리티의 공론화와 여성 연대의 가능성

이 절에서는 김말봉의 「佳人の 市場(화려한 지옥)」(『부인신보』 1948.7.1- 1948.5.8.)을 대상으로 공창제폐지라는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 연대가 모색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sup>242)</sup>

해방 전 「밀림」(『동아일보』, 1935.9.26.-1938.2.7./1938.7.1.-1938.12.25.)과 「찔레꽃」(『조선일보』, 1937.3.31.-1937.10.31.)으로 이름을 알린 김말봉은 통속작가 또는 대중소설의 논의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백철은 “순수하게 흥미 중심의 통속성을 갖고 등장한 것은 김말봉이 처음”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김말봉을 1930년대 통속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한다.<sup>243)</sup> 통속소설이라는 것은 당대 역사와 정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저널리즘의 대두에 편승하여 흥미위주로 쓰인 작품으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를 부정하는 것과 달리 김말봉은 자신이 통속작가라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sup>244)</sup> 임화에 의하면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은 시국적 상황으로 인한 예술소설의 위기에서 배태된 것으로 작가의 정치적 자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통로였다.<sup>245)</sup> 김말봉이 자신을 통속소설작가로 당당히 내세우면서 문단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국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말봉에게 붙은 통속작가라는 레테르는 그를 1930년대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

242) III장 3절은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43) 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63, p.343.

244) “「찔레꽃」을 通俗小說이라 한다면 作者金末峰氏는 다른 作家들과 같이 通俗小說이란 말에 氣分을 傷하거나 남으랴 분이 아니오, 快히 그곳에 自處할 분이다. 通俗小說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에 甘受하며 거기에 自處하고 通俗小說을 쓰되 天地人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許하는데 金末峰씨의 達觀이 엿보인다. 우리 文壇에 新聞畫載小說을 쓰는 作家는 大概, 그 通俗性에 대하여 自身の 非本意임을 辨明하거니와 金末峰씨만은 決코 그런 苟且한 辨明을 하지안코 眞心으로 通俗小說을 쓰고 本意로쓰고 天職으로 쓴 것임을 언제나 認定할뿐이다.” 백철, 「백 레뷰 金末峰作家著 「찔레꽃」」, 『동아일보』, 1938.12.29.

245)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을 가진 여성작가로 분류되기보다 박계주, 김래성과 함께 통속소설, 대중소설 작가로 논의되어 오게 했다<sup>246)</sup> 통속성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은 ‘반페미니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sup>247)</sup>

그러나 해방 후 김말봉은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는 여성지식인의 선두에 자리한다. 1946년 8월 10일 여자국민당, 애국부인, 동맹불교부인회, 천도교부인회, 대한독립촉성, 애국부인회, 부녀총동맹, 여자기독교청년회 등 14개의 부인단체가 해동역경원에서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하는데, 이때 김말봉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을 발기한 독립노동당부인회장으로 참가하여 위원장을 맡는다.<sup>248)</sup> ‘폐업공창구제연맹’은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 제정 이후 발전적 해소를 했지만, 폐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기들의 교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전개한 좌익연합단체다.<sup>249)</sup> 김말봉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으로서 해방 후 공창제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공창제폐지는 식민지시기에 시행된 법을 폐지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민족 주체에서 배제된 영역에 있던 거리의 여성을 신생조선의 구성원으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방기 조선에서 공창제폐지를 단행한 것은 미군정이었지만, 이는 조선여성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가능하였다. 미점령군(GHQ)은 일본에서 1946년 1월 ‘공창폐지’에 관한 각서를 발령하고 즉각적으로 공창제를 폐지했지만, 한국에서는 1946년 5월 ‘부녀자의 인신매매 금지법’을 공포했을 뿐 공창제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sup>250)</sup> 당시 몇몇 조선인들이 인신매매 금지법을

246) 이는 백철이 『신문학사조사』에서 김말봉을 ‘역사소설과 통속소설’ 항목에서 언급하고 ‘여류문학의 수준’에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7) 이호숙, 「대중소설의 반 페미니즘적 경향: 김말봉론」, 『페미니즘과 소설 비평:근대편』, 한길사, 1995.

248) 「廢業公娼救濟聯盟을 結成」, 『동아일보』, 1946.8.11.

249) 좌우익연합의 ‘폐업공창구제연맹’은 미군정의 좌익여성단체 탄압으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후 공창제폐지에 관한 문제는 미군정 보건후생부 산하 부녀국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양동숙, 「해방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2001, p.221.

250) 이선이, 「냉전기 동아시아의 ‘성’ 관리 정책 : 중국과 한국의 ‘폐창정책’ 비교분석」, 『여성학논집』 제24권1호, 2007, pp.215-216. 이선은 한

공창폐지로 받아들이자 러취군정장관은 자진하여 맺은 매춘은 인정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하였다.<sup>251)</sup> 그러자 1946년 8월 14개의 여성단체는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하고 즉각 공창폐지를 시행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결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군정은 다음 해인 1947년 8월 입법회의에 공창제도폐지령을 통과시키고 11월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하였다.<sup>252)</sup> 공창제폐지령은 미군정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아닌 조선인의 수용과 대응 속에 시행된 것이다. 환언하자면, 해방 후 민주주의의 열망은 여성의 권리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조선인들의 요구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제도가 공창제폐지라고 할 수 있다.

김말봉은 공창제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작품화 한다.<sup>253)</sup> 그 작품

---

국과 일본에서의 공창제폐지에 관한 미군정의 정책 차이를 일본의 특수위안부시설협회(RAA)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군의 성적유린에 대해 자국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RAA를 구성하고 여성들을 모집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반대 여론이 높아 철회되었다고 한다.

251) “婦女賣買와 其契約禁止법령 七十호는 부녀자의매매 또는 그 계약을 금지하고 기왕의것을 무으로하는 것으로 아직 공장을 없앤것은 아니다. 따라 매매에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나스는데에 대한 것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한다. 「러長官 發表」, 『동아일보』, 1946.5.29.

252) 그러나 1948년 1월 공창제 폐지법에 대한 재심의안이 제출되어 공창제 폐지가 효력을 발생한건 1948년 3월이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3조의 처벌조항과 제4조의 효력발생일이다. 논란 끝에 제3조의 처벌조항(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는 삭제됐고 효력발생일은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호, pp.227-228. 참고.

253) 김말봉의 『佳人の 市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 연구」,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박선희, 「〈佳人の 市場〉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54, 2012. ;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 ;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55, 2014.

은 『부인신보』에 1947년 7월 1일부터 1948년 5월 8일까지 총108회에 걸쳐 연재한 「佳인의 市場」이다.<sup>254)</sup> 「가인의 시장」에 등장하는 공창 폐지 위원장 정민혜란 인물은 작가 김말봉을 연상시킨다. 김말봉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주변화된 여성의 생활의 포착하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개선과 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김말봉이 위원장으로 있던 공창폐지연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기구제사업’이었다.

공창구제연맹에서는 百 만원의 재원을 세워 시내三個소에 수용소(희망원=希望園)를 설치하여 이곳에 二百명을 분할수용식혀 우선글을 가르키고 다음에 재봉요리법등을 가르키여 직업을 알선하는 일방의료기관도 완비시켜 성병도치료 건전한 결혼도 알선하게 되었다. 또 이외에 동원의 사업으로는 二十四만원을 계상하여 양돈(養豚)을 경영하여 차후에 경비에 충당하며 二萬三천원을 계상하여 원예부(園藝部)를 두어 원예일반지식도 취입시키기로 되었다.<sup>255)</sup>

인용문에서 보듯, 공창폐지연맹은 희망원이라는 재활원을 설치하여 공창에서 나온 여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이었던 김말봉은 희망원 설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sup>256)</sup> 이는 1948년 3월 김말봉의 근황을 전한 기사에서 기자가 희망원의 진행사항을 묻자 “시(市)에서 직일을맡겠다고 하니 한걱정 덜었다”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57)</sup> 당국에서 맡겠다고 한 희망원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이 시기 공창에서 나온 여성들은 ‘창기연맹’을 구성하였고 대표 3인이 시장을 비

254) 「가인의 시장」은 미완작품으로 1952년 단행본 『화려한 지옥』이 나오면서 개작·완성하여 출판되었다. 개작과 관련해서는 박선희, 위의 논문, 참고.

255) 「更生의 길로 引導 : 百萬圓財團으로 希望園을 設置」, 『동아일보』, 1946.8.11.

256) 김말봉이 사재를 털어 희망원에 준하는 ‘박애원’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김항명의 증언이 있지만 실질적인 기록과 자료는 없다. 김항명, 『MBC 여성실화 찰레꽃 피는 언덕 김말봉』, 명서원, 1976, p.433.

257) 「現役女人群의 푸로필 金末峰氏 公娼廢止聯盟委員長」, 『경향신문』, 1948.3.7.

룩한 시당국에 대책요구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임시거처에서 밥만은 먹여주겠다는 것뿐이었다.<sup>258)</sup> 공창폐지 후 사창의 증가를 가져 온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대책마련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의 어려움을 김말봉은 소설에서 상상적 재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가인의 시장」에서 주요서사가 희망원의 설립과 그 안착에 있다는 것은 공창폐지위원장이었던 김말봉의 초점이 주변화된 여성들의 사회적 복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당대의 주변화된 여성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또 공창제폐지운동의 전개양상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소설은 해방 후 처음 맞는 봄을 시점으로 창기인 오채옥이 황영빈의 아이를 배자 태아를 지키기 위해 일월루 유곽에서 도망쳐 나온 후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채옥은 정민혜를 만나서 “창기구제기관”인 “희망원”에 들어가기까지 온갖 수난을 겪는다. 사창을 경영하는 김황용을 만나 미군(흑인)에게 강간당하고, 식모살이로 들어간 국밥집 주인에게 유린당할 뻔하며, 황영빈에게 버림받는 등 그녀가 겪은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특히 김황용이 운영하는 사설유곽은 인신매매금지법 이후, 여성을 하녀나 식모로 데리고 있으면서 주로 미군상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해방기 미군정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곳이다. 흥도와 화자는 이 사설유곽에 몸을 담고 있는 여성들로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사설유곽장소에 관한 상징적인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해방 후 유곽에서 나온 채옥이 김황용에 이끌려 주로 미군을 상대하는 댄스홀에 갔다가 “괴물 같은 흑인”인 해리에게 겁탈당하거. 그 과정에서 “팔뚝에 걸친 여우목도리”와 “핸드백”을 빼앗긴 후 이 물건들이 “양갈보”로 불리는 화자에게로 넘어가는 사건이다.

식민지 시기의 창기였던 채옥의 물건을 빼앗아 ‘양갈보’인 화자에게 건네는 이는 바로 미군 해리다. 식민지 시기 서구의 물질적 욕망만을 쫓는 탕녀 이미지가 바로 이 “여우목도리”와 “핸드백”을 걸친 거리의

258) 「公娼制廢止란 虛名뿐 援護의손 緊要: 갈곳없는娼妓들市에抗議」, 『조선일보』, 1948.2.17.



여성이었다면, 이 이미지가 미군의 직접적인 힘의 개입으로 인해 ‘양갈보’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양갈보’라고 불리는 화자는 미군이라는 권력에 포섭되어 그들에게 육체적 쾌락을 안겨주는 수동적인 유희의 대상이다. 화자는 미군에게 초콜릿과 밀가루라는 식량을 제공받으며 자기의 생활을 오로지 미군에게 의지한다. 해방 후 새로 등장한 ‘양갈보’는 생활에 있어서는 무기력하며 성적으로는 무질서한 물질적 욕망만을 쫓는 타락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가인의 시장」에서 ‘양갈보’는 당대 사회를 오염시키는 여성해방의 훼방꾼으로 등장하여 소설 속에 나오는 여타의 여성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의 주체화 과정에서 배제된 자들로 형상화 된다. 그러나 ‘양갈보’에 대한 작가의 적대적 시선은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을 비도덕적인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선은 김말봉 개인이 형성한 것이 당대 사회적 인식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창폐지 후 미군을 상대하는 사창의 증가로 인하여 “공창제의 폐지로 이뤄진 여권회복”이 “「양갈보」라는 새로운 명칭”과 “‘깜둥이’ 고아의 발생 누른머리 ‘튀기’의 출현”으로 인해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논의는 당대 ‘양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드러낸다.<sup>259)</sup> 김말봉에게도 ‘양갈보’는 공창제폐지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존재다. 따라서 화자가 수동적이고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채옥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는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채옥은 8.15 해방과 함께 일월루라는 유곽에서 나와 처음으로 미군에게 농락당하지만 이를 뿌리치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이의 아버지인 황영빈을 찾아 도망간다. 황영빈은 황장로의 아들이자 대학 문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단체 간부로 해방이후 신생조선을 이끌어 갈 청년지식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자신의 쾌락과 물질적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다. 채옥의 아기는 황영빈에게 “매독과 임질 미균으로 범벅이 된 고기덩이”일 뿐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창기 채옥이 미군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신생조선

259) 「風紀篇: 寒心한 女權拋棄」, 『경향신문』, 1948.12.24.

의 청년에게도 거부당하며 내버려진다는 서사는, 결국 식민지로부터의 복구는 이들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초콜릿과 밀가루를 내밀고 여성을 농락하는 미군, 겉으로만 해방을 부르짖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청년은 모두 8.15라는 ‘해방’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식민지시기로 인해 온갖 “병균”을 안고 있는 채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왕의 연구들이 지적한 대로 ‘여성연대’를 통해 가능하다.<sup>260)</sup> 김말봉은 이 소설을 기획할 때부터 “우리여성”, “조선여인들만의 힘”을 누차 강조한다.<sup>261)</sup> 「佳인의 시장」은 해방기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여성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무엇인가, 즉 무엇을 통해 여성연대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연대는 공창폐지연맹위원장인 정민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창폐지연맹 위원장은 작가 김말봉이다. 정민혜에게 있어 채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민혜가 채옥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채옥과 나란히서서 옆으로뚫린 적은골목으로 들어가는 젊은여자는 공창폐지연맹 위원장 정민혜여사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조금전에 손성묵씨가 걸터앉았던 교의에다 채옥을 앉게하고 정여사도 마조 앉았다. 방금 시킴었게 부어오른 눈잔등이며 한편으로 비뚤어진입이며 피가 얼룩이져서 말라있는 코언저리며. 정민혜여사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학대받는 조선의 여인의 운명을 이 여인의얼굴에서 남김없이 보는듯하며 그는 호-하고 한숨을 뿔었다.<sup>262)</sup>

260)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 연구」.

261) 「오는 七月一日부터 長篇小說連載: 金末峰氏 「佳人の市場」 作者의말」, 『부인신보』, 1947.6.12.

262) 김말봉, 『화려한지옥』, 문연사, 1954, p.174.

정민혜는 길에서 김황용의 손에 이끌려 사창으로 넘어갈 뻔한 채옥을 구해준 후 그녀를 사무실로 데리고 온다. 인용문에서 보듯, 정민혜가 채옥에게 본 것은 ‘불온한 남성’에게 고통 받았던 흔적으로, 정민혜에게 채옥은 “조선의 여인의 운명”을 짊어진 여성이다. 따라서 채옥을 과거의 중압과 현재의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은 곧 여성해방의 정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민혜는 채옥을 자유롭고 해방된 미래로 인도해 주는 인물이다. 정민혜는 “채옥이 절박한 경우에 구원의 손을 내민” “오직한사람”으로 서술된다. 구원자로 등장하는 정민혜의 존재성이 채옥을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소설 속에서 정민혜는 “깨끗한 마음” “치녀다운 청초함” “청초한 인격의 향기”로 상징된다. 나아가 정민혜는 “하나님의 딸”로서 사회적 정의와 기독교적 윤리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자기 내에 완결되어 있는 실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는 완벽하고 부정, 갈등 없이 진행된다. 「가인의 시장」의 남성인물들과 달리 정민혜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는 창기를 구원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최초 여성 장로였던 김말봉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정민혜의 형상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기독교로 통합되는 여성연대를 모색한다.

오채옥은 정민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녀와 같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자 창기로 살았던 죄(罪)를 고백한다. “나같이 천하고 추하고 그리고 병든 몸”이라는 자기부정을 통해 채옥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성을 인지한다. 그 존재성은 가장 먼저 모성의 깨달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황영빈이라는 ‘불온한 남성’, 즉 해방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자의 핏줄이라는 점은 채옥을 다시 분열과 부정의 세계로 몰아넣는다. 이때 황영빈을 응징하는 인물은 백송희다. 백송희는 여대생으로 정민혜를 동경하며 학생단체간부 황영빈과 약혼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이 존경한 황영빈이 조흔한 처가 있으며 자신에게 매독이라는 성병을 가져다 준 것을 알자 백송희 자신을 “매독균으로 더러워진” 몸으로 규정하고 황영

빈을 권총으로 쏘 죽인다.

채옥은 황영빈의 약혼녀 백송희가 황영빈의 실체를 알고 그를 권총으로 쏘 죽이는 것을 목격한다. 그날 채옥은 조산하여 아들을 낳지만 “선천매독”으로 사산된다. 뱃속의 아기가 폐기됨으로써 채옥은 오히려 정민혜를 중심으로 하여 영매와 탄실, 그리고 백송희가 연대하고 있는 공창폐지연맹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채옥의 유산은 “괴롭든 과거 청산”이며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다. 채옥은 송희의 어머니가 기부한 700만원으로 세운 창기구제기관인 “희망원”에서 갱생사업을 통해 간호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한 가정의 주부”이자 “순결한 여인”으로서 재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옥은 비로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奉仕)”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된다.

창기구제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송희 어머니의 기부금 700만원의 역할이 크다. 사실 700만원의 기부금은 1948년 2월 14일 공창제 폐지가 시행되기 직전 공창제 연장을 위해 ‘창기조합장’의 최씨가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로비한 사건을 「가인의 시장」에서 전유한 것이다.<sup>263)</sup> 소위 ‘7백만원사건’이라고 불린 이 일은 당시 민정장관 안재홍이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파문이 컸다고 한다.<sup>264)</sup>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7백만원 로비사건을 「가인의 시장」에서 창기구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유함으로써 김말봉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이 애초에 직업알선과 결혼알선을 통해 창기를 국가와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었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여성을 건전한 국민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것, 즉 여성의 연대와 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주의와 가족주의라는 점이다. 「가인의 시장」의 인물들은 기독교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딸”로서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정민혜를 필두로 영매, 탄실, 송희, 송희 어머니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오채

263) 「수수걱기의 娼妓組合手票: 公娼延長費 七百萬圓 어디로」, 『조선일보』, 1948.2.21.

264) 이나영, 「성매매 ‘근절주의’ 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한국여성학』 25, 2009, p.25.

옥의 갱생에는 정민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큰 작용을 한다. 오채옥이 정민혜를 만난 후부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 정선생님의 하느님 예수님” 이라고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연대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가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공창제폐지운동에서도 기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시기 조선에 온 미군 선교사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기반으로 음행과 호색과 방탕함을 경계하고 금주·금연·공창제폐지를 주장하는 절제운동을 벌였고, 공창제폐지운동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것이다.<sup>265)</sup> 해방이후 미국의 선교사들이 군청정 관리와 고문을 맡으면서 기독교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식민지시기 신사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개신교 예배당이 건립된 것은 해방 후의 사회문화적 기반에는 기독교(개신교) 정신이 중심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6)</sup>

따라서 여성운동가들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남녀평등과 문명국가를 내세운 미국이 여성운동의 최대과제였던 공창제폐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는 여성운동가 박인덕이 「민주주의와 조선여성」(『亞美理駕』, 1946.9)이란 글에서 “공창같은 것은 문명국에서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폐창에 적극이지 않았고 오히려 ‘양갈보’와 ‘헬로결’을 양산하면서 매매춘의 문제를 조장하였다. 문제는 공창제폐지를 위해서는 미군

265)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p.184.

266)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금주와 금연 등 절제주의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초기 미국선교사들이 남긴 유산이라고 이진구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방기 국영방송의 성격을 지닌 서울방송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형목刑牧제도를 도입하며,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제정하는 등 미군정 및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이진구, 「해방이후 남한 개신교의 미국화」,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292, 296쪽). ; 이밖에도 미군정 하의 조선인 유력정치인들이 대부분 미국유학파의 기독교신자였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남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고헥경, 박순천, 유각경 등 해방 후 여성정치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 했으며 김말봉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로였다.

정의 권력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가인의 시장」에서는 공창의 폐지와 승인을 둘러싼 미군의 양면적인 태도가 그려지고 있다.

「가인의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헬믹장군과 G대좌는 공창제폐지를 지지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여성연대의 장을 승인하는 미군으로 등장한다.<sup>267)</sup> 구체적으로 정민혜는 고 박사와 함께 헬믹장군을 만난다. 고박사는 1946년 창설된 부녀국의 초대국장인 고헌경 박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창제폐지는 부녀국의 주된 목표였다. 소설에서 정민혜는 미군정에 공창제폐지안을 제안할 때 고박사와 동행하며 미군정의 승인과 협조를 요청한다. 창기구제사업의 원조를 약속받고 손성묵이 백만 원의 기부금을 낼 때도 정민혜와 고박사 옆에는 이를 승인해 주는 G대좌가 함께한다. G대좌와 헬믹장군은 조선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흑인미군 해리는 조선여성의 순결을 유린하고 빼앗는 타락한, 부정되어야 할 존재로 그려졌다. 이처럼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는 여성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증하기도 했지만 여성의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미국문화를 극복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소설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모마리아로서의 ‘여성’으로 재탄생해야 함을 강조한다. 오채옥이 원했던 것, 정민혜가 가지고 있는 “처녀다운 청초함”이 바로 그것이다. 「가인의 시장」에서는 순결성이 여성을 여성 ‘들’이라는 여성의 범주를 지칭하는 하나의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결이 훼손당할 경우 여성은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있다. 가령 백송희가

---

267) 헬믹장군은 1947년 9월 조선주둔미군정장관 아서러취(Archer L. Lerch)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대리군정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우익여성단체는 미군정에 우호적인 태도로 그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령 1947년 9월 러취장관이 순직하자 부녀국 기관지 『새살림』에서는 1947년 11.12월호에 고헌경, 모운숙, 황애덕, 김말봉 등 여러 여성인사들이 쓴 「故-러취군정장관추억」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러취 장군을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쓴 인물로 평가하고 그의 죽음을 “어머니를 잃은 애기”와 같은 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헌경, 「故-러취군정장관추억」, 『새살림』, 1947년 11.12, p.7.

자신의 처녀성을 유린한 황영빈을 살해하고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송희 어머니가 칠백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희망원’을 설립하여 여성연대의 목표를 이뤘다는 점은 모두 백송희의 살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작품에서 순결에 대한 유린은 여성의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되며 남성에 대한 잠재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sup>268)</sup>

김말봉은 공창제폐지의 정당성과 주변화된 여성들의 그 성공적인 안착을 상상적으로 재현한다. 그는 기독교의 순결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여성 ‘들’의 범주를 구성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남성성을 거부한다. 동시에 순결주의를 통해 서구의 물질적 매혹과 그 물질 구현물을 생산해내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경계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 완벽한 결정체는 결국 ‘타락한 여성/순결한 여성’이라는 젠더이분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근대적 가족주의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공창제폐지운동과 희망원의 설립은 해방 사적 경험 내에서 논의되던 섹슈얼리티를 공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는 한편으로,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꿈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7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 여성작가의 젠더적 현실인식은 외부세계를 인식한 여성이 하위주체와 성매매여성 등을 예외화하지 않고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고 포섭할 것인가의 사유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락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268) 근대에서 정조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배태된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 여성 자신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연애소설에서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여성주인공, 순결을 훼손당한 여성이 남성에게 복수를 하는 행위가 독자에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논리가 그 예다. 이러한 남성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은 여성의 정조와 처녀성을 여성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기제로 정치화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木村淳子기무라 료코, 『주부의 탄생』, 이은주 옮김, 소명출판, 2013, pp.223-226.

#### IV. 전쟁에서의 젠더 위계질서의 동요와 현실 극복 의지

이 장에서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기 작품을 대상으로 국가이념의 권력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젠더 위계질서의 공고화와 그 불안정성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전쟁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질서에서의 성역할의 강화를 가져온다. 해방 후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목소리를 드러내던 여성의 행위는 전쟁기를 거치면서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거나, 내면으로 후퇴한다.

전쟁기에는 모든 공적/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국가는 ‘싸우는 남성과 출산하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공/사의 구분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공인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공적 대의에 참여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담론은 전쟁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버틀러에 의하면 반복되는 인용은 젠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규범을 생산하지만, 이 규범을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젠더체제를 이탈하는 잉여를 생산한다.<sup>269)</sup> 성역할의 분담을 강조한 주체화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성을 형성하지만, 성역할로부터 이탈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전쟁기 젠더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은 동시에 균열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작가가 장덕조와 손소희, 그리고 한무숙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여성/남성은 전쟁의 성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적 대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젠더 위계질서에 균열을 냄으로써 전쟁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

269) Judith Butler, 앞의 책(2016), p.362.



## 1. 동반자로서의 여성의 전쟁 참여와 죽음에의 애도

우선, 이 절에서는 장덕조의 「어머니」(『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젊은 힘」(『전쟁과 소설』, 1951), 「風雪」(『희망』 1953.2) 「선물」(『전선문학』 4, 1953)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여성의 동반자로서의 전쟁참여와 애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장덕조는 최정희, 손소희, 모운숙과 함께 도강하지 못한 잔류 문인이다. 이때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부역자로 분류되어 ‘적 치하 삼개월’ 동안의 일을 수기, 소설 등을 통해 고발한다. 국제보도연맹에서 발행한 『赤禍三朔九人集』(1951.4.)에 실린 「내가본 공산주의」에서 장덕조는 “恐怖와 戰慄와 殺傷으로 가득찬 生地獄이야말로 바로 共產主義世界”라고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이밖에도 1951년 5월 중군기자로서 『전선문학』에 글을 발표하며, 강연회 소설 낭독, 문인극 참여 등 적극적으로 반공활동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장덕조는 부역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배이념에 협력함으로써 문학제도 내에서의 자기 위치를 명확히 한다. 1945-1949년의 남성의 종속에서 벗어난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하위계층과의 공감적 정서를 보였던 장덕조는 전쟁기를 거치면서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재현하는 여성작가로 변모한 것이다.

전시체제는 인적 자원의 고갈로 여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이다. 하지만 전쟁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성은 전쟁이 끝나면 본래의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sup>270)</sup> 전시기의 여성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노동력을 입증하는 한편으로, 그 노동력은 다시 가정으로 회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전시기 여성의 노동력은 후방에서의 남성 노동력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장덕조의 서사에도 후방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머니」(『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는 과부 박진순 선생이 외

---

270) 若桑みどり와카쿠와 미도리, 『전쟁이 만들어낸 여성상 戦争がつくる女性像』, 손지연 옮김, 소명, 2012, p.47.

아들 종한이를 학도의용군으로 보내는 서사다. 여학교 공민선생 박진순은 외아들 종한이 학도의용군을 지원하였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중공이 침범을 해오고 UN군이 서울을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진순은 국가적 위기에 개인 사정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식을 받혀야 한”다고 결심한다. 박진순의 아들은 가족 구성원을 넘어 “대한의 아들들”로 환원된다. 그리고 어머니 박진순은 “모두 마음놓고 나가거라. 뒤에는 우리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도 후방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아들의 희생정신과 후방에서 아들을 전장에 바치는 어머니의 희생정신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구도는 전쟁기 동안 재산과 가족을 유지하며 적자의 체계를 견고히 한다. 「어머니」의 서사는 아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성적 이원론에 기반한 전쟁서사라고 할 수 있다.<sup>271)</sup>

「풍설風雪」(『희망』, 1953.2.) 역시 후방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다. 「풍설」은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는 혜정의 집에 김대위가 셋방살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사화한 것이다. 신혼인 혜정과 남편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묘사된다. 혜정의 남편은 군청 직원으로 오후 5시면 집으로 귀가하며 혜정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그려진다. 소설 초반부에 드러난 둘의 단란한 모습에서 전란의 흔적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혜정에게 자신의 친구인 육군 김대위가 건너방으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알린다. 김대위는 전선을 돌아다니다가 후방으로 전속되어 잠시 부부의 집에 머물기로 한 것이다. 혜정은 김대위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이 일이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혜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혜정에게 김대위는 바로 죽은 오빠를 상징하기 때문

271) 김양선은 장덕조의 일제말기 방송소설 「雨後晴天」(『방송소설명작작선』, 1943)과 「어머니」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제말기 친일논리와 한국전쟁기 반공논리가 유사성에 있음을 지적한다. 김양선,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의 형성」,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pp.347-349.

이다.

오빠전사(戰死) 비보(悲報)를 듣고 온집안이 수심에잠겨있을 때 죽은 오빠의 친구의 한사람으로 일부러 유족들을 방문하러온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수심에잠겨있는 집안이었으므로 할수없이 문앞까지 응대하러 나갔던 혜정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오빠의 친구를 보자 참새처럼 오돌오돌 떨었다. 지금 김대위를 볼때마다 마음이 가지고 친절하게 되는 것도 남편의 친구라는 이유밖에 죽은오빠의 냄새를 이 젊은 군인에게서 맡게되는 때문인지도 몰랐다.<sup>272)</sup>

남편의 질투와 시기심은 혜정에게 어떠한 갈등도 혼란도 일으키지 않는다. 혜정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전사자 오빠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혜정의 사랑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전사자 오빠다. 오빠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오빠를 대신하여 오빠의 친구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면, 김대위는 강건하고 강직한 군인으로 전사자 오빠와 동일시된다.

혜정이 김대위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진다. 혜정이 몹시 아픈 날, 혜정은 김대위의 간호를 받는다. 그날따라 유독 일찍 온 김대위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내일 전선으로 떠난다는 것이다. “후방이 싫어졌습니다. 군인은 역시전선에 나가싸워야 할것같아서 내가지지원했지요.” 라는 말에 혜정은 오빠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기억을 떠올린다. 장덕조의 전시기 소설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은 전장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강인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전선으로 자진해서 가기를 희망한다. 여성 주인공은 강인한 남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한다. 반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있는 남성은 서사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풍설」의 남편은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인 인물이다. 퇴근한 혜정의 남편은 혜정과 김대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경위

---

272) 장덕조, 「풍설」,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자료집』, 구명숙 외 편저, 역락, 2012, p.438.

도 묻지 않고 혜정을 뺨을 때린다. 혜정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오해를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김대위의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결코 인생을 추악하게 생각해서는안되네 자네 결혼하더니  
어째 마음이 변했나”

어느듯 혜정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느껴울고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김대위에게-아니 오빠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살려고한 모든 젊은영혼들에게 보내는 찬탄(讚嘆)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른다.<sup>273)</sup>

김대위가 전장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혜정의 감정에서 남편은 부재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선으로 향하는 남성은 용맹하고 고매한 남성이자 오빠와 동일시되는 인물로 혜정은 그러한 남성에게 절대적인 신의와 찬사를 보낸다.

「어머니」와 「풍설」이 전선으로 향하는 남성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전형적인 전쟁 젠더 서사를 반복함으로써 전쟁의 젠더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소설이라면, 이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젠더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소설이 있다. 바로 「젊은 힘」과 「선물」이다. 「어머니」와 「풍설」에서 여성은 후방에서 전쟁에 참여한다면, 「젊은 힘」(『전쟁과 소설』, 1951)에서는 여자의용군에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이 등장한다. 그 여성은 T물 주식회사의 딸 미혜다. 미혜는 여학교에서 제일 처음 사귄 고정숙의 집에 갔다가 그의 오빠 정훈을 만난다. 그 후 둘이 다시 만난 것은 피난지 대구다. 정훈은 그사이 육군중위가 되어 있었다. 9.18이후 미혜의 집안이 서울로 다시 올라가면서 둘의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미혜의 부모는 서울로 가면 다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급하게 상경한다. 그러나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망연자실한다. 미혜의 부모가 다시 힘을 찾은 건 의사로부터 미혜의 흔처가 들어온 이후이다. 정훈을 사랑하는 미혜는 결혼을 망설이고, 그러

---

273) 장덕조, 「풍설」, 구명숙 외 편저, p.441.

던 중 중공군으로 인해 미혜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대구로 피난길에 오른다.

「젊은 힘」의 시공간적 배경은 전시기의 국군의 후퇴와 전진의 경로와 일치한다.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이 국군의 경로와 동일시됨으로써 미혜의 내면 역시 국가적 대의와 동일시된다. 대구 근처로 다시 피난 온 후 미혜는 굳은 결심을 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정훈에게로 간다. 그리고 미혜는 정훈이에게 여자 의용군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여자 의용군을 지원할 작정입니다. 아버지가 글썄 인철을 병역회피  
식히느라 가진수단을 쓰구 계시니 그걸시정하기 위해서라두 제가 나가야죠<sup>274)</sup>

미혜가 여자 의용군을 선언하게 된 계기는 강인한 용사 정훈이라는 남성 매개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훈만이 그 동기가 된 것은 아니다. 인용문에서 보듯 미혜는 병역 회피를 시도하는 남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의용군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전쟁 서사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감이 있고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수한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훈이 그런 남성이라면 미혜의 남동생 인철과 부모님은 나약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미혜는 나약한 남동생을 대신해서 건장한 남성과 함께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국가의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선물」(『전선문학』 4, 1953.)은 아들의 소집장을 받은 어머니 박 간호부장과 전선으로 출동 할 남성과 교제하는 젊은 간호부 오은희의 서사다. 박 간호부장의 서사는 「어머니」, 오은희의 서사는 「젊은 힘」의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다. 작품은 며칠 후 전선으로 출동할 연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오은희의 서사로 시작한다. 오은희는 “남자의 가슴에 분명히 남을 수 있는 정신적인 그무엇”을 선물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때 박 간호부장이 다가와서 아들 현식에게 소집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274) 장덕조, 「젊은 힘」,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p.136.

전한다. 은희는 출정을 앞둔 자신의 연인을 생각하며 박 간호부장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 끼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하며 은희는 여태 멀리 있던 간호부장과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진 것을 느낀다”라는 서술은 전선으로 향하는 남성을 지지하며 후방의 여성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퀸스는 전쟁을 적대적 ‘정치적 집단’들 사이에 무력이 행사되는 것임을 명시한다.<sup>275)</sup> 이때 주요한 것은 집단을 형성하는 기제다.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1951), 박영준의 「용초도근해」(1953) 등의 남성작가의 전시기 작품에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적의 ‘적대적’ 이미지이다. 적의 적대적 이미지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학살”(『영원히 사는 것』)하는 것으로 또는 “더러운 것”(「용초도 근해」)등으로 표상됨으로써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한다. 반면 장덕조의 경우 전선으로 나가는 남성에게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여성연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물」에서의 여성연대는 후방에서 전장의 여성으로 나아가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자식은 내놔야한다’

박부장의 눈 앞에서 확대되던 문자는 불빛처럼 점점 힘을 더하여 거부(可否)의 여지도 없이 그를 휩싸가려한다.

조국!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힘이였다. 박부장은 무기력해진 자기 육체의 힘이 오히려 그 큰 빛의 기세에 격일 것을 두려워하듯 굳게 목책(木柵)을 휘여 잡았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비장한 표정으로 은희를 돌아 보았다.

“오간호, 좋은 선물을, 정말 좋은 선물을 발견했어”

“네?”

“우리 저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안될테야. 그것두 전선에서 응” 276)

275)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8.

276) 장덕조, 『전선문학』 4, 1953, p.88-89.

아들, 연인을 전선으로 보내는 박 간호부장과 오은희는 간호장교에 지원함으로써 용맹하고 고매한 정신으로 표상되는 전선의 남성과 함께 전쟁에 동참한다. 전장의 남성과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여성의 전쟁참여를 독려한다는 서사는 결국 국가이데올로기의 젠더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277)</sup>

조지 모스는 전쟁을 “남자다움으로의 초대”라고 명명한다. 사회는 전쟁을 통해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남성동지애homosocial를 회복한다.<sup>278)</sup> 남성다운 이미지를 통해 얻고자하는 효과는 명백하다. 강하고 굳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강인한 남성다움이 빛나도록 하는 단순한 후원자에 불과하다. 장덕조 역시 「어머니」와 「풍설」에서 후방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장덕조의 소설에서 여성은 국가에 헌신하는 남성의 이상에 공감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텍스트에서 여성은 나약한 남성을 대신하여 전투해 참여함으로써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일원이 되고자 한다. 즉 장덕조의 전쟁소설에서 여성의 역할은 후방의 여성을 넘어서 전장의 여성을 표상한다. 전장의 여성 표상에는 남성과의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여성과 전쟁에 관한 장덕조의 인식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글은 1952년 『전선문학』에 발표한 「군인과 여성」이다. 이 수필에서 장덕조는 전시기의 여성을 첫째 아들을 전장에 보낸 어머니, 둘째 상이군인과 결혼한 여성, 셋째 전쟁미망인의 유형으로 나눈다. 장덕조는 각각의 유형의 특이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세 분류의 여성이 처한 고난은 전장에 나간 남성과 동등한 고통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한다. 가령 첫

277) 김양선, 앞의 책, p.156.

278) 조지모스는 전쟁을 “남자다움으로의 초대”라고 명명한다. 그는 전쟁을 통해 남성은 나약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이탈하여 “청렴함cleanliness로 도약”한다고 말한다. George L. Mosse,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Nationalism and Sexuality』, 공임순, 박정수 역, 2004, pp.197-209.

번째 유형의 경우 군인이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苦鬪는 始作” 된 것으로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않는 苦鬪인만큼 더욱 뼈아픈 것”이라고 언급한다. 나아가 만약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왔을 경우 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諦念”에 이른다고 말한다. 장덕조는 이 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不幸이란 누구나 싫어하고 忌避하는바다. 그러나 그 不幸을 超越할수 있는 것이 諦觀이었다. 不幸을 超越하고 自己自身을 넘어서서 좀 더 높은 곳에 몸과 마음을 밝힐수 있는 것 이번 戰亂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女人들이 이 諦觀의 悟道에 達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겹다.<sup>279)</sup>

조지 모스는 전쟁 경험에 대한 신화와 전쟁의 실제 경험을 구별해야함을 강조한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참여자의 반응은 “불가피한 운명에 직면한 일종의 체념”에 가까웠으나 전쟁 신화는 이들의 체념을 강인한 남성성으로 전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전쟁 신화는 공포의 흔적을 없애주기도 하고 그들의 영광을 고양시킨다.<sup>280)</sup> 인용문에서 보듯, 장덕조는 전사자 어머니의 체념을 “諦觀”으로 서술한다. 이 ‘체관’은 “悟道”와 연결되면서 수행자의 고난과 깨달음으로 승격화된다. 요컨대 「군인과 여성」에서는 전장의 죽음과 폭력을 자아 극복과 동일시함으로써 전장에서의 죽음을 종교적 부활로 전치하는 신화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장덕조는 전쟁의 경험을 신화로 전화시킴으로써 전쟁에서의 고통과 혼란을 은폐한다. 두 번째 유형인 상인군인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동등한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것으로 서술된다. 상인군인과의 결혼을 사랑이 아닌 여성의 희생정신으로 언급하면서 상인군인의 희생정신과 아내의 결혼관을 동일선상에 놓는다.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전쟁미망인의 유형에 대한 언급이다.

1279) 장덕조, 「군인과 여성」, 『전선문학』 2, 1952, pp.27-28.

280) George L. Mosse, 앞의 책, p.199-200.



끝으로 지금 社會問題의 하나로써 가장 論義되고 있는 것이 軍人未亡 問題가 있다. 崇高한 精神으로 祖國守護와 全겨려를 爲하여 護國의 神이된 軍人의 未亡人들이 續續 轉落하고 있다는 것이다. 深刻한 社會問題를 打開할길이 없어서도 그렇고 孤獨에서 오는 虛無感에서도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하긴 一部面에서는 이에 對하여 어떤 指導方法을 計劃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으나 要는 쌀이고 나무고 一時的으로 補助해 주는것보담 戰死한 사람의 名譽保存과 산 사람들을 生活意慾의 高吹에 指導要點을 두어야한다.

살려는 意欲. 生命의 意志 人間의 無常을 깨닫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無常을 피뚫고 生命의 불은 猛烈히 타올을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前進하고 生長하여 살려는 底力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戰亂은 모든 女性들을 逆境으로 모라넣은 巨大한 怪物이었다.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 愛人을 잃은 處女 未亡人問題 모든 것이 結局은 커다란 社會問題에 結付된다.

흔히 女性은 弱한것이라 한다. 이 弱한 女性들을 위하여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社會의 善導가 있어야 하겠다.<sup>281)</sup>

이 글은 전쟁미망인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유형과 일치한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은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짚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유형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전쟁을 “거대한 괴물”이라는 서술하는 부분은 앞선 소설에서 고매한 정신을 소유한 군인을 예찬한 부분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설과 수필에서 언급한 여성의 처지와 상황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평등 전략이며 둘째는 애도의 감정이다. 첫째 평등 전략의 경우, 여성은 자신의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해체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동등해지려고 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인정하게 되는 모순과 역설에 빠진다. 해방 후 장덕조 소설의 경우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요컨

---

281) 「군인과 여성」, p.28.

대 해방직후 친일협력이력과 생활의 위기를 겪은 장덕조는 해방 후 발표한 「함성」과 「저희」, 「곤비」 등의 작품에서 나약한 남성 또는 이념을 강요하는 남성과의 결별을 통해 여성의 자아를 발견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전시기에도 「어머니」, 「선물」 등의 작품에서 전장의 남성과 동등한 국민의 의무를 행사하고 권리를 누리려는 적극적인 여성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전쟁이 ‘거대한 괴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전장에의 참여를 독려한 이유는 전시 공헌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평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애도 감정의 경우 죽음, 즉 상실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 장덕조의 전쟁소설에서 특이한 것은 전장의 남성과의 유대는 그들이 처한 죽음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문제의 해결이 곧 전장에의 후원과 참여로 이어진다. 장덕조는 「군인과 여성」에서 “군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예측해야 하는 일이었다. ‘죽음’이란 군인에게 있어 始요 終이다”라고 말한다. 장덕조에게 전쟁이란 ‘전쟁=죽음’의 공식으로 인지된다. 전술한 「풍설」, 「어머니」 등에서의 전쟁 참여는 죽음에 대한 애도에서 비롯된다. 바꿔 말하면, 장덕조의 전쟁소설은 군인의 죽음 즉 상실에의 경험을 일정기간 애도한 후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른 대상은 바로 국가와 민족이다.<sup>282)</sup> 「군인과 여성」에서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부각과 전쟁 후원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일종의 ‘체념’과 연결되고 이 경험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장덕조

282)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도와 우울은 모두 대상의 상실감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애도는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일정기간 동안 내투사한 뒤 다른 대상에게 리비도를 전화함으로써 대상과의 정상적인 관계성을 회복한다면 우울증은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에고로 퇴적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전화할 수 없다. 요컨대 애도는 정상적인 이별이 가능하지만 우울증은 애도가 실패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Sigmund Freud, 「애도와 우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옮김, 열린책들, 2004.

의 전쟁참여의식이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실에의 경험을 체관으로 승화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상실이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다. 장덕조는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의 고통과 죽음을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로 승화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장덕조의 ‘전쟁=죽음’의 인식과 애도의 방식이 반전反戰을 주장하는 휴머니즘론이 아니라 전쟁독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 2. 전장에 참여하는 남성의 히스테리와 여성의 응시

이 절에서는 한무숙의 「파편(破片)」(『피난민은 서글프다』, 1951)과 「김일등병」(『신조』, 1951.4)을 대상으로 전쟁으로 인한 남성 히스테리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전쟁을 부정하는 젠더적 행위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한무숙(1918-1993)은 1942년 『신시대』 현상공모에 소설 「등불드는 여인」이 당선되었지만,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1948년에 「역사는 흐른다」가 국제신보 장편소설에 당선된 이후다.<sup>283)</sup> 조남현에 의하면 한무숙의 「역사는 흐른다」는 조선의 근대사를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신성사(神聖史)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러한 신성사적 관점은 역사는 비범하고 자기희생적인 인물에 끝된다는 영웅사관과 연결된다.<sup>284)</sup> 장편과 달리 해방 후 한무숙의 단편은 영웅사관과는 거리가 먼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의 욕망과 갈등을 다룬 작품이 많다. 따라서 한무숙의 작품은 주로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sup>285)</sup>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는 심연」(1957), 「축제와 운명의 장소」(1962), 등 전후 작품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한무숙은 전쟁이전에 등단하여 전시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한 작가다. 등단초기 한무숙은 해방

---

283) 한무숙의 회고에 따르면 그녀의 첫 작품은 1942년 『신시대』 장편소설 공모에 입상한 「燈を持つ女(등잔불드는여인)」이다. 이 작품은 『新時代』가 주최하고 조선문인보국회가 후원한 「현상장편소설」로 한무숙은 2등으로 입선하였다. 2등으로 입선하였기 때문에 『신시대』에는 당선소식만 있을 뿐 작품은 소개되지 않았다. 1947년 11월에 부녀국 기관지인 『새살림』에 동일한 제목의 「등잔불드는여인」이 연재되는데, 이 작품이 1942년에 발표한 작품을 번역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새살림』에 실린 「등잔불드는여인」은 잡지의 소실로 인하여 네 편의 연재분만 확인가능하다.

284) 조남현, 「한무숙 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2.12, p.421.

285) 한무숙의 여성적 글쓰기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인복, 「한국여성의 생사관: 한무숙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아세아 여성 연구』, 숙명여대, 1978. ; 김종희, 「한무숙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여성인물의 성격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19, 2003. ; 임은희, 「한무숙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징후와 여성주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 2009.

후 여성의 삶에 주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란한 해방 후에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영경할머니(「내일 없는 사람들」, 『신천지』, 1949.11), 해방 후 남편의 사업성공으로 ‘홈 스위트’를 이루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남편의 외도로 갈등하는 명희(「수국」, 『희망』, 1949.12), 해방 전에는 신사참배를 해방 후에는 예수교가 된 처세에 능한 윤수 할머니(「삼층장」, 『혜성』, 1950.5) 등이 그 예다.

반면, 전시기 한무숙의 작품은 그의 작품세계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인 물에 초점을 둔다는 데 주목을 요한다. 이처럼 한무숙 작품세계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전시기 작품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86)</sup> 물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그가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등의 작가와 달리 전시기 두드러진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무숙은 개인적 사유로 우익의 편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두드러진 활동은 하지 않았다.<sup>287)</sup>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은 종군작가단으로 참여한 장덕조와 손소희의 작품군과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덕조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하였다면 한무숙은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전쟁에 호출을 받은 남성을 통해 전쟁의 균열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을 부정한다.

한무숙의 전시기 작품 중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것은 「파편破片」과 「김일등병」이다. 「파편」은 1951년 수도문화사에 발간한 『피난민은 서글프다』에 실린 작품이다. 『피난민은 서글프다』에는 「파편」과 함께 김광주의 단편소설 「이단」과 조연현의 수필 「해바라기의 생리生理」 등 총 3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 작품집은 서문에서 피난민의 서글픔을 미래에 대한 기약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피난 생활의 고단함을 극복하고 과거에의 향수에서 벗어나 전쟁을 숙명으로 받아

286) 한무숙의 전쟁소설 연구는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등과 함께 잠깐 서울에 남았던 작가로 언급되는 정도다. 한무숙의 전쟁소설에 관해서는 김양선, 앞의 책, p.346.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10, 2003. 참고.

287) 박정애, 위의 논문, p.72.

들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피난민은 서글프다』의 출간목적은 “새로운 희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88)</sup> 『피난민은 서글프다』의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글은 단연 조연현의 「해바라기의 생리」다. 조연현은 피난민은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조국”을 위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주의 단편소설 「이단異端」은 처자식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어머니를 두고 온 지식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든 살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매춘부를 보고 자신을 이단아로 지칭하는 서간체소설이다. 이는 회의적인 지식인의 포즈를 반성하고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집의 기획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 명의 작가 중 유일하게 여성작가인 한무숙의 「파편」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긍정적인 삶의 포착 등의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의 생리」와 「이단」과 달리 기획의도와 불일치한다. 오히려 「파편」은 ‘피난민의 서글픔’의 근본원인이 전쟁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쟁의 부당함을 폭로한다. 주요한 것은 이 소설이 전쟁의 폭력성과 부당함을 전쟁의 주체, 즉 가장家長의 일상성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부산에 피난 온 피난민 열세 대가 창고 집에 모여 사는 모습이 그려진다. 각 가정은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요 인물 박태현은 황해도 대지주의 외아들로 해방 후 서울에 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 생활의 궁핍함은 느끼지 못하

288) “오직 살아나야겠다는 一念에서 당황히 南쪽으로 흘러온 避難民신세—모든 것이 不備한 셋방살이, 數朔에 衣, 食, 主는 나날이 窮迫해질분이요, 철없는 어린것들도 눈치만이 남게되며, 한동이 用水에조차 神經이 날카로와진다. 저녁이되면 호소할바이없는 한숨이 이방문 저 창살에서 새어나오는 避難生活은, 眞情 서글피지기만 한다. 그래도 時間은 설새없이 흘러가며 「戰爭」은 時時刻刻 새로운面을 가져오고 있다. 多福하였던 前日에, 安樂하였던 내살림에對한 回想할餘裕조차 주지않으면서 急角度로 廻轉. 이미 「戰爭」은 우리에게있어 살기위한 嚴然한 生活이다. 그러므로 過去에對한 執着과 未練을 떨치고 나아가는者만이 「새로운 앞날」에서의 生存이 期約될찌니, 우리들 避難民은 밤마다 가슴을조리는 「서글픈 무엇이」 하루바삐 結末을짓고, 前進하는現實에 따라서야만 될것이야닐까? 새로운 希望에서, 새로운 살길을 찾아서.....” 首都文化社 識, 「序」, 『피난민은 서글프다』, 수도문화사, 1951.6.

였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생활을 모두 바꿔놓는다. 늙은 부모님을 서울에 두고 아이 셋과 아내만 거느리고 부산으로 온 후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창고생활까지 하게 된 것이다. 태현은 “위선자 냉혈한, 불효자—이런 자기정의”를 짊어진 소시민으로 피난지의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한 방에 기거하는 송서방은 피난 도중 다섯 살 된 아들 순길을 잃었다는 녀두리를 하며 부인과 함께 행상을 한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송서방의 녀두리에 걸으려는 동정은 하나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 그의 슬픔에 공감하기에는 자신의 생활이 고단하기 때문이다. 배노인은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인상을 주는 비극적 얼굴”을 지닌 인물이다. 그의 비극적인 얼굴은 두 아들이 각각 빨치산과 한국군에 소속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도 자본가 아버지와 정치적 사상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 김병민, 신혼부부 이상호까지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고난을 겪어지고 있는 이들은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곳이 무엇 따뜻한 한구석이리요, 여기는 다못 전쟁이란 선풍에, 뿔뿔히 흩어진 민족의 파편(破片)을 아무렇게나 쓸어 담은 구립스레한 창고—실질적으로나 상징적(象徵的)으로나 한 개의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윽고 자기도 역시 한쪽의 파편 완전체(完全體)의 파편으로 인간감정을 무시한 삶의 막다른 골목 생활을 잃은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289)</sup>

인용문에서 보듯, 이들의 고단한 삶은 파편화된 전쟁의 일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각자의 피로감에 묻혀 사는 이들은 전장의 남성의 용맹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전시소설에 보여 준 후방에서의 협동도 찾아볼 수 없다. 각자 자신의 생활과 생존에 몰두하는 그들은 전쟁으로 인한 패배감이 짙은 남성들이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 바로 이상호의 소집령이다.

289) 한무숙, 「파편(破片)」, 『피난민은 서글프다』, 1951, p.94.

여자같이 귀여운 이상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중략...)

“제이국민병 소집령을 받았어요”

하고 썩웃었다.

이때까지 아내에게는 말을 안했든지 새택은 그말을 듣자 무의식중에 한번 몸을 움쭉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짝 사라졌다.

밖에서 들어온 태현이가 심중한 표정으로 옆에와 섰다. 청년과 태현이는 이 전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통인 사실에, 원일인지 혼동한 모양이다. 경종을 들은 사람모양으로 우두머니 서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도 역시 해당자였던 것이다.<sup>290)</sup>

「파편」에 등장하는 남성은 전쟁으로 인한 피로와 패배감을 지닌 인물로, 이들은 타인의 대한 공유와 공감의 부재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듯, 소집영장을 받은 이상호를 둘러싼 이들은 전쟁의 두려움을 ‘공유’ 한다. 이는 이들 남성들의 파편화된 삶의 근원에는 전쟁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이상호의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여자같이 귀여운”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집장을 받은 이상호는 여성화된 이미지로 등장한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에 의하면 전쟁을 거부하는 남성 히스테리의 증상은 여성화된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sup>291)</sup>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남성동지애(homosocial)를 상징하는 전장의 남성이 여성이미지로 전유됨으로써 전쟁에 대한 반감과 공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파편」은 소집장을 받고 전장으로의 출격을 다짐하는 남성의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호출을 의심하는 남성의 내면에 초점을 둬서

290) 「파편(破片)」, p.116.

291)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은 남성히스테리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여자의 몰락”을 거부하는 증상으로 남자를 탈육체화하는 것, 자신이 ‘아들’로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증상 중의 하나는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남성히스테리를 인정한 최초의 형태는 전쟁을 거부하는 “전쟁경련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hristina von Braun, 『히스테리: 논리 거짓말 리비도 *Nicht ich: Logik, Lüge, Libido*』, 엄양선, 윤명선 옮김, 여이연, 2003, pp.332-338.



써 전쟁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한편, 「김일등병」 역시 이와 유사한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고아로 자란 일등병 영배는 전장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쳐 상이병으로 치료중이다. 영배에게 부상당한 그날의 사건은 “아무리 애를 써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모습은 “치료라는 두자로만 메구어 버”린 상태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부각시켜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요일날 병우들과 함께 나선 거리에서 들린 여성의 발화다. 영배가 병우들과 함께 여성들 옆을 지날 때 그 중 한 여인이 큰소리로 “난 훈장을 많이 찬 장군님을 보면 위압만 느끼지만 상이병을 보면 길가에서라두 절을 허구싶도록 지경과 친애와 그리고 눈물까지”라고 말한다. 이는 영배의 상처와 슬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요컨대 영배에게 여성의 발화는 전쟁의 폭력을 존엄한 행위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형용할 수 없던 두려움과 고통을 ‘치료’라는 두 단어로 압축해버린 현실에 대한 저항과 반항을 억누를 수 있는, 즉 불쾌의 감정을 쾌로 전화시킴으로써 전쟁의 이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영배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온다.

어머니도 누이도 없는 영배에게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흔적을 위로하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으로서의 영광의 기쁨을 안겨 준 한 여성의 발언은 이후 작품에서 영배의 ‘군인다움’ ‘남자다움’을 지탱하는 기제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성은 영배에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배가 그녀의 발화를 들은 이후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면회장이다. “까만 벨벳치마 한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고개를 개웃하며” “영배쪽을 응시”한다. 그때 영배는 여인의 표정을 자신에게 “호의에 차 있는” 것으로 읽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배 개인의 착각이다. 이는 내포작가가 여인의 표정을 ‘읽는’ 영배의 시선을 “가여비슨 김일등병! 그러면, 육군병원 면회인의 한사람인 다감한 처녀가 병원 안에 있는 점누른 얼굴을 상이병에 대할 때 다른 표정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였던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의도와 무관하게 영배는 그녀의 표정에 자신의 내적욕망을 투영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영배는 여인의 시선을 ‘호의’로 생각하며 상이군인인 “자신의 위치가 꿈같았다”라는 환영에 빠진다. 여기서 환영에 빠지는 주체는 영배지만 영배를 환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몽환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그녀다. 상이군인 영배는 묘령의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환상은 전쟁 수행의 명분을 제공한다. 「김일등병」에서는 여성의 표정, 여성의 발언이 바로 이러한 환상의 역할을 제공한다.

실상 전쟁에서 어머니 또는 아내로 표상되는 여성은 남성이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들 여성은 전장에 나간 남성이 보호하고 수호해 할 민족과 국가로 환원된다. 나아가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 전장에 나간 남성은 자신에게 닥친 죽음에의 공포를 은폐하고 명예로운 군인으로서의 자신을 위치시킨다. 「김일등병」에서 그녀는 영배의 불구의 육체를 명예로운 훈장으로 환치하는 환상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일등병」에서 이 환상은 영배가 자신의 모습을 여인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를 응시함으로써 깨어진다.

영배도 웃으며 같이 이러서 창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갑자기 험해졌다. 유리창은 지터진 박알어두음으로 거울같이 실내의 것을 비치는데 영배는 그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것이다.

눈등이 솟은 살룩한 눈 뉘뉘데한 코 이윽고 우둔한 두꺼운 입술, 좁은 이마에 난 여드름—순간 그는 허허 웃고 싶었다.

그는 이제야 까만 벨벳치마의 그 소녀가 자기에게 한뼘에 우물까지 지어 보인 이유를 알을상 싶었다.

검누른 얼굴을 하고 한 다리를 저는 상이병은 묘령의 처녀라도 서슴지 않고, 한뼘에 우물을 지어보일 수 있는 서글픈 영예를 진 존재였든 것이다.

수물한살의 젊음 이 어느 한구석에서 신음하였다.<sup>292)</sup>

---

292) 「김일등병」, 『신조』, 1951.4, 구명숙 외 편저, 앞의 책, p.544.

거울에는 여인의 시선을 통해 확보한 명예로운, 호의적인 상이군인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의 남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친숙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 ‘나’의 응시를 통해 두렵고 낯선 감정의 ‘기괴함uncanny’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sup>293)</sup> 그 기괴함과 마주한 순간 김일등병은 자신을 전장의 군인이 아니라 “서글픈 영애”를 짊어진 초라한 청년으로 인지하고 신음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는 해방과 민족의 대의를 위해 수행된 전쟁에 대한 환상이 걷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무숙은 「김일등병」에서 여성의 시선을 응시하는 남성을 통해 용기롭고 호전적인 군인의 상징성에 은폐된 전쟁의 폭력성과 개인의 몰락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한무숙이 전쟁소설에서 포착한 것은 남성의 내면이다. 그는 남성의 내면에 초점을 둌으로써 전쟁을 수행하는 강인한 남성이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남성을 재현한다. 이는 전쟁의 무의미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전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기 환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고발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93) 프로이트는 ‘uncanny’이 한편으로는 친숙하고 편안한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과 같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불편한, 낯선, 이질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괴함은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 섬뜩하고 낯선 느낌으로 다가올 때 발생하는 것이다. Sigmund Freud, 「두려운 낯설음」,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Der Humor*』,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pp. 100-106.

### 3. 여성의 우울증을 내면화하는 남성과 전쟁의 부정

이 절에서는 손소희의 「결심」(『적화삼삭구인집』, 1951.4), 「바다 위에서」(『신조』, 1951.6), 「그날에 있는 일」(『협동』, 1951.11), 「거리」(『전선문학』, 1953.5)를 대상으로 전쟁의 젠더위계가 우울의 정조를 통해 고발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손소희는 1946년 10월 『백민』에 「맥(貌)에의 메별(袞別)」<sup>294)</sup>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다.<sup>295)</sup> 이후 「도피」(『신문학』, 1946.11), 「탁류기」(『민성』, 1947.1), 「가두에 서는 날」(『부인』 1947.1), 「그 전날」(『문학비평』, 1947.6), 「이라기(梨羅記)」(『신천지』, 1948.4.5), 「현해탄」(『백민』, 1948.10), 「투전」(『문예』, 1950.4)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손소희 문학연구의 대부분은 전후시대 이후에 맞춰져 있다.<sup>296)</sup>

손소희의 초기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연인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방의 혼란한 현실을 드러내는 계열(「맥에의 메별」, 「이라기」, 「탁류기」)과 남성 주인공이 해방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배태되는 상황을 직시하거나 극복하는 계열(「도피」, 「가두에 서는 날」, 「현해탄」), 이밖에도 식민지에서 대일협력을 속죄하고 자살하는 남성 주인공(「그 전날」), 식민지시기 낭비와 투전을 하며 일제자본주의를 조롱하는 여주인공(「투전」) 등 다양한 계열의 작품에서 남/여 주인공을

294) 「맥에의 메별」의 표기는 논자에 따라 「貌에의 訣別」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발표 당시 『백민』에 실린 것을 따랐다.

295) 정영자에 의하면 손소희는 1939-1943년 만주에서 「고독」, 「북극의 겨울」, 「실제」 등을 발표하고 시인 김조규가 편집한 『채만조선시인집』(1942)에 시를 게재하였다. 정영자, 「손소희 소설연구」, 『수련어문논집』 16, 1989.

296) 손소희에 대한 단독 학위 논문은 석사논문 두 편이다. 이들 논문에서도 전후 이후의 소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초기 소설은 「이라기」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이지영, 「손소희 소설의 결말구조 연구」, 이화여대 국어국문 석사논문, 2004. 김희림, 「손소희 소설의 여성의식과 서술전략 연구」, 고려대 국어국문과 석사논문, 2013. ; 손소희의 초기소설 연구로는 조미숙, 「손소희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 2008이 있다.

세우며 해방 후의 역사를 포착한다. 이 시기 손소희 소설의 특징은 여성 작가의 특유의 내적 감정선을 드러내기보다는 해방이라는 현실의 혼란한 정치사회를 그려내면서 작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한다. 김양선은 손소희 문학이 초기에는 현실과 밀착된 현실직시의 소재를 다루다가 후반기부터 정념(情念)의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말한다.<sup>297)</sup>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손소희의 작품이 바로 1950-1953년 사이에 쓰인 소설이다. 손소희의 작품은 전쟁을 겪으면서 “정념의 문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한다. 잔류파인 손소희에게 한국전쟁은 상흔으로 기억되고 이후 그의 작품세계에서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요컨대 전쟁 이전의 손소희의 작품은 해방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주시하고 있다면 전쟁기에는 그 혼란한 사회상을 내면화하는 남/여 주인공이 등장한다.

전쟁 이전 손소희의 소설에서 젠더적 특징은 남/여 주인공의 포지션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남성주인공을 내세우는 경우는 주로 해방 후 정치적 포지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sup>298)</sup> 이때 여성은 해방의 대의에 참여하는 남성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주변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한편,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울 때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안정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의 갈등과 생활난에 주목한다.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손소희의 여성과 남성 인물의 관계가 변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의 정치적 동기를 촉발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균열과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우울증적 감정으로 포착한다.<sup>299)</sup>

297) 김양선, 「손소희론: 대륙의 정념과 현실직시」,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대한민국예술원 편, 대한민국예술원, 1991, p.665.

298) 이민영은 손소희의 「도피」에서 여성서술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국가 건설 담론에 호응하고 “국민 되기의 과정”을 서사화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되기의 서사: 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근대문학연구』, 2016.4.

299) 손소희의 전쟁기 문학연구는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어문학』 101, 2008.9), 엄미옥, 「한국 전쟁기 여성 종군작가 소설 연구」(『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10)가 있다. 김양선과 엄미옥은 손소희의 전쟁문학은 전쟁의 일상성을 다룬 것으로 노골적인 반공이념을 서사화하지 않은 작가로 평가한다.

잔류파였던 손소희는 1951년 4월 장덕조, 최정희와 함께 『적화삼삭구인집』에 공산치하의 일을 반성, 고백하는 「결심」을 실는다. 흥미로운 것은 장덕조와 최정희는 자기체험을 반성하거나 공산주의를 고발하는 수필을 쓰고 있다면, 손소희는 수필이라기보다 콩트에 가까운 소설을 썼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적화삼삭구인집』은 국제보도연맹에서 발행한 것으로 아홉 명의 문인이 ‘적 치하 삼개월’ 동안의 반공경험을 고발함으로써 이념적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글을 모아 둔 것이다. 이때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고백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적합한 장르다. 반면 소설은 허구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자기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적합한 장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화삼삭구인집』에 여타의 작가와 달리 그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에는 반공주의에 관한 그의 내적감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심」은 1950년 6월 28일 을지로 위로 탱크를 몰고 가는 공산주의의 행렬에서 시작한다. 피난을 가지 못한 영희는 어쩔 수 없이 조선미술가동맹에 가입한다. 미맹에 가입하자 그는 당으로부터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영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을 것을 결심한다. 공산주의는 억압을, 반공주의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은 이 시기 반공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척 구도였고 「결심」에서 손소희 역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희가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억압적인 권력구도 때문은 아니다. 영희는 “생리적으로 공산주의 싫고 거슬렸다.” 이러한 발화는 반공이데올로기의 내적원리를 정확히 보여준다. 한국전쟁 시기의 반공은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신념과 믿음을 요구한다.<sup>300)</sup> 그런 점에서 영희의 “생리적” 이

300) 지젝은 진리의 메커니즘은 믿음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카프카의 『심판』에서 신부의 말을 의심하는 K에게 신부는 진리는 그것의 합당함이 아니라 ‘그저 필연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명제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라는 발언은 당대 반공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리적”으로 치환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실상 어떠한 이성과 합리성을 지니지 않은 허구적인 논리라는 점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이는 반공문학에서 공산주의자를 ‘괴물’, ‘악’이라는 적敵의 이미지로 표상하는 것과 달리, 「결심」에서는 탱크를 몰고 가는 공산주의의 행렬을 “너무 초라한 행장과 지친 얼굴”이라는 자신과 같은 동질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포착하는 것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처럼 손소희는 영희라는 인물을 통해 반공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듯한 스토리를 구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적화삼삭구인집』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버림과 다시 국가로부터 자신의 ‘국민됨’을 입증해야 했던 잔류파로서 겪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의 흔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sup>301)</sup>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결심」 이후에 발표한 「바다위에서」(『신조』, 1951.6), 「그날에 있는 일」(『협동』, 1951.11)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바다위에서」는 삼백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위해 짐짝과 함께 이백오십 톤의 화물선을 타고 남하하던 중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특수한 단체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주인공 숙의 일가도 모 단체의 일원으로 배를 탔다. 사건은 출발한 지 두 시간 만에 일어난다. 남하하던 배가 갑자기 정거하자 어디선가 선장이

---

이 있다는 ‘믿음의 악순환’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당대 반공주의의 원리도 이와 유사한 구조에 있다.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p.77.

301) 손소희는 후에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3개월의 기억과 그 후 사상범으로서 조사를 받은 기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같은 좀생이들은 특별한 지위도 계급도 없는데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만 난리를 피할 수 있을지 그저 막연하기만 하였다. 그만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국군이 곧 반격해 올테니까 모든 시민은 서울을 떠나지 말도록 방송은 중용하고 있었고 비도 내리고 있었다. (...중략...) 목을 길게 늘이고 국군입성을 기다려 온 그 3개월 뒤 (...중략...) 나는 잔류파의 한 사람으로, 엉뚱하게도 박0길에게 검사 X씨와 함께 합동수사 본부의 넓은 널마루 층계를 그날은 두 번째로 걸어내려왔다.” 손소희, 「짐짝 속에 실려 다닌 1950년」, 『한국문단인간사』, 행림출판사, 1980, pp.166-167.

“괴뢰군”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배를 “괴뢰군”에게 데려간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며 배를 다시 인천으로 돌리자고 소리친다. 숙도 “괴뢰군과 결탁한 배”라는 소문에 휩쓸리고 살기위해서는 인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서사를 살펴보면 「바다위에서」는 반공이념을 재현한 소설로 읽힌다. 그러나 숙은 배 안에서의 소란과 혼동에 휩싸이면서도 “정말 괴뢰군과 결탁한 배일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이내 출발 당시 자신들의 모 단체에 소속되어서 배를 타고 남하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로 바뀐 배경에는 실상 “불과 두시간사이의 격량(格糧)에 시달린 나머지 배가 정거하였다는 사실과 막연한 공포와 결부된 불안”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개인의 불안이 집단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전파되면서 그 공포와 불안감을 “괴뢰군”이라는 적의 대상으로 치환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요컨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불확실한 감정을 “괴뢰군”이라는 실체로 환원시키고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고유한 의미로 만듦으로써 불확실한 공포의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sup>302)</sup> 숙이의 내면감정은 반공이념이야말로 허상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쟁의 명분을 앞세우고 인간애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선장이 원한다면 배를 인천으로 돌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미군의 배가 남하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때 사람들은 인천이 아닌 남하를 선택한다. 그러나 작은 배 안에 격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불안과 공포는 언제 되살아날지 모르는 일이다. 「바다위에서」는 쿤트 분량의 소설이지만, 갈피를 잃은 한국전쟁의 하에서의 대중의 피해와 반공이념을 이용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한편, 「그날에 있는 일」은 『협동』에 발표되었다가 1952년 『전선문학』 2집에 재수록된 작품이다. 「그날에 있는 일」에서 그 날은 작품의

---

302) 이러한 논리는 은유의 구조와 유사하다. 폴드만 은유란 허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사실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고유한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Paul de Man, 『독서와 알레고리 *Allegories of Reading*』, 이창남 역, 문학과지성사, 2010, pp.205-206.



문맥 상 1950년 6월 25일을 언급한다. 이 작품은 전쟁이 일어난 ‘그날’의 일상성을 서술하는 동시에 그 일상성에 내재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다룬다. “안락한 즐거움”의 공일을 보내며 남편을 기다리던 은숙은 웬 낮선 노인이 집안을 기웃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노인은 은숙에게 밥을 구걸하러 온 것이다. 은숙은 노인이 어울리지 않는 새 하얀 형짚에 밥을 주고도 이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반찬을 들고 노인을 쫓아간다. 노인을 쫓아 간 곳에는 그의 아픈 손자가 있었다. 노인은 부모 없는 아픈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지만, 도중에 돈을 잃어 버렸다는 사연을 은숙에게 들려준다. 가난한 조부와 손자의 애절한 사연은 은숙에게 공감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그저 흔히 있는 또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은숙은 노인을 동정하면서도 그 노인의 일은 당대 서울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두 부류의 청년을 만나는 데, 한 부류의 청년이 노인과 은숙에게 다가온 청년 둘이다. 청년이 다가오자 노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독사의 머리처럼 잔뜩 독오른 얼굴에 등등하게 살기”를 보이며 청년에게 “썩 비키지 못해!”라고 호령한다. 은숙은 조금 전까지 “순애 빠졌던 쪼그라진 노인의 얼굴”이 급변한 것을 보고 놀란다. 노인에게 닥친 불행은 우연히 만난 청년을 향한 적대적 감정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청년을 만나는데, 그들은 뼈라를 붙이는 이들이다. 뼈라에는 “북한 괴뢰군 남한 침입”이라는 붓으로 써내려간 글이 적혀 있었다. 은숙이 그 “글자들”에 “쇠방망이에 얻어 맞은 듯” 놀란 표정으로 뼈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은숙이 “유월의 햇볕” 아래 “한가로운” 날 겪은 일상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손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을 잃고 구걸하다가 우연히 만난 청년을 보고 돌변하여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노인과 북한군의 “침입”이라는 붓글씨가 “머릿속”에 떠올려질 때, 그 알 수 없는 공포는 은숙에게 전쟁의 일상성에 내재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날에 있는 일」이 전쟁 발발 당시의 일상성을 그리고 있다면 「쥐」는 피난지에서의 일상을 다룬다. 「쥐」에서 숙은 피란 중에 겨우

구한 다다미 여덟 장짜리 집에 붓짐을 푼다. 그곳에는 벽장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는 문이 없다. 그 문이 없는 쪽에 자꾸 쥐가 출몰하여 온갖 식료품을 분탕하고 두 아이를 쥐벼룩을 옮아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숙은 큰아들 영이와 쥐를 잡기로 한다. 쥐와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 더는 숨을 곳이 없어진 쥐는 유리창 가까이 달린 빨랫줄에 매달린다. 쥐는 숨을 할딱할딱한다. 그 모습을 본 숙은 영이에게 창문을 열라고 한다. 그 순간 쥐는 화살처럼 튕겨나가고 숙은 공산군에 잡혀간 남편을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공포와 방비에 몸부림치는” 쥐는 공산군에게 잡혀간 남편의 삶을 알레고리로 형상화한 것이다. 알레고리는 일상적인 것 속에서 꿰뚫어볼 수 없는 비밀을 간파하고 표현된 것에서 드러나지 않는 층위를 밝혀내는 수사적 장치다. 요컨대 「쥐」는 공포에 내몰린 쥐의 형상을 보는 아내의 시선을 통해 은폐된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의 층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손소희의 전쟁기 작품은 반공이념을 내세우는 국가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허구성의 메커니즘을 고발하거나 여성인물의 우울한 내적심리를 통해 전쟁기 일상성의 불안을 드러낸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내적심리는 전쟁의 대의를 수행해야 할 남성인물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거리」(『전선문학』, 1953.5)가 대표적인 예다. 「거리」 육군중군작가단이 발행한 『전선문학』에 발표되었지만 발표지의 성격과 달리, 피난지의 우울하고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를 독약마시는 그런 절박한 분위기”로 포착한다. 이러한 우울의 정조는 우선, 영식의 시선에 포착된 정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황혼이 나릴 무렵이라 제법 불에 차운 바람이 이는, 잡담 속에서 두들어지게 눈에 오는 빛갈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짙은 속된 빛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식의 시선은 그 빛갈에 말려갔다. 희미하게 윤곽이 지어진 여자의 얼굴이 또한 그 속된 빛갈 위에 있었다. 여자는 걸어오고 빛갈은 분홍이었다. 어디선가 아주 익히 보아 온 여자에 고이는 그 빛갈과 영식의 거리는 차츰 가까워졌다. 빛갈은 영식의 앞에까지 닥아오자,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가 걸음을 멎은 것이었다. 영식을

빛갈과 나란히 섰다.<sup>303)</sup>

인용문은 「거리」의 첫 장면이다. 부산 피난지의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남성화자의 시선에 “속된 빛갈”로 들어온다. 고상하지 못한 세속적인 모습의 그녀는 황혼의 그림자 속에서 포착되면서 낭만적 환영으로 묘사된다. 영식의 시선에 들어온 그녀의 모습은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감정이다. 그 여성은 영식의 옛 여인 정아이다. 영식을 보기 위해 김해서 일부러 나왔다는 그녀의 얼굴은 “평안치 않은” 현재를 표상한다.

정아는 전쟁으로 남편이 행방불명된 후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친정도 피난 살림인지라 생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영식에게 일자리를 부탁한다. 정아의 “속된”의 이미지는 전쟁으로 인한 일상성의 붕괴로 인한 것이다. 일종의 전쟁기 여성수난사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작품에서 하나 더 눈여겨 볼 것은 정아의 속된 이미지가 “빛갈”과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술자는 이를 “속된 분홍 빛갈”이라고 명명하는 데, 그 이유는 영식과 정아의 관계성에서 배태되는 감정선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 정아와 영식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이였지만 유부남인 영식에게 정아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이별을 고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행복한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사랑은 전쟁 직전의 어두운 분위기와 함께 “어두운 진탕길” “지옥의 문”으로 서술된다. 정아가 이별을 선언하였을 때 영식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지옥이란, 이승에서 지은 죄업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 저승의 거야, 하지만 그런 먼 거리를 두지 않고라도 지옥은 있는거야. 어느 지옥의 형벌이 더 가혹할지는 몰라. 그러나 저 먼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 밖의 지옥의 형벌은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할 수는 있어, 왜냐 하면 저승의 거니까. (...중략...) 정아가 나를 알

303) 손소희, 「距離」, 『전선문학』 5, 1953.5, p.88.

수는 없겠지. 다만 어떤 론리 위에서도 어떤 정의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어떤 면을 설명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오늘, 나는 나야.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나는 내 곁에서 정아가 일초라도 떠나 있으면 견디기 어려워. 어째서 견딜 수 없는지, 그 이유는 설명 되는 게 아닌지도 몰라. 이것도 나는 지옥이라고 생각해봤어...그는 눈을 떴다.<sup>304)</sup>

이미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지옥이라고 설명하는 영식은 정아와의 이별을 거부한다. 이별의 거부를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드러냄으로써 영식은 우울증적 양상을 보인다. 정신분석학에서 우울증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심리적 슬픔과 연관된다. 이때 주체는 애정의 대상을 상실해서 사랑의 리비도를 거둬들일 때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sup>305)</sup> 영식 역시 정아의 이별선언을 통해 우울증을 드러낸다. 이러한 영식의 우울증에서 중요한 것은 영식이 정아와의 이별을 거부할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sup>306)</sup> 정아가 떠남으로 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날 이후 영식은 외부와 소통 없는 고립된 생활을 이어간다. 여기에 전쟁과 피난의 일상이 가중되면서 영식은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외부와의 관계성을 단절하는 영식의 내면적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의 퇴각’이다.<sup>307)</sup>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전시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영식의 내적감정은 전쟁의 대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전방에서 전쟁의 대의를 수행하고 민족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할 남성의 위치를 거부하고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에 몰입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강건함을 요구하는 전장의 남성다움과 거리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쟁

304) 「距離」, p.97.

305) 조현준, 「우울증」, 『페미니즘의 개념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녘, p.293.

306)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울증은 자아의 형성이나 자기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쓸모없고 허망해진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된 자기 자신이다. 위의 글, pp.293-294.

307) 지젝은 우울증을 행위와 외적 자극 사이의 인과적 연결성 혹은 인과 관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원초의 자유행동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우울증을 절대적 부정성, 즉 헤겔이 ‘세계의 밤The Night of the World’ 이라고 부른 주체의 자기 자신으로의 퇴각과 연결시킨다. Slavoj Zizek, *The Metastases of Enjoyment*, London: VERSO, 1994, pp.119-122.

기 장덕조의 남성상과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장덕조가 육체와 정신의 강건함을 갖춘 남성과 그의 동반자로서의 강인한 여성을 배치하고 있다면, 손소희는 피난지에서 무기력하고 고립된 자아의 남성을 형상화한다.

「거리」에서 영식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우울의 정조를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인물 정아야말로 영식의 “불행한 습성”이라는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쟁 이전 「도피」(1946)에서도 남자주인공 철의 감정과 행동을 촉발시키는 인물은 영자다. 「도피」의 경우 영자는 해방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남성의 감정과 행동을 촉발시키는 여성으로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로 등장하였다. 반면, 「거리」에서의 정아는 전쟁의 대의를 수행하는 남성주체를 붕괴시키는 침잠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요컨대 손소희는 「거리」에서 여성의 우울증을 내면화하는 남성을 서술함으로써 폭력적인 남성적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남성의 내적 감정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우울한 내적 감정과 이를 내면화하는 남성을 통해 손소희는 전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념의 환상과 허상을 고발함으로써 전쟁이라는 대의에 균열을 낼 수 있었다.

## V. 결론

이 논문은 1945-1953년 소설을 대상으로 ‘해방’의 테제를 수행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젠더적 현실 인식에 의해 출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족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재사유하게 한 동시에 젠더에 관한 인식 체계에도 극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후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부녀국 설치, 여성 참정권 획득, 공창제폐지령 등의 법률적 시행은 여성해방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도적 시행이 곧 실질적인 여성해방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젠더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해방 후 문학에서의 현실인식을 당대 젠더를 둘러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면 과연 어떤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II 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의 재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행위의 의미효과를 살펴보았다. 해방 후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은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직후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호명한 것은 남성작가였다. 김남천은 「1945년 8.15」에서 박문경이라는 여성주인공이 공적 대의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의식을 지닌 문제적 개인으로 변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문경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진 남자주인공 김지원과 달리 이념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문경의 행위는 해방 직후의 정권수립구상의 분열과 위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작가 김남천에게는 ‘혁명’의 불안과 위기를 가져왔다. 이후 김남천은 「동방의 애인」에서 여자주인공 방혜련을 남성주체의 공적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역사바깥의 인물로 설정하였다. 이는 실재계의 불안을 드러내는 여성의 행위를 은폐하고, 확고한 이념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완벽한 남성을 역사의 주체 자리에 내세움으로써 8.15라는 해방의 정치적 이상을 재

현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염상섭의 소설 「효풍」의 여성주인공 혜란 역시 해방 후 새로운 주체로서 국가건설이라는 공적 대의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혜란의 거의 모든 행위의 중점에는 병직과의 결혼이라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전제됨으로써 그녀는 사상과 이념을 소유한 주체적 행위능력을 지닌 개인으로 완전히 형상화되지 않고 가정부인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노라의 재현에서도 나타나는데, 해방 후 노라의 가출은 조선의 민족성을 회복하는 행위로 재현되었다. 정인택의 「황조가」와 정비석의 「안해의 항의문」에서의 아내의 가출은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수행하지 않는 남편을 부정을 고발하는 행위였다. 해방의 대의를 수행하지 않는 남성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은 민족주체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남성작가가 민족주체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동일한 성별이 아닌,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통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위함이었다. 정인택과 정비석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된 여성을 통해 비판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남성작가는 타자로서의 젠더적 정체성을 통해 조국건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남성의 조국 건설의 욕망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된 여성의 행위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의 정치적 욕망의 대리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였다.

해방 후 여성작가가 문단에 소설을 발표한 시기는 1946년 중후반이었다. 가장 먼저 문단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이선희와 지하련으로, 그들의 작품, 「창」과 「도정」에서 해방 후 정치적 열망을 재현하는 인물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이선희의 「창」에서 남성주인공 사백은 공적 대의에 저항하고 자신의 유일한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였다. 사백의 자살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의 억압과 균열이었다. 이는 신국가의 위협과 분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봉쇄된 목소리다. 한편, 지하련의 「도정」에서 남성주인공 석재는 과거에 대한 충

분한 사유를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당과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 회의懷疑하는 인물이었다. 해방이라는 사건이 새로운 공동체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석재에게 긴요한 것은 열정으로서의 전환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의 재건과정에서 석재의 윤리적 요청은 부정, 은폐되어야 할 행위였다.

앞서 살펴본 남성작가의 경우 여성이라는 타자를 통해 내셔널리즘의 억압과 균열을 봉합하고 남성주체에 의해 재건될 열정으로서의 해방 후를 포착하고 있다면, 이선희와 지하련은 남성주체의 불안과 회의를 통해 해방의 열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재건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가건설의 전망에 대한 여성작가의 정치적 사유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될 즈음 여성작가는 ‘생활’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III 장에서는 1947년 중후반부터 1950년 전쟁이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적 경험의 공론화를 통해 생활이 구축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1947년 중후반은 국가건설에 관한 이념대립이 극에 달한 동시에 3.8선의 분할이 지속되면서 조선 경제구조의 파탄이 극심해진 시기였다. 경제구조의 파탄이 생활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해방 후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한 임옥인, 장덕조, 최정희, 김말봉 등은 정치적 이념과 그 실현의 가능성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임옥인의 작품은 해방을 기점으로 가정 내의 문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조우하였다. 그 배경에는 작가의 월남경험이 가로놓인다. 임옥인의 월남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은 불구가 된 오빠의 모습이었다. 오빠의 불구는 오빠의 부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해방 후 여성이 자기 존재로서 존립할 근거가 된다. 「이슬과 같이」와 「오빠」에서 여성지식인 ‘나’가 맞이한 해방은 폭격당한 집이었다. ‘나’는 집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오빠에 대한 사상적 의지로부터 결별하고 월남을 감행하였다. 집과 가정의 울타리가 통상 여성화된 장소를 상징한다면, 여성의 월경越境 그러한 장소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남성의 부재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적논리가 여성의 월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물론, 「약



속」과 「서울역」에서의 여성주인공은 집과 가족을 버리고 단신으로 월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주인공은 집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서의 자기 생활을 벗어나 주체로서 새로운 자기를 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임옥인의 소설에서 여성은 집이라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외부세계로 나아간다면, 장덕조와 최정희의 소설은 외부세계로 나간 여성지식인이 민족주체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 하위계층의 삶을 마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장덕조의 「저희」와 「곤비」에서는 하층계급으로 전락한 여성 지식인이 등장한다. 지식인 여성은 하위계층으로 전락한 여성을 통해 해방 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구호를 강요하는 남성적 세계와 결별하고 생활의 애환을 짚어낸 여성과 조응하는 공감의 정서를 재현하였다. 최정희의 「봉수와 그 가족」과 「청량리역 근처」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하위계층의 가난한 삶과 기구한 운명에 관한 침묵된 ‘목소리-의식 voice-consciousness’을 드러냈다. 이 시기 빈곤이라는 사태는 재화의 결여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deprivation이었다. 공적 대의가 최우선시 되었던 해방 후의 상황에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성 하위계층은 국가재건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들이었다. 장덕조와 최정희는 여성 하위계층에 대한 공감과 관찰을 통해 사적 경험 내에 간혀 있던 그녀들의 생활의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한편, 배제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들’의 생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역시 해방 후에는 긴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단서는 공창제폐지 관련 사건을 다룬 김말봉의 「가인의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김말봉은 「가인의 시장」을 통해 공창제폐지의 정당성과 주변화된 여성들의 사회 질서 내의 성공적인 안착을 상상적으로 재현하였다. 소설에서 공창제폐지의 성공은 기독교의 순결주의를 통해 여성 ‘들’의 범주를 구성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남성성을 거부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통해 김말봉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공창제폐지운동과 희망원의 설립은 사적 경험 내에서 논의되던 섹슈얼리티를 공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는 한편으로, 여성연

대의 가능성을 꿈꾼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47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 여성작가의 젠더적 현실인식은 외부세계를 인식한 여성이 하위주체와 성매매여성 등을 예외화하지 않고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구축하고 포섭할 것인가의 사유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화된다.

Ⅳ 장에서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기 작품을 대상으로 국가이념의 권력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젠더 위계질서의 공고화와 그 불안정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쟁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질서의 성역할의 강화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던 여성의 행위는 전쟁기를 거치면서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거나, 내면으로 후퇴한다.

장덕조의 「어머니」와 「풍설」은 후방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장덕조의 소설에서 여성은 국가에 헌신하는 남성의 이상에 공감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 힘」과 「선물」에서 여성은 나약한 남성을 대신하여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일원이 되고자 하였다. 즉 장덕조의 전쟁소설에서 여성의 역할은 후방의 여성을 넘어서 전장의 여성을 표상하였다. 전장의 여성 표상에는 남성과의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장덕조의 소설에서 전쟁 참여 의식은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연결되었다. 이는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의 고통과 죽음을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로 승화하고자 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한무숙의 「파편」과 「김일등병」은 여성이 아닌 남성인물에 초점을 두었다. 「파편」은 ‘피난민의 서글픔’의 근본원인이 전쟁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쟁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남성의 일상성을 통해 고발하였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의 여성적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전쟁에서 남성이 지닌 여성이미지는 남성히스테리의 증상이다. 이는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남성동지애homosocial를 상징하는 전장의 남성을 여성이미지로 전유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반감과 공포를 드러내는 것이다. 「김일등병」에서

상이군인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자신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환상은 전쟁 수행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선은 상이군인을 명예로운 훈장으로 환치하는 환상적 장치였다. 그런데 이 환상은 여성의 시선을 응시하는 나를 통해 깨어졌다. 이는 해방과 민족의 대의를 위해 수행된 전쟁에 대한 환상이 건히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무숙은 남성히스테리와 여성의 응시를 통해 용기 있고 호전적인 전쟁의 남성이미지에 은폐된 전쟁의 폭력성과 개인의 과멸을 포착하였다.

손소희의 「결심」, 「바다위에서」, 「그날에 있는 일」, 「쥐」 등은 반공이념 내세우는 국가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허구성의 메커니즘을 고발하거나 여성인물의 우울한 내적심리를 통해 전쟁기 일상성의 불안을 드러냈다. 이러한 여성인물의 내적심리는 전쟁의 대의를 수행해야 할 남성에게 영향을 미쳤다. 「거리」에서는 여성의 우울증을 내면화하는 남성의 내적 감정을 포착하였다. 전쟁에서의 우울한 정조는 폭력적인 남성적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다. 손소희는 여성의 우울한 내적심리와 이를 내면화하는 남성을 통해 전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념의 환상과 허상을 고발함으로써 전쟁의 대의에 균열을 냈다.

전쟁기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여성/남성은 전쟁의 성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적 대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으로 후퇴함으로써 전쟁의 무의미성과 환상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1945-1953년의 문학은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남성/여성 작가는 민족국가건설에의 욕망을 젠더적 현실인식을 통해 드러냈다. 남성/여성작가가 재현한 젠더는 고정된 성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며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 소설에서 젠더는 새로운 정치적, 미학적 의미를 획득하며 공동체의 세계를 욕망하는 기제로 기입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방 후 문학의 젠더는 ‘과정중의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성공론』 『부인』 『여성문화』 『여성공론』 『백민』 『부인』 『새살림』 『신천지』 『민성』 『자유신문』 『전선문학』

김남천, 「1945년 8.15」, 『자유신문』, 1945.10.15.-1946.6.28.

——, 「동방의 애인」, 『예술통신』, 1946. 9.5(?).-1946.12.14.

김말봉, 「佳人の 市場」, 『부인신보』, 1947.7.1.-1948.5.8.

——, 『화려한 지옥』, 문연사, 1954.

손소희, 「맥에의 메별」, 『백민』, 1946.10.

——, 「결심」, 『적화삼삭구인집』, 1951.4,

——, 「바다위에서」, 『신조』, 1951.6.

——, 「그날이 있는 일」, 『협동』, 1951.11.

——, 「취」, 『문예』, 1952.1.

——, 「거리」, 『전선문학』, 1953.5.

염상섭, 「효풍」, 『자유신문』, 1948.1.1.-1948.11.3.

이선희, 「창」, 『서울신문』, 1946.6.27.-7.20.

임옥인, 「이슬과 같이」, 『부인』, 1947.9-11.

——, 「오빠」, 『백민』, 1948.10.

——, 「약속」, 『백민』, 1947.12.

——, 「서울역」, 『민주경찰』, 1949.7.

장덕조 「곤비」, 『국도신문』, 1949.8.8.-15.

——, 「저희」, 『연합신문』, 1949.1.30.-2.23.

——, 「어머니」,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 「풍설」, 『희망』, 1953.2.

——, 「젊은 힘」,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 「선물」, 『전시문학』, 1953.4.  
 지하련 「도정」, 『문학』, 1946.7.  
 정비석 「안해의 항의문」, 『신천지』, 1948.6.  
 정인택 「황조가」, 『백민』, 1947.3.  
 최정희 「청량리역 근처」, 『백민』, 1947.10-1947.11.  
 ——, 「봉수와 그 가족」, 『풍류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한무숙, 「김일등병」, 『신조』, 1951.4.  
 ——, 「파편」, 『피난민은 서글프다』, 1951.

『김남천 전집』 I·II, 정호웅·손정수 편, 박이정, 2000.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자료집』, 구명숙 외 편저, 역락, 2012.

## 2. 국내문헌

구재진, 「「해방전후」의 기억과 망각」, 『한중인문학연구』 17, 2006.  
 권명아, 「여성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2003.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김경원, 「1945-1950년 한국소설의 담론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0.  
 김남천, 「창조적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문학』, 1946.7.  
 김동석, 「해방기 소설의 비판적 연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명희, 「이선희 연구」, 『한민족어문학』 24, 1993.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국가건설 운동」,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33, 2009.

- 김복순, 「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양상」,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 소설비평』, 한길사, 1997.6.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일지사, 1991.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 김외곤, 「새나라 건설을 위한 노력과 좌절: 김남천의 <1945년 8·15>」 『외국문학』 31, 1992.
- 김윤선, 「192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성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김재용, 「카프 해소 비해소파의 대립과 해방후의 문학운동」, 『역사비평』, 1988 가을.
- ,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주리, 「월경과 반경: 임옥인의 「월남전후」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31, 2015.
-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0, 2015.
- 노지승,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2012.
- 류진희, 「월북작가 이선희와 지하련의 해방이후」, 『상허학보』, 2003.
- ,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2.
- 박경수, 『정인택, 그 생존의 방정식』
-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 박선희, 「<佳人的 市場>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54, 2012.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

- 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55, 2014.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서정자, 「자기의 서사화와 진정성의 문제」, 『세계한국어문학』 2, 2009.
- 서형범, 「염상섭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2004.
-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2001.
- 엄미옥, 「한국 전쟁기 여성 종군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10.
- 오태영의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2007.6.
- 오태영,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 가난 서사와 국가 이데올로기」, 『동악어문학』 64, 2015.2.
-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운동과 조직에 대한 연구」, 『한국학보』 52, 1988 가을.
-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대중화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18, 1989.
-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 이민영,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일상문화의 실연과 그 의미」,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 이상경, 『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 이선이, 「냉전기 동아시아의 ‘성’ 관리 정책 : 중국과 한국의 ‘폐창 정책’ 비교분석」, 『여성학논집』 24, 2007.
- 이양숙, 「해방직후 문학이념과 정책논쟁: 1946.8-1946.1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54, 1989, 봄.
- , 「해방기 여성과 정치: 헌신과 속죄를 통한 정치적 재생: 『1945

- 년 8.15』와 『동방의 애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 2011.9.
- , 「해방 직후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감정구조: 지하련의 「도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2014.12.
- 이영미, 「성애의 시대, 여성 주체와 섹슈얼리티: 해방공간의 성담론 시고」, 『국제어문』 33, 2005.4
- , 「해방공간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9.
- 이임하,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과 섹슈얼리티」, 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 미디어, 2004.
- 이진구, 「해방이후 남한 개신교의 미국화」,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 ,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19, 2008.6
- ,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009.10.
-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가인의 시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
- , 「해방기 여성의 생활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1945-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개신어문학회』, 2013.6.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5.
- 서승희, 「국민문학 작가의 해방 이후 글쓰기 전략 연구:이무영, 이석훈, 정인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3, 2013.
- 서영인, 「김남천의 해방기 문학해석을 위한 시론: <1945년 8·15>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4, 2006.
- 서정자, 「이선희의 소설연구」, 『원우논총』 3, 1985.8.
-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의 연구』 49, 2013.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표상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4.

신춘자, 「기독교와 박계주의 <진리의 밤> 연구」, 『성결대학교 논문집』 제29집, 2000.

신형기, 『해방직후 문학운동론』, 화다, 1988.

——, 『해방기 소설연구』, 태학사, 1992.

장영민, 「해방 후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전지니, 「8.15 해방과 ‘노라’ 이야기: 최의순의 「노랑이집」과 정비석의 「안해의 항의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2012.6.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증보판), 신구문화사, 1983(1977).

정인택, 『정인택의 일본어소설 완역: 「청량리부근」에서 「각서」까지』, 김순전, 박경수 옮김, 제이앤씨, 2014.

정중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1940-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 2008.

정중현, 『제국의 기억과 전유』, 어문학사, 2012.

정호웅, 「해방 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전혜자, 「모성적 이데올로기로의 회귀: 임옥인의 「월남전후」론」, 『현대소설연구』 7, 1997.

조남현, 「해방직후 단편에 나타난 혼란상과 갈등상」, 『한국문학』, 1988.1.

——, 「한무숙 소설의 갈래와 향심」,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2.12.

——, 「1948년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현대문학연구』 6, 1998.1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조미숙, 「손소희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 2008.

조현준, 「안티고네:송고미에서 퀴어 주체로」,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8, 2006.

조현준, 『젠더는 패러다임』, 현암사, 2014.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해방전후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과 이주: 임옥인의 「월남전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최정희, 「봉수와 그 가족」,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II, 2011.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 연구」,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회, 2008.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한경희, 「임옥인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 체험의 서사화와 사랑의 문제」, 『춘원연구학보』 7, 2014.

황정미, 「해방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한국학보』 28, 2002.

### 3. 국외문헌

Agamben, Giorgio, 『목적 없는 수단』, 김상운·양창렬 역, 난장, 2009.

Ashcroft, Bill,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이석호 옮김, 1996.

Bakhtin, Mikhail, 『말의 미학』, 김희숙, 박종소 역, 도서출판 길, 2006.

Benjamin, Walter,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12.

Butler, Judith,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옮김, 인간사랑, 2003.

Butler, Judith,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관계』, 조현순 옮김, 동문선, 2006.

Butler, Judith,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우연성, 헤게모니 보

- 편성』, by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Žižek, 박대진,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 b, 2009.
- Butler, Judith, 『젠더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16.
- Derrida, Jacques, 『법의 힘』, 진태원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
- Felski, Rita, 『근대성의 젠더』, 김영찬, 심진경 옮김, 자음과 모음, 2010.
- Foucault, Michel, 「니체, 계보학, 역사」,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이광래 역, 민음사, 1995.
- Lukács, Georg,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1998.
- Mosse, George L.,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소명출판, 2006.
- Pam Morris, 『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Reardon, Betty, *Sexism and the war system*, Syracuse, N.Y. :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6.
- Salih, Sara,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옮김, 앨피, 2007.
- Scott, W.Joan, 「젠더: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 송희영 역, 『국어문학』 31, 1996.
- ,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옮김, 앨피, 2017.
- Showalter, Elaine, 「페미니스트의 비평 혁명」,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신경숙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4.
- Spivak, Gayatri, 『포스트식민이성비판』, 태혜숙, 박미선 옮김, 갈무리, 2005.
- Spivak, Gayatri & Butler, Judith,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옮김, 산책자, 2008
- Stephen, Morton, 『스피박 넘기』, 이운경 옮김, 앨피, 2005.
- 木村淳子, 『주부의 탄생「主婦」の誕生』, 이은주 옮김, 소명출판, 2013.
- 水田宗子,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 女性の自我と表現』, 田畑書店, 1982.
- , 「女への逃走と女からの逃走」, Japanese literature 41, 1992, 11.
- 若桑みどり, 『전쟁이 만들어낸 여성상』, 손지연 역, 소명출판, 2011.
- 上野千鶴子, 『여자들의 사상』, 현실문화, 2015.
- 李孝德, 『표상공간의 근代表象空間の近代』, 박성관 역, 소명출판, 2002.

## Abstract

### A Study on Perception of Gender Reality Found in Korean Novels Between 1945 and 1953

Mijin L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ed to demonstrate new social possibilities to realize the thesis of ‘liberation’ emerged via various historical gender-related contexts, based on perception of gender reality in literature after liberation of Korea.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brought about discussions on the ideology and values of a nation state and, simultaneously, radical change in perception of gender. Enforcement of laws such as banning of human trafficking, installation of Womens’ Bureau, women’s acquisition of political rights, and abolition of legal prostitution that followed were revolutionary event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liberation. Although institutional measures did not immediately result in practical liberation of women, they certainly changed gender perception in general. This article began with the question as to what possibilities

and meanings can be found by understanding perception of gender reality in literature after liberation of Korea based on social structure and power relations of gender.

In Chapter II, based on novels published between August 15, 1945 and 1948, the meaning effect of gender behaviors during reformation of nationalism was discussed. Since the liberation, legal enforcemen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political rights became a symbol of democracy and, as a result, women acquired new aesthetic and political significance.

After the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it was male writers who named female writers a new political force. Novels written by male writers such as Kim Namcheon, Yeom Sangseop, Jeong Intaek, and Jeong Biseok describe female protagonists as a national actor who fights for a public cause. As the other gender, Male writers attempted to represent the desire to rebuild the country through gender identity. Such desire of male characters was justified by actions of female characters. However, the subject of 'woman' is not a stable symbol that does not completely agree with what it describes or represents, but a problematic one that causes competition or anxiety. Female characters, who changed into actors by participating in a public cause, reveal the discrepancy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And this brought about crisis of revolutionary and, thereby, damaged the public cause of men. For that reason, female characters were presented as peripheral characters sacrifice themselves for men's public cause, housewives, or those who desire rebuilding of men. Women have limited actions as an agent of men's political desire.

Meanwhile, it was from the mid-to-late 1946 that female writers began to publish novels since liberation of Korea. The first ones to do

so were Lee Seonhee and Ji Haryeon. In their novels, it is men, not women, who represent political aspiration after liberation. Through anxiety and skepticism of male characters, Lee and Ji raised questions regarding the enthusiasm that followed the liberation and called for ethical attitude toward rebuilding the country. However, political contemplation among female writers regarding rebuilding the country did not last, 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on August 15, 1948 and, subsequently, female writers were faced with problems with 'livelihood.'

In Chapter III, the process as to how livelihood was established through public discussion of personal experiences among women was examined based on novels published from mid-to-late 1947 until the Korean War. During mid-to-late 1947, South Korea witnessed extreme clash of ideologies for rebuilding the country and continued division by the 38<sup>th</sup> parallel, which resulted in severe destruction of the country's economic structure and, thereby, crisis of live lihood. Writers who began to publish officially after the liberation, such as LimOgin, JangDeokjo, ChoiJeonghee, and KimMalbong, focused on the question of livelihood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ies and their feasibility.

Lim's novels encountered with the outside world beyond domestic issues, following liberation of Korea. At the core of such change was her experience of moving to South Korea. The scene that repeatedly appears in Lim's experience of moving to the south is her olderbrother's disability. The disability later leads to absence of the brother, which, in turn, forms the basis of her existence after the liberation. In her novels, the female protagonist shows strong determination to establish herself as an autonomous person beyond the private domain of home and family life.

In the novels of Jang and Choi, women intellectuals go on to the

outside world and face the subaltern life that is not embraced as the national mainstream. Poverty is not absence of goods but deprivation of basic potential. In the country where the public cause was the priority after liberation, the subaltern class that was limited to private domain of home and family life was completely excluded from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Through empathy with and observation of the low class women, Jang and Choi exposed the silenced voice-consciousness of their deprived life and harsh fate and gave rise to discussion of private experiences of the lower class.

As important as revealing the stories of the excluded lower class was the question of how to re-establish the livelihood of the subaltern. A clue to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as found in the novels written by Kim Malbong that related to abolition of prostitution. Her novels discuss the legitimacy of abolition of prostitution and show women who, despite being marginalized from the mainstream, successfully build their lives. Success of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is brought about by categorizing ‘women’ based on the Christian purity and rejecting male sex that has been contaminated and degenerated. However, this idea reveals limitations in that it follows the gender dichotomy of ‘debased women vs. pure women’ and contributes to modern familism. However, the movement of abolition of prostitution and establishment of Heemangwon were meaningful as they brought up the subject of sexuality to the public sphere and possibility of women’s solidarity.

Since late 1947, the perception of gender reality among female writers who were faced with the problems of ‘livelihood’ expanded their contemplation to how to rebuild and embrace the livelihoods of the subaltern and prostitutes. However, such possibility was changed radically after the war.

In Chapter IV, based on novels written during the war, between 1950

and 1953, consolidation of gender hierarchy and its instability found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ideology were examined. War narratives bring about reinforcement of gender roles within the patriarchal social order. As a result, women, who participated in public cause after liberation and in national law and order through public discussions of women's personal experiences and other means while revealing hidden voices of women in the process, become limited in social participation and are set back as a result of war.

In the war novel by Jang Deokjo, female characters stand in the battlefield instead of staying in the background. The female symbol in the battlefield represents the writer's desire to take part as a member of the nation-state based on equality with men. However, in her novel,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war is linked with mourning of death. She tried to prevent the painful experience of war by turning the pain and death from war into a great cause for the nation and country. To be sure, it arguably encourages war by equating war with death.

The protagonist in the war novel by Han Musuk is male. However, the man is represented by a feminine image. And the feminine image of a man in battlefield is a symptom of hysteria. By assigning a feminine image to battlefield that symbolizes belligerent, brave, and homosocial nature of men, she reveals rejection and fear of war. Also, through the woman's observation, she challenges the fantasy of men that they are serving the great cause for the nation and country. Han's war novel captures the inside of men's mind and reveals fantasy surrounding war ideology through feminine image and woman's observation.

The war novel by Son Sohee distances itself from anti-communist



nationalism while criticizing the dillusional mechanism or revealing unstable daily life during war through sadness of women. Such sentiment of female character, in turn, influences men who are to serve the great cause in war. Instead of being indoctrinated by the war ideology, Son criticizes the fantasy and delusion of the ideology and, thereby, war, through sadness of women and internalization of the sadness by men. Novels written by women between 1950 and 1953, sometimes, participated in the public cause by reinforcing gender roles of war but, also, criticized the meaninglessness and fantasy of war by turning to the inside.

**keywords :** Liberation, After liberation, Gender, Nationalism, livelihood, Korean War, Female writer.

*Student Number :* 2010-30009